

2014 한국육아지원학회 추계학술대회

한국유아교육의 도전과 과제

- 일시 : 2014년 11월 1일(토) 9:30~16:00
- 장소 : 강남대학교 살롱관 B1 108호
- 후원 : 교문사 · 공동체 · 양서원 · 육아방송 · 창지사



한국육아지원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본 교재는 교문사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모시는 글

안녕하십니까?

아름답고 풍요로운 결실과 수확의 계절입니다.

한국육아지원학회에서는 『한국유아교육의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한국의 유아교육은 유아교육·보육통합의 효율적 방안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방향의 로드맵을 구축하고, 교육적 혁신과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사회적 당면과제 속에서 변화를 위한 도전과 과제를 준비하고 해결해야하는 시점에 놓여있습니다.

따라서 ‘유보통합을 향한 한국유아교육의 현상과 과제’에 관한 기초강연을 기반으로 하여 첫째, 현재 유아교육정책 현황과 과제를 알아보고 둘째, 유아교육정책의 일환으로 누리과정의 운영실태와 향후 과제를 제시하며 심도있게 탐구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본 학술대회가 『한국유아교육의 도전과 과제』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학문적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양하고 유익한 연구 활동과 토론의 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 11월

한국육아지원학회장 문연심

학술대회 일정표

- 9:30~10:00 **등록**
사회: 이명희(중부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 10:00~10:10 **개회사**
문연심(한국육아지원학회장, 강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10:10~11:00 **기조강연 - 유보통합을 향한 한국유아교육의 현상과 과제**
이기숙(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11:00~11:20 **휴식**
- 11:20~12:10 **주제강연 I - 유아교육 정책 현황과 과제**
장석현(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서기관)
- 12:10~13:30 **점심(살롱관 B1 학생식당)**
포스터 발표(살롱관 1층 로비)
- 13:30~14:20 **Young Scholar Session**
1분과(501호), 2분과(502호), 3분과(503호)

▣ Young Scholar Session

시 간	1분과 (살롱관 501호) 사회 : 원계선(제주한라대 교수)	2분과 (살롱관 502호) 사회 : 이진화(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3분과 (살롱관 503호) 사회 : 임원신(남서울대 교수)
13:30 ~ 13:55	유치원교원의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모형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방안 문복진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지원과 과장)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 경험과 성격 및 양육신념이 어머니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 이미영 (해와 달 어린이집 원장) 이현옥 (성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의 텍스트 연결망 분석 박선혜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13:55 ~ 14:20	유치원 초임교사 핵심역량의 타당화 연구 박은혜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조운주 (한국교통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기능적 의사소통훈련: 북미거주 한국 이민자 가정을 중심으로 김형미 (한국성서대학교 영유아보육과 조교수)	보육교사를 위한 영아급사증후군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연구 김일옥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박현정 (김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14:20~14:30 이동
- 14:30~15:20 **주제강연 II** - 누리과정 발전포럼을 통해 본 누리과정 운영 실태와 향후 과제
김은영(육아정책연구소 전략기획센터장)
- 15:20~15:40 **종합토론**
심성경(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15:40~ **폐 회**

목 차

기조강연	유보통합을 향한 한국유아교육의 현상과 과제..... 11 이기숙(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주제강연 I	유아교육 정책 현황과 과제..... 47 장석환(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서기관)
주제강연 II	누리과정 발전포럼을 통해 본 누리과정 운영 실태와 향후 과제... 69 김은영(육아정책연구소 전략기획센터장)
》》 Young Scholar Session (I)	
• 유치원 교원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모형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방안..... 99	문복진(유아교육진흥원 교육지원과 과장)
• 유치원 초임교사 핵심역량의 타당화 연구..... 109	박은혜(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조운주(한국교통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Young Scholar Session (II)	
•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과 성격 및 양육 신념이 어머니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 117	이미영(해와 달 어린이집 원장), 이현옥(성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 북미 거주 한국 이민자 가정을 중심으로... 121	김형미(한국성서대학교 영유아보육과 조교수)
》》 Young Scholar Session (III)	
• 국가수준 유치원교육과정의 텍스트 연결망 분석: 놀이 관련어를 중심으로..... 129	박선혜(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 보육교사를 위한 영아급사증후군 예방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연구..... 137	김일옥(삼육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박현정(김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포스터 발표 |||

1.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이용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145
박경숙(은가람어린이집 원장)	
박희숙(강남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2. 유치원 방과후 과정 담당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분석	148
고영자(서울신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조안나(서울신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3. 부모의 유아평화교육에 대한 인식	151
이효숙(광주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이미나(전남도립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4.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녹색성장교육의 교수설계 모형 개발	155
손수민(강남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5. 유치원 교사의 임파워먼트, 직무만족, 교사리더십이 교직원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구조모형 분석 ...	158
장영숙(경인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6. 만 2세 반 영아의 혼잣말의 현상학적 연구	161
김민영(LG 이노텍 어린이집 원장)	
7. 유아들의 거친 신체 놀이 의미 분석	165
고여훈(청강문화산업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8. 공립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운영실태 및 운영방안에 대한 운영위원의 인식	169
안애경(안산원곡유치원 원장)	
최일선(경인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9. 유치원장의 리더십과 교사 관심사 발달수준간의 관계	172
하수정(한국치료놀이학회 수련치료사)	
박희숙(강남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10. 교사의 유아 스트레스 대처 준비와 지원 자료에 대한 인식	175
김소영(뿌리유치원 부장교사)	
최일선(경인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 한국육아지원학회 회칙 181	
■ '육아지원연구' 논문 투고 규정 189	
■ 제 5대 한국육아지원학회 이사 192	
■ 연수 이수증	

기조강연

유보통합을 향한 한국유아교육의 현상과 과제

이기숙(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유보통합을 향한 한국유아교육의 현상과 과제

이기숙(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우리나라의 유아 교육은 100여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발달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인 발전 보다는 최근 10여년의 발달이 급속한 팽창과 관심을 가져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유·보 통합의 문제는 이전부터 줄곧 대두되어 온 해묵은 논의였으나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어느 때 보다도 주요 과제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유아 교육과 보육이 이원화 되어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으로 3-5세 동일연령을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같은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중복성,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이원화된 행정 재정체제, 교사양성체제와 교사자격의 문제 등이 무수히 많이 지적되었다. 결국 일원화를 해야 한다는 점에는 거의 모두가 동의하게 되었으나 막상 통합의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해결책이 분분하다. 2013년 3-5세 누리과정이 제정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동일하게 사용하게 되고 무상 보육과 교육의 정책이 실시됨에 따라 통합의 발판은 마련되었다. 특히 국무조정실은 2014년 2월 14일에 「추진단 설치 및 운영규정」을 발표하고 2014년 7월 현재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을 발족하면서 여러 형태의 의견수렴과 추진내용들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고는 유보일원화 논의를 현재 한국 영유아교육에서 일어나는 가장 획기적인 현상이라 전제하고 이와 관련된 지금의 한국 유아교육의 현상을 분석하고 향후 미래 유아교육의 과제를 논의해 보고자한다.

I. 유보통합의 추진 과정과 과제

유아교육에서 통합에 대한 논의는 교육개혁위원회가 1994년 만 5세 취학전 교육의 공교육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1997년에 「공교육체제 확립을 위한 유아교육개혁방안」

을 발표하면서 유아학교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논의는 실현되지 못하였고 2006년 이후 본격적으로 유보협력 및 통합연구가 「육아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아교육·보육의 협력과 통합방안」 등을 주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박근혜 정부 들어서 국무조정실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면서 유보통합의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이후 학회나 관련 단체 등에서 세미나와 토론회 등이 활발히 개최되었다. 유보 통합을 위한 그동안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사전현장방문 간담회(2013.5.21.)
유보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가 출범하기 이전에 국무조정실장이 주관이 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방문하고 사전현장 간담회형식
 - 유보통합 추진위원회출범 11인 위원장: 국무조정실장(2013.5.22)
유보통합의 모델을 도출하고 시범사업 실시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기구
 - 유보통합 실무조정위원회(11인)
유보통합모델팀이 마련한 통합안 및 시범사업계획안 등 실무조정기구
 - 유보통합 모델개발팀(6인)
유보통합의 필요성 논리 및 추진배경을 제시하고 유보통합관련 외국사례검토 및 시사점을 도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간의 비교,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통한 유보통합모델개발. 시범사업 기본계획수립 등
 - 유보통합에 대한 학부모 의견조사연구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연구하는 한국형 유아교육보육발전 로드맵 연구팀과 연계하여 학부모들의 의견을 조사
 - 국무조정실장 주재 학부모 간담회(2013.7.31.)
유보통합 관련 학부모의견조사 결과 보고 및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
 - 현영희 의원 주최 유보통합: 행정정책 관점에서 본 유아교육 및 보육의 실태와 통합방안 토론회개최(2013.12.5.). 그 외 국회의원 주최 토론회 및 포럼 다수(류지영 의원 등)
 - 국무조정실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출범(2014.2.14.)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체계 개선의 실무 작업을 담당할 국무총리 소속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추진단장 국무조정실 2차장) 공식 출범
 -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선진화포럼 유보통합토론회(2014.7.21.)
 - 제3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2014.8.29)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결제카드 통합방안'과 '정보공시 연계 및 통합방안'을 논의·확정함. 교육부의 유아학비 지원 결제카드(아이즐거운카드)와 보건복지부의 보육료 지원 결제카드(아이사랑카드)를 '아이행복카드'로 통합하여 현재 각각의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정보를 올해 말부터는 공통항목을 중심으로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개편
- **유치원알리미(e-childschoolinfo.moe.go.kr)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자료: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13. 5. 21. -22.), 이미화(2014), 장명립(2013)으로 재구성

이상의 과정을 살펴볼 때 정부차원의 노력이나 학회 등의 학술대회를 통해서 학계, 현장(정책토론회) 연합회 등의 유보통합에 대한 의지는 확고한 것을 알 수 있다. 일단 정부의 방침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을 중심으로 하여 학부모와 교사, 원장이나 학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하여 현장에서의 혼란이 야기되는 일이 없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유보서비스 체계개선을 위한 단계별 세부통합방안은 다음과 같다(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14.2.14).

1단계 : 즉시 가능한 것 우선추진

정보공시(원비, 교사, 특별활동, 급식 등) 내용 확대, 연계 및 통합
공통평가항목과 평가기준 마련,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 연계
재무회계규칙 적용 확대와 공통 적용 항목 개발 등

2단계 : 규제환경정비 등 본격 추진

결재카드 통일, 시설기준(교실 면적, 교사 대 아동 비율 등) 정비 통합
이용시간, 교육과정 등 통합
교사자격과 양성체계 정비 및 연계 추진

3단계 : 관리부처와 재원 등 마무리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교사 처우 격차 해소 단계적 지원
관리부처(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교육청과 지자체) 및 재원의 통합

이러한 3단계 추진과제와 더불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보통합의 목적이나 강조점은 시기에 따라 달라지며 유보통합의 방향성과 목적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다.

2013년 정부의 유보통합의 설명 자료에 의하면

- 유보통합은 어린이집·유치원 중 어느 기관을 가더라도 일정수준 이상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질을 개선하는 과정 -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다양한 기관 형태는 그대로 두면서, 학부모가 이용과정에서 양 기관의 차이로 인해 겪는 불편과 불합리를 해소하는 과정

자료: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14.2.14).

유보통합에서 시설이나 관할부처의 통합보다는 먼저 유보서비스의 체제/체질개선을 염두에 두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유치원과 어린이집 내에서의 격차를 해소한다는 것을 상위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이다. 이는 1990년대(1993년부터 1997년 사이 4차에 걸친 교육개혁안은 유아학교체제로의 공교육화 방안이었음) 교육부가 관할하는 유치원과 복지부 관할 어린이집을 교육부 관할 유아학교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관할부처 시설 통합안과는 다른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의 업무보고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여 유아학교(안)로 전환하고 부처도 교육부로 통합하겠다(한겨레, 2012.1.15. 사설)고 한 것과도 달라진 점이다. 우선 인프라 구축 후에 제도 및 부처 통합의 순서인 것이다. 즉 무리한 추진보다는 점진적인 유보 서비스 체계의 질 개선을 우선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즉시 가능하다고 보아 2014년부터 시행될 것 같이 보도된바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통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아직 실행이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유보통합을 위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현에 있어서는 아직도 모호하며 원론적인 논의만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가 상당히 존재함을 부인할 수 없다.

II. 유아교육기관의 현황과 과제

유아교육의 현상과 과제를 분석해 보기위해서 우선 우리나라 유아교육체제인 교육부가 관할하는 유치원과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어린이집의 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현황

1) 연도별 유치원과 어린이집 수

2005년 이후 지난 10여 년 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수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유치원은 2005년에 비해 그 증가폭이 크지 않아 5%정도 증가하였고 어린이집은 급격하게 증가하여 그 증가폭은 54%정도에 이르렀다. 2005년에는

어린이집이 28,367개소로 유치원보다 3.4배 많았으나 2013년에는 43,770개소로 급증하여 5배 정도 많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1〉 연도별 유치원 수

단위: 개소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	8,275	8,290	8,294	8,344	8,373	8,388	8,424	8,538	8,678
국·공립	4,412	4,460	4,448	4,483	4,493	4,501	4,502	4,525	4,577
사립	3,863	3,830	3,846	3,861	3,880	3,887	3,922	4,013	4,101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3). 교육통계서비스.

〈표 2〉 연도별 어린이집 수

단위: 개소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28,367	29,233	30,856	33,499	35,550	38,021	39,842	42,527	43,770
국·공립	1,473	1,643	1,748	1,826	1,917	2,034	2,116	2,203	2,332
사회복지법인	1,495	1,475	1,460	1,458	1,470	1,468	1,462	1,444	1,439
법인·단체 등	979	1,066	1,002	969	935	888	870	869	868
민간	12,769	12,864	13,081	13,306	13,433	13,789	14,134	14,440	14,751
가정	11,346	11,828	13,184	15,525	17,359	19,367	20,722	22,935	23,632
부모협동	42	59	61	65	66	74	89	113	129
직장	263	298	320	350	370	401	449	523	619

자료: 보건복지부(2013). 보육통계.

2)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현황과 취원율

2012년부터 시작되어 전 계층에 무상보육을 실시하면서 기관의 이용자수는 10.3%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2013년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관의 이용자 수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2013년 현재 영유아수는 유치원 원아의 경우 658,188명, 어린이집은 1,410,930명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가 전체의 68.2%를 차지한다. 2013년에는 양육수당으로 인해 0-1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2012년보다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표 3〉 유치원 취원율

단위: 명,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3세	취원아수	99,499	100,406	111,482	133,986	130,986	143,069
	취원율	22.9	22.4	25.1	27.1	28.1	32.1
4세	취원아수	184,178	185,195	181,441	196,602	229,911	223,926
	취원율	38.9	42.6	41.5	42.1	46.5	50.3
5세	취원아수	254,145	251,760	244,654	233,724	252,852	277,826
	취원율	51.6	53.2	54.7	52.5	56.3	56.3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3). 교육통계서비스. 통계청(각 연도). 읍면동 각 세별 인구.
 주: 취원율=(취원아 수/취원 대상수)×100

〈표 4〉 보육시설 취원율

단위: 명,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세	취원아수	99,245	107,525	125,133	144,666	177,757	148,273
	취원율	22.2	25.3	27.9	32.0	38.3	35.2
1세	취원아수	160,320	198,831	229,486	249,787	321,716	325,921
	취원율	36.0	42.8	51.7	53.1	68.1	67.0
2세	취원아수	242,324	268,038	331,637	342,879	372,811	400,781
	취원율	55.2	54.4	71.2	77.0	79.2	84.5
3세	취원아수	229,424	227,966	243,264	272,034	259,112	255,786
	취원율	51.1	50.9	49.3	58.3	58.1	54.1
4세	취원아수	192,668	193,934	180,542	182,999	194,413	184,513
	취원율	40.5	44.6	40.3	37.0	41.6	41.3
5세	취원아수	175,323	152,380	149,278	137,349	149,522	161,877
	취원율	35.8	32.2	34.3	30.6	30.2	34.6

자료: 보건복지부(2013). 보육통계.
 주: 취원율=(취원아 수/취원 대상수)×100

연령에 따른 기관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만 3세와 만 4세의 경우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가 더 많고 만 5세는 유치원 유아가 어린이집 이용 유아보다 더 많았다. 연구에 따르면 만 5세아의 유치원 취원율은 어린이집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으나, 취원율의 증가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 중 영어학원 등 유사 유아교육기관으로 이동하는 현상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이미화 외, 2013).

공립과 사립으로 구분해 보았을 때 유치원의 경우 2012년 기준으로 79.3%가 사립유치원에 재원하고 있으며 국공립유치원의 취원은 20.7%이다. 어린이집의 경우는 민간

비중이 더 커서 89.9%가 민간이고 10.1%만이 국공립 어린이집이 차지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통계, 2012.4.1. 기준; 보건복지부, 2012.12.31.기준). 향후 이러한 국공립과 사립/민간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은 영유아교육과 보육에서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 없다.

미래 육아지원정책 수요전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기관별·연령별 이용률을 예측해 본 결과 어린이집 이용률의 경우 영아(특히 만 1-2세)이용의 상승이 5년 후에는 80-90%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만 0세의 경우는 만 1-2세보다는 낮으나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만 4-5세는 과거 이용률과 유사하거나 감소 될 전망이며 만 3세의 경우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과 달리 유치원의 이용률은 향후 5년 동안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향후 양육수당지원, 아이돌보미 제도등과 저출산 대응 등 육아지원정책의 변화방향에 따라 만 0-2세 영아대상 기관 인프라와 질 관리 정책이 중요하게 요구되어진다(최윤경, 민정원, 김기환, 이세원, 2013).

우리나라의 이러한 취원율을 각국의 추세와 비교해 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연령별 유치원/어린이집 취원율

단위: %

국가	한국(2013)	한국(2011)	OECD 평균(2011)	EU21 평균(2011)
3세	83.1	82.0	70.0	77.0
4세	86.5	83.0	86.0	90.0
5세	90.9	86.0	94.0	94.0

자료: OECD(2012), Education at a glance, Table C2.1, p.286, 재구성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취원율은 그동안 항상 낮은 수치를 보여 왔으나 2013년의 통계를 OECD의 평균 등과 비교해 볼 때 이제는 취원율이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으며 오히려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방과후 과정/시간연장 현황

2013년 현재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 운영은 98%를 넘어서고 있으며 방과후 과정 유아의 교육비 지원 비율을 보면 전체 유아의 62%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3-5세 유아교육/보육료는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는 기본교육과정에

만 해당하고 오후 방과후 과정 비용은 별도로 유치원에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시도 교육청에 따라 방과후 과정 운영비, 강사 인건비, 방과후 과정 시설환경개선 등 다양한 명목의 지원이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 방과후 과정 개념이 없고 시간 연장에 대한 일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6〉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비율 및 이용률

단위: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방과후 과정 운영 비율	-	73.3	82.6	90.9	95.5	98.1	97.6	98.1
방과후 과정 이용률	20.8	25.4	28.3	36.1	44.8	52.6	47.4	62.0

방과후 과정 운영비율=(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 수/총 유치원 수)×100

방과후 과정 이용률=(방과후 과정 등록 취원아 수/총 취원아 수)×10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경상남도교육청, 육아정책연구소(2012), 2011-2012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유아교육법 제2조 제6항에 따르면 방과후 과정은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뜻하는 것으로써 누리과정 운영시간인 3-5시간 이후에 이루어지는 활동을 포함하며 유치원에서는 유아교육법 제127조에 의거, 보호자의 요구나 지역 실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게 되어있다.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비율과 방과후 과정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는 일단 하루 운영시간을 12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방과후 활동을 하고 있다. 다만 일반 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제/휴일제를 운영하는 경우와 24시간 보육시설, 시간 연장 보육시설, 휴일 보육시설 등 특수한 형태로 운영되는 특수보육어린이집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전체 어린이집의 23.7%가 시간연장형 보육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아동 수는 전체 시설 이용 아동수의 3.16%인 47,03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4)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은 86.4%에 이르고 있고 그 최대값은 95.7%-56.7%이며 유치원의 경우는 71.1%이고 최대값 132%-69.2%에 이르고 있다.

〈표 7〉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정원충족률

단위: %

			전체	서울	서울 외 도시	군지역
어린이집 (2012.12 기준)	230개 시군구	정원충족률	86.4	91.4	85.8	82.2
		최대값	95.7	95.7	95.3	92.3
		최소값	56.7	86.7	72.0	56.7
		중간값	85.7	91.0	86.0	83.3
		정원충족률	71.1	71.5	71.8	63.9
유치원 (2010.4 기준)	230개 시군구	정원충족률	132.0	80.2	92.8	132.0
		최대값	32.6	56.0	38.9	32.6
		최소값	69.2	72.7	71.7	63.2
		중간값				
		정원충족률				

자료: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의 현황과 지향. 한국4년제 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 제19차 세미나 「유아교사의 전문성과 자격」 자료집, 2014.5.23. p.8

5) 출산율과 가족구조

우리나라는 인구정책에서 90년대 이르러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자 출산장려정책을 쓰게 되었다. 2006년부터 새로마지플랜이 나오고 출산장려와 함께 보육지원이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내년이 되면 이제 10년에 접어들면서 거의 50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쓰게 되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출산율을 보면 2010년 이후 잠깐 증가 한 것 같으나 2014년 1,187명으로 떨어져 OECD평균 1,71명(2012)보다 크게 밀돌고 있어 인구정책의 큰 틀이 잘못되어 있지 않은지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5년마다 진행되는 인구 총 조사(통계청, 2012)에 따르면 2005년에 비해 2010년 전체적인 유아의 수는 17%정도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표 8〉 연도별 출산율 및 출생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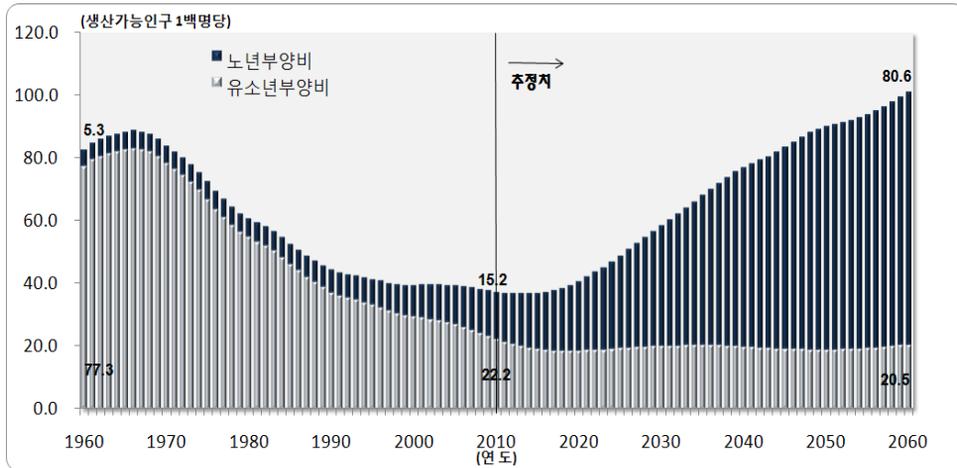
단위: 명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출산율	1.08	1.12	1.25	1.19	1.15	1.23	1.24	1.30	1.19
출생아수	435,031	448,153	493,189	465,892	444,849	470,171	471,265	484,550	436,455

자료: 통계청(2013), 인구동향조사.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부양비 변화를 〈그림 1〉에서 살펴보아도 2010년을 기점으로

추정해 보았을 때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수명이 길어짐으로써 유소년비 부양비를 훨씬 뛰어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림 1〉 인구 구조 변동에 따른 부양비 변화

자료: 보건복지부, 제2차중장기 보육정책 보도자료, 2013

인구변동은 불가역성이 강해서 저출산 단계에 접어들면 좀처럼 이전으로 되돌아가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출산장려정책을 아무리 써도 흐름이 바뀌지는 않는 다는 것이다(중앙일보, 2014.9.23. 사설). 출생아수는 이미 급감하는 추세로 지난해 총 출생아수는 43만 6500명이며 이는 1971년 102만 4000명에 비하면 반 토막이 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녀가 꼭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도 2012년 45.5%로 반 토막이 나 있으며 최근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늘면서 가족=자녀출산이라는 공식도 빠르게 깨지고 있다. 20대의 40%정도가 결혼하면 자녀를 출산이 정상적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2031년에는 연간출생아수가 40만 명 아래로 떨어지고 부부로만 구성된 가구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2.1%를 차지할 전망이다(통계청조사,2013). 장래인구 추계도 유아교육과 보육시장구조의 조정 필요성을 더 부각시키고 있다. 0-4세 인구는 향후 20년간 86% 수준으로 30년 후에는 70%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 추계되고 있다. 영유아수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최근의 동향은 시설의 과잉공급에 따른 재정적 낭비 및 비효율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큰 폭으로 구조 조정이 되

어아 함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류민정, 2013; 윤희숙, 2014). 그러나 한편으로는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기관수가 대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유아교육과 보육기관에 대한 사회·경제적인 수요 잠재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 될 수도 있다.

6) 육아지원 정책의 과정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위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진 주요 육아지원 정책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제1차 육아지원정책 방안

2004년 6월, 대통령 자문 기관인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가 국정 과제 회의에서 '제 1차 육아 지원 정책 방안'을 보고하였다. 이를 통하여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적 접근으로 보편적 육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미래 인적 자원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 전국 보육·교육 실태 조사 실시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추진되는 조사로 정부가 부모, 아동 및 운영자의 입장을 고려한 효율적인 육아지원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처음에는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보육정책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평가로 인해 2011년부터 3년마다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 되었다. 2004년을 시작으로 2009년 전국 규모의 종합적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 가장 최근으로는 2012년에 보건복지부의 전국보육실태조사가 발표되었다.

• 제2차 육아지원정책 방안 보고

2005년 5월,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는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를 근거로 종합적인 육아지원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2차 육아지원 정책방안은 제1차 육아지원 정책방안 보고에 이어 육아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식을 확립하였다.

• 정부의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시안(2006~2010년)(새로마지플랜2010)

'제1차 저 출산 고령사회 기본시안'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저출산 고령사회

에 대한 기본계획이다.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시안'은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아동 수당의 도입을 검토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 아동 대비 30%수준으로 확충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 제1차 중장기 보육 계획(새싹플랜) 발표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은 2006~2010년까지의 육아 정책 5개년 계획이다.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은 '공보육 기반 조성',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다양한 보육 서비스 제공', '아동 중심의 보육환경 조성', '보육 서비스 관리 체계의 강화'를 정책 과제로 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저소득층 영유아를 중심으로 정책을 수행하던 것에서 전체 영유아로 확대하여 모든 영유아들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고의 전환을 이루게 된 것이다. 새싹플랜은 아이사랑플랜(2009-2012)으로 수정·보완되었다.

-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선진화추진계획」 수립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12월 8일 유아교육선진화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유아학비부담경감, 선진유아교육제도구축,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운영 등 5개 정책분야 25개 핵심과제였다. 만 3-4세 유아의 유치원 학비 지원 대상이 중산층을 포괄하는 소득 하위 70% 이하까지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인상하였다.

- 정부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5개년 기본계획'(2011~2015년) 새로마지플랜(2015) 2010년 9월10일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이 기본계획안은 제1차 기본계획(2006~2010년)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보육비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제2차 기본계획은 중산층까지 확대해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둘째 자녀부터는 고교수업료도 지원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유아교육발전5개년 계획(2013-2017)/ 제2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2013-2017)

2013년 2월 교육과학기술부는 아이들이 행복한 유아교육실현이라는 비전으로 의무교육기반조성으로 공정한 출발선보장을 목표로 하여 유아교육기회확대, 유치원운영효율화,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교원의 전문성 및 자긍심 강화 유아교육지원체계강화의 5가지 정책을 제안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12월에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제2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14년 9월에 아이의 행복한 미래를 키우는 아이행복플랜(안)수립계획을 밝혔다. 이는 영유아의 특성에 따른 보육, 보육품질제고, 부모안심보육, 소통하는 보육의 4대 전략추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수준의 종합계획 수립이 교육부의 중앙유아교육심의회/보건복지부의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유아교육5개년계획(2013-2017)’과 ‘보육중장기발전계획(2013-2017)’으로 각각의 기본 계획들이 이원적으로 나오고 있다. 결국 모든 육아와 관련된 정책들이 보육과 유아교육, 사회복지, 인구정책 등 제 각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유사사업의 별도시행 및 재정투자의 중복, 동일 또는 유사정책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각종 유아교육과 보육 통계자료 생성 및 관리 이원화와 상호 활용이 제한되어 통계자료의 수집방식, 기간주체 등이 상이하어 통합된 자료를 얻거나 산출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들이 통합되어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국가의 발전계획수립과 정책을 효율적으로 세워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할 것이다.

Ⅲ. 재정지원의 현상과 과제

유아교육과 보육에 지원되는 재정은 2013년에 약 12조원에 달하며 이는 2006년 2조 4천억 원 수준이었던 것에 비하면 비약적인 확장이며 2012년을 대비해 볼 때 35.5%가 증가하여 매년 국가의 재정지원은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13년도 유아교육 예산 총액은 약 4조원(누리과정 보육아동지원 포함)이며 보육 총 예산은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약 8조 3천억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은설, 최윤경, 조아라, 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목표가 부재한 가운데 재정 지원만 급증하고 정부의 제대로 된 감독과 품질관리 미흡으로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지역·기관유형별 격차가 크며 서비스 질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이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또한 2004-2013년 지난 10년간 평균 49.9%로 고착화 되어 개선되지 않고 있다(윤희숙, 2014; 윤희숙, 김인경, 권형준, 2013; e-나라지표, 2013).

유아교육의 재원조달체계는 국고보조금 체계를 유지하다가 2008년 이후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에 포함되어 지원되고 있다. 보육의 재원조달체계는 국고보조금이 예산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에서 나머지를 충당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3-5세의 경우는 누리과정이 도입됨에 따라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급되고 있다. 2005-2012년까지 8년 동안 유아교육예산은 연평균 24.1%, 보육예산은 24.6%로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보육예산은 유아교육예산의 약 2배에 달하는 규모이며 무상보육확대에 따라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류민정, 2013).

2015년 교육예산은 53조원으로 편성되었다. 이중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규정에 따라 교육교부금은 국세의 20.27%를 강제 배정하도록 되어있어 매년 자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누리과정에는 작년 2조 6000억 원이 들어갔던 것이 앞으로 2017년 5조 원으로 불어나게 되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조선일보, 2014.10.2. 사설)최근 교육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올해 40조 8천680억 원보다 1조 3천 474억 원(3.3%) 감소한 39조 5천206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교육청은 이와 관련, 내년 정부 예산편성에 앞서 누리과정 편성에 따른 재정악화 문제 해결을 위해 국고지원을 해 주거나 내국세 교부율을 5%(20.27%→25.27%) 높여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그동안 교육재정전문가들(김덕화, 2013; 송기창, 2012)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왜냐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세교부금과 내국세 수입액의 20.27%로 확보되는데 이중에서 내국세 교부율을 누리과정등 유보통합의 재정으로 확보할 수 있게 상향조정하자는 주장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히려 교육청 예산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고 있는 형편이다.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현재 만 3-5세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관계없이 월 22만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2014년에는 24만원, 2015년에는 27만원, 2016년에는 30만원으로 상향 책정되어 있다. 이미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은 예산 부족으로 2014년 인상분은 22만원으로 동결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마저도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

교육부가 지난달 18일 발표한 2015년도 예산에는 누리과정 사업 국고지원 예산이 빠져있으며 현재 이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반발, 내년부터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육감들은 “지난 정부에서 누리과정 재정확보 대책도 없이 줄속으로 확대하면서 소요 예산의 대부분을 유·초·중등 교육예산인 교육비 특별회계에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또 201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발행한 뒤 갚지 못한 지방채 규모가 3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0월 7일 국회에서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총 3조 9284억 원 중 어린이집 보육료에 해당하는 2조 1429억 원의 편성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유치원은 교육감 소관이지만 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까지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면 교육재정 악화를 초래한다”며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예산은 국가가 부담하라”고 주장했다. 지자체와 분담하던 누리과정 예산은 내년부터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게 된다(중앙일보, 2014.10.7.). 이는 누리과정을 통한 유보통합과정 단계에서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0-2세에 대한 보육지원 역시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반드시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보육재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 경제적 여건변화나 국가 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업 및 재원이 삭감·폐지 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재원확보가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0-2세 무상보육과 함께 3-5세 누리과정으로 무상교육과 보육이 확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인 학부모의 체감도는 높지 않다. 그 이유는 무상이 되었다고는 하나 부모의 추가 부담 비용이 여전히 높다는 데 있다. 유치원은 1986년 이후부터 유치원비가 자율화 되어있어서 각 기관이 원비를 정하고 있고 교육청에 보고하여 교육감의 승인 절차를 받는다. 어린이집은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보육비를 정할 수 없다. 수업료의 징수를 법률로 통제하며 시도 지사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하는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비등에 대한 책정도 규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 시도 지사가 상한액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지역 간에 격차가 상당히 크다. 이와 같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에 따른 가격 규제 상이함은 부모의 추가부담 비용에 차이가 생기게 되는 원인이 된다.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추가 부담비용이 평균 어린이집은 13.8만원, 유치원은 19.4만원이었다.

다음으로 정부의 지원에 대한 비용의 분담을 분석해 보았을 때에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비용이 부담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 제 26조에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영유아 보육 법제 36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유치원 지원내역은 학비, 인건비, 교육활동, 기관운영 및 교육여건개선지원으로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진다.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유치원 교직원인건비, 방과후 과정 운영지원, 사립유치원운영비 연수경비, 교재교구비 등이며 교육활동지원에는 3세대 하모니, 세대간 지혜나눔, 희망유아교육사, 유치원 교재교구, 방과후 과정반 시설환경개선, 유아교육 협력 네트워크, 공립유치원 통학편의 등의 항목이다.

〈표 9〉 2011-2013 유아교육 예산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교직원운영지원	교육활동지원	유아교육비지원	교육여건개선	총합계	
2011	528,806 (28.7)	343,242 (18.6)	755,746 (41.0)	215,582 (11.7)	1,843,376 (100.0)	
2012	720,090 (23.8)	395,261 (13.1)	1,618,939 (53.6)	287,008 (9.5)	3,021,225 (100.0)	
2013	인적자원운영 611,738 (19.7)	교수·학습 활동 지원 384,715 (11.5)	교육복지지원 1,939,613 (57.8)	학교재정 지원관리 172,833 (5.2)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196,127 (5.8)	3,355,025 (3조3천5백억 원)

주: 2011년 결산, 2012년 예산, 2013년 예산으로 비교함.
 자료: 교육부(2011-2013), 유아교육 예산안 내부자료, 교육부,
 권미경 외(2012), 2012 유아교육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 연구소,
 최은영 외(2013), 2013 유아교육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누리과정이 시행된 2013년부터는 인건비 지원이나 유치원기관운영지원에 해당하는 예산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유아교육비지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립유치원교사에게 지원되는 수당은 담임수당, 처우개선비, 교직수당이 있으며 시도에 따라 차이 나게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총합 46만원내지 51만원이다(김은설 외, 2013).

보육예산은 크게 보육료, 인건비, 시설지원 및 기능보강의 3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어린이집 운영지원(보육돌봄서비스, 대체교사지원 등), 보육료지원, 어린이집기능보강, 보육인프라구축(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모니터링 등), 평가인증, 어린이집지원(교재교구비, 공공형어린이집지원 등), 가정양육수당지원 등 7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보건복지부, 2013). 민간시설의 보육교사의 경우 누리과정 담당교사수당, 영아담당교사의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또는 장기근속자수당 등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나 대체로 유아교사는 42만원, 영아교사는 22만원 가량의 수당을 받는다.

〈표 10〉 보육예산(국고+지방 정부 예산: 2007-2013)

단위: 백만원

정책사업 및 내역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운영지원 인건비	554,824	658,368	753,082	766,876	813,638	867,084	905,047
보육료 지원	1,603,259	2,213,188	2,669,242	3,327,570	3,915,155	4,840,670	5,151,215
어린이집 기능 보강	83,263	65,197	41,978	17,902	25,900	23,734	47,220
인프라 구축 등 기타	15,100	24,615	8,205	7,362	19,335	22,785	36,516
어린이집 평가인증	-	11,987	4,191	3,401	4,975	6,026	6,668
어린이집 지원	-	30,325	32,502	32,473	31,320	127,015	234,979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	-	-	-	16,347	31,022	58,635
양육수당지원 (시설미이용아동)	-	-	68,802	136,764	186,905	213,846	1,778,629
계	2,286,656	2,991,693	3,573,811	4,288,947	5,018,600	6,132,183	8,218,859

주: 국고지원 사업 중앙과 지방정부예산 합계로, 시도 및 시·군·구 특별사업 예산은 제외함.

2009년 기본보조금은 운영비에 포함됨. 시도 미통지역 포함함.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사업안내 및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사업 내부자료.

서문희·이혜민(2013). 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59.

보육예산은 최근 10년간 보육인프라의 확충과 부모대상지원, 기관지원의 확대로 인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이 인건비, 보육료지원, 양육수당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지원 예산증가로 어린이집 인프라나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 비중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양육수당의 경우도 대상이 대부분 영아로써 영아가 86.5%이고 나머지 14.5%정도만이 유아이다. 특히 영아의 경우는 자녀에게 대부분 사용하고 있었으나 유아는 기타 기관이용비율이 높으며 이는 대체

로 고가의 영어학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서문희, 이해민, 2013).

예산의 항목에서 두 기관의 차이를 본다면 어린이집은 '기능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비해서 유치원은 '교육활동 지원'이라는 용어를 씀으로써 유아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국공립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인건비 지급방식도 차이가 있다. 수당 역시 두 기관의 차이가 있었다. 급간식비 지원에서도 차이가 있고 보조인력 인건비에서도 차이가 있었으며 유치원에 지원되는 방과후 과정에 대한 지원은 어린이집의 경우 그 개념이 없다.

무엇보다 어린이집이 원비수납에 있어 비용 상한제로 인해 부모로부터의 추가비용수납이 제한적인 것에 비해 유치원은 비용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구조적인 차이가 있음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김은설 외, 2013).

어린이집 유아의 경우 보육료 상한액, 보육료 지원단가, 표준보육비용 간에 격차가 있다. 예를 들면 보육료 지원단가가 22만원인데 보육료 상한액 24만원 내외, 표준보육비용 28만원선이다. 이는 실제 비용과 지원단가간의 격차로 전액지원의 체감도를 낮춘다. 표준보육비용에 대한 개념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현재 보육료 비용지원단가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이 두 가지 간의 관계정립도 필요하다. 특히 2013년 총 보육·교육비는 4조 9천 5백억원, 국내총생산(GDP)의 0.39%수준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45.1%(약 2조 2천억 원)은 영유아사교육시장에 흘러드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육아정책브리프, 2014.6.23.). 또한 어린이집의 경우 이용시간에 대한 규정이 없이 동일한 지원으로 이루어져 12시간 보육기준이라는 오해도 불러온다. 수요자 맞춤형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으나 정작 이러한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취업모, 전업주부와 같이 부모의 특성별로 그 요구 정도에 따라 차등화 된 지원정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책은 차등 없이 무차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9가지의 조건이 모두 동순위인 1순위로 되어있고 이러한 우선순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고 오히려 취업모 자녀의 장기간 교육/보육을 하는 것에 대한 이익이 없어 꺼리는 경우도 늘고 있다.

우리나라 유아교육재정비율을 OECD와 EU21 평균과 비교해 볼 때에 큰 차이가 없으며 유아 1인당 예산을 비교해 볼 때에도 평균을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 유아교육재정비율

단위: %

지표	한국 (2013)	한국 (2011)	OECD 평균 (2011)	EU21 평균 (2011)
GDP 대비 유아교육 재정 비율	0.7	0.5	0.6	0.6

주: 2012년 4월 기준 GDP는 1,163,532백만달러로 1USD=1,126원(2012.4.1. 기준)으로 환산하였음
 자료: OECD(2013). Education at a glance, Table B4.1, p. 218
 권미경·김문정(2012). 2012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재구성

〈표 12〉 유아 1인당 유아교육·보육 예산

단위: 미국달러

지표	한국 (2013)	한국 (2011)	OECD 평균 (2011)	EU21 평균 (2011)
유아 1인당 유아교육·보육 예산	6,839	6,739	6,726	7,085

주: 1USD=1,063원(2012. 12. 31 기준), 유아 수는 3세 이상 기관 이용아수 기준
 자료: OECD(2013). Education at a glance, Table B1.1a, p. 174 재구성

무엇보다 앞으로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 예산과 재정지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은 계속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막대한 재정투자에도 학부모의 체감수위는 아직도 낮으며 육아부담은 지속되고 있고 교사의 처우도 열악하다는 문제점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비용 책정이나 운영의 효율성 등 민간의 책무성에 대한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것은 정부가 현재와 같이 복잡하고 다원화된 유아교육과 보육의 상이한 재정시스템으로는 사실상 국가의 재정지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안정적 재원 확보와 동시에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유보통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IV. 질적 제고를 위한 현상 및 과제

유보통합을 위한 과제로 최근 부각되고 있는 것은 기관간의 질적인 수준을 높여 그 차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선결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위해서 기관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가 2005년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업컨설팅과 컨설팅 장학 등이 대두되고 있다.

1. 기관평가의 체제

기관평가는 유치원의 경우 2007년에 시범평가가 이루어졌으며 2008년부터 3년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2014년에는 제 3주기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는 이보다 조금 앞선 2006년부터 평가인증이 역시 3년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3차 평가인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어린이집은 2013년부터 평가결과 상세정보가 모두 공개되고 있으며 신규 및 재평가를 포함하여 2013년 기준으로 전체 어린이집의 64.7%가 평가인증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유치원은 이에 반해 아직 평가점수를 모두 공개하지 않으며 다만 우수 사례와 총평 정도를 공개하며 2012년 제2주기 평가가 99.8%참여로 완료되었다. 두 기관 모두 질적 개선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나 그 운영체제나 과정에는 차이가 있다. 유치원은 시도교육청에서 평가를 시행하고 어린이집은 독립된 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호주는 기관평가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1994년부터 기관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ACECQA라는 정부와 연계된 별도의 기관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매우 적절, 적절, 보통, 부적절, 매우 부적절 등의 5단계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호주의 가장 특징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평가와 재정을 완전히 연계하여 시작초기부터 99%가 넘는 참여를 이끌어 내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도 민간단체인 전미 유아교육협회인 NAEYC에서 주관하여 적절, 보통, 부적절의 3단계로 평가하고 있으며 그 지표의 수는 현재 417개 이상이 되고 있다. 3년 주기로 하던 것을 현재는 5년 주기로 바꾸었으며 민간기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재정지원과는 무관하여 참여율은 그리 높지 않다.

우리나라 유치원평가의 경우 교육과정, 교육환경, 건강 및 안전, 운영관리의 4개 영역으로 나누어 전국 공통지표가 있고 시도별 자체지표를 일부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유치원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2014년에 모두 개정되었다. 유치원은 4개 영역, 11개 지표, 30개 요소로 개정되었다. 어린이집은 3가지로 구분되었던 지표를 모두 합하여 공통지표로 통합하고 6개 영역, 50개 지표로 수정하였으며 기본사항 확인 항목은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하는 필수항목 9개와 기본항목 4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 2013년도부터 점수가 완전 공개되는 것에 반해 유치원평가 점수가 공개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질적 개선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다른 문제점으로는 유치원평가나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그 결과가 재정지원과 연결되어있지 않음으로써 질 관리나 책무성에 대한 제고가 어렵다는 점이다. 더구나 제3주기 유치원평가가 끝나는 시점인 2016년에 정보공시를 통해 유치원평가 상위 11%를 공개하겠다고 하여 사립유치원에서는 정부가 당초 비공개, 비서열화를 원칙으로 했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치원평가와 연계하여 수업컨설팅, 장학컨설팅이 유아교육에서 점차 활발해 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육계에서도 보육과정 컨설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2013년도 보육과정 컨설팅 시범 사업 때에는 보육 현장에서 수업장학이라는 개념이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라 참여율이 많이 저조하였고,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전문가 수급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평가인증제는 앞으로 의무 평가제로 전환하고 품질평가에 따라 보육과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 품질평가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보건복지부보도자료, 2014.9.18.). 향후 이러한 수업컨설팅은 이원화되어 실시될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에서는 우선적으로 통합의 과제로 기관간의 질적 수준의 차이를 줄이고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평가의 통합을 제안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평가는 2013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공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3-5세 교육내용으로써 누리과정에 대한 평가이다. 현재 그 질적 수준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기제는 서로 분리되어 있고 부족한 실정이다.

2. 행정 관리 체계

영유아 교육기관의 질을 고양하기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역시 질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효율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는가에 있을 것이다. 어린이집의 관리는 보육담당행정 공무원이며 역할은 주로 지도와 감독에 있는 반면에 유치원의 경우는 장학사 등의 전문직 공무원으로 지도 감독과 함께 장학을 하고 있다. 결국 보육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보육전문가라기 보다는 순환보직으로 담당 업무가 자주 바뀌게 되고 현장에 대한 관리도 보육내용이나 보육의 질에 대한 관리보다는 회계나 보조금 운영 등 행정에만 집중되어있는 문제점이 있다. 유치원의 경우 소수의 장학사가 너무 많은 유치원을 담당하고 있는 점과 독립된 부서가 아니라 초등교육과에 소속되어있어 유아교육전담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무엇보다 인력의 부족은 제대로 된 기관의 질적인 관리와 역할을 제한하고 있다. 유아교육분야 인력은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의 중앙정부 공무원외 전국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근무인력을 들 수 있고 지원인력으로는 유아교육진흥원 근무 인력을 포함한다. 보육분야는 보건복지부 내 중앙 공무원과 시도청 및 시군구청등 지자체 공무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인력으로 구분될 수 있다. 현재 교육부, 교육청 및 진흥원 근무 인력은 442명 정도이며 여기에는 진흥원 전문직 및 교사직 인력이 197명이 포함된다. 보육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은 766명이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인력과 기타 지원기관의 인력을 모두 포함하면 총 1260명이다. 여기에는 영유아플라자나 일부 지자체의 육아지원센터근무 인력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이미화 외, 2013). 결국 유아교육과 보육의 행정인력이 이원화 되어 있어 질적 차이가 있으며 전달 체계가 달라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지원시설로써 유아교육진흥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은 상호개방이 미흡하여 효과적인 활용이 제한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유사한 사업들이 중복 진행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하겠다. 현재도 지역 내 유관 기관들이 부모나 영유아를 대상으로 중복 사업들을 꽤 많이 진행하고 있다. 각 부처 간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기 위하여, 영유아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들의 목적과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행정체계의 일원화가 요구된다.

3. 과도한 조기교육의 현상

유아교육은 유아의 흥미와 발달에 맞추어 놀이와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전인 발달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기교육열풍으로 인해 각종 특별활동이 유치원에서 실시되는 현상, 일찍부터 가정에서 자녀에게 학습을 강요하는 현상 등으로 인해 유아교육의 비정상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가정에서 일찍부터 이루어지는 조기 선행학습이 언제나 문제가 되었지만 이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특별활동의 경우도 과도한 조기교육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유치원의 경우 방과후 과정이 현재 98%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이 방과후 과정이 정말 필요한 수요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인한 현상인지도 사실은 모호한 현실이다. 어린이집의 경우 만2세 미만의 특별활동을 금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고 있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고 준수하지 않아도 벌칙조항도 없으며, 3세 이상의 경우도 특별활동의 개수를 제한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그 형태가 다양하여 현황조차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2013년 어린이집의 특별활동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부모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기 보다는 의무적으로 수강하게 하는 비율도 늘고 있다.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조사에서 원장들도 특별활동 운영시간대가 오후라는 응답이 81%로 나타나 오전에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서문희, 이혜민, 2013).

최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산하 영유아사교육포럼(2013)에서 집중적으로 연구발표된 바에 따르면 취학 전 유아 71%가 교과 사교육 경험이 있고, 유아영어학원 및 놀이학원은 물론 어린이집과 유치원 특별활동과 백화점 문화센터, 학습지 등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교과사교육이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유은혜 의원실이 공동으로 서울·경기 지역의 학부모, 유치원 원장 및 교사, 초등학교 교사 등 8,617명을 대상으로 조기영어교육 인식 및 현황'조사 결과 실시한 결과 만 3세에 영어를 시작한 비율이 10년 전에 비해 11배에 달하는 등, 조기영어교육 현실이 매우 심화되고 있다. 유아교육기관의 72.8%가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자녀의 연령이 고학년일수록 유아기 조기영어교육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낮아지고 있어 조기영어에 대한 기대가 적으며 그 효과에도 크게 의의를 두지 않고 있었다. 또한 영어교육을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많이

선택한 프로그램이 유아교육·보육기관의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특별활동(50.3%)으로 나타나고 있다(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4.10.15.). 하루 4시간 이상 사교육을 받은 아이가 우울증을 보인 사례가 30%를 웃돌았다는 결과(홍현주, 2011)등 여러 차례 연구 결과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듯이, 영유아 시기에 지나친 학습 위주의 조기교육은 건강한 정서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유치원 시기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7년간 유아들을 추적한 종단적 연구에 의하면만 5세 때 과도한 조기교육을 받은 유아들을 각각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이 될 때 국어, 수학점수를 높이지 못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사회성 발달의 현저한 저하를 나타내고 있었다(이은혜, 이기숙, 1994). 유아의 연령이 어릴수록 한글과 종합학습지 중심의 교육을 많이 받고 있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한글이나 종합학습지 이외에 수학, 영어, 피아노, 미술 등의 교육도 많이 받고 있었다. 특기 교육의 학습형태는 전체 적으로 학습지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다음이 학원과 개인지도, 그룹지도로 나타났다(이기숙, 손수연, 2012). 만4-5세 유아기 문해(읽기) 관련 조기사교육을 받은 유아를 초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추적한 연구를 보면, 조기사교육을 받은 아이의 '읽기 이해능력'과 '어휘력'은 받지 않은 아이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즉 읽기, 쓰기 등의 문해교육의 경우 조기 유아 사교육은 초등학교 1학년과 3학년에서 문장 이해력과 독해력, 어휘력에서 그 발달이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이기숙, 김순환, 정종원, 2011; 이기숙, 김순환, 정종원, 김민정, 2013).

한국·일본·중국·대만의 5172명에 달하는 유아들의 하루 일상을 비교해 본 결과, 한국 유아들은 한글과 수학 학습지를 푸는 데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기숙, 손수연, 2012). 다른 3개국의 유아들이 미술·수영·음악 등의 예체능 활동에 많은 시간을 쓰는 것과 대조적이다. 그러나 조기·특기 교육의 필요성 및 시기, 비용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알아본 결과, 시기에 대해서는 73.5%의 부모들이 너무 빠르다고 인식했으며, 88.7%의 부모들은 사교육의 종류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비용에 대해서도 약 90%의 부모들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조기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는 한국의 부모들은 정작 '육아불안'에 시달린다. 2008년 유아를 기르는 한국·일본·중국의 부모 2940명을 조사한 결과 한국 부모가 가장 많은 육아불안을 느끼고 있었다(이기숙, 정미라, 김현정, 2008).

따라서 앞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특별활동 지침이 확실하게 마련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기타 경비 부담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조기특기교육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그 결과를 홍보하여 부모의 불안과 잘못된 사교육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유아교육의 정상화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V. 유아교육 교사에 관한 제반현상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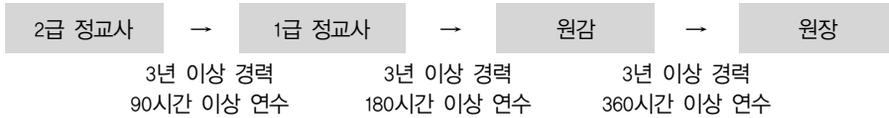
유보통합의 문제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는 교사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유아교육기관의 교사양성이나 그와 관련된 문제를 그동안 학회나 토론회를 통하여 무수히 논의되어오고 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다시 그 내용을 반복하기 보다는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그동안 보육과 교육이냐의 이분법보다는 에듀케어(educare)의 통합적 관점 전환 등으로 인해 이제는 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사에 대해 질적으로 차이를 두기는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유보통합에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과제는 교사 양성 및 자격 제도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있을 것이다(김은설, 신나리, 2006; 정미라, 2013; 최은영, 김정숙, 송신영, 2013).

교육의 질은 결코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사의 처우는 낮아 우수교사 확보가 어려우며 긴 근무시간(보육교사 평일 평균 9시간 28분)의 문제와 유치원의 방학 기간이 짧아지고 있고 교사의 업무는 과중하다. 2013년 들어 누리과정 어린이집 교사 수당은 30만원이고 유치원 교사 수당은 51만원으로 격차가 있다. 2012년 유치원 교원의 경력은 5년 미만이 49.8%(사립유치원 60.8%)로 가장 많다.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의 총 경력은 평균 4년 5개월이며 민간의 경우는 3년 8개월로 나타나고 있다(이미화 외, 2012). 앞으로 우수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현행 2·3·4년제가 혼재되어있는 교사양성체제, 자격부여, 경력관리, 교육훈련·연수, 보수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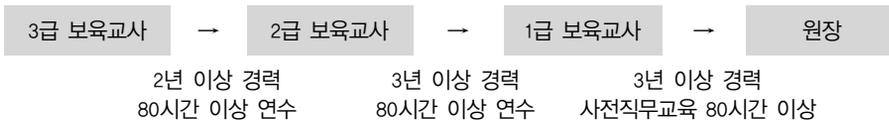
UNESCO 에서도 2011년 국제 표준교육분류(ISCED)를 개정하면서 출생 이후 초등학교 입학까지 단계를 가르치는 교사는 교직을 이수하고 교육부가 인정하는 준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질 것을 권고하고 있다(신은수, 박은혜, 2012). 유치원과 보육교사의 자격에 관한 기준은 법적근거도 다를 뿐 아니라 자격증 교부권자도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이원화 되어있다. 교사라는 자격증의 경우 우리나라 교육제도 안

에서 각급 학교를 통하여 교육부의 권한으로 수여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보육교사(교직원)라는 이름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자격증을 수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모순이 있다.

• 유치원교사의 자격제도는



• 보육교사의 자격제도는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보육경력 뿐 아니라 아동 복지 업무경력을 산정할 수 있고 가정어린이집 원장은 1년 이상의 경력만 있으면 된다.

현재 유치원의 경우 수석교사제와 준교사 자격제도가 있으나 거의 활성화 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반해 어린이집에는 원감제도는 따로 없으며 보육교사 3급은 상당히 보급되어 있는 형편이다.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경로를 살펴보면 전문대학이 45.1%, 보육교사교육원과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등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34.3%에 달하고 있다(이미화 외, 2012).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교사의 학력을 제시하면 <표 13>, <표 14>와 같다.

<표 13> 유치원 교사의 학력

단위: %(명)

구분	고졸	전문대졸		4년제 대졸	대학원졸	계
		2년제	3년제			
전체	-	17.4	36.7	35.5	10.5	100.0(35,774)
국립	-	6.7	-	2.0	73.3	100.0(15)
공립	0.1	8.8	0.9	52.7	37.6	100.0(7,976)
사립	-	19.8	47.0	30.5	2.6	100.0(27,783)

주: 유치원은 수석교사와 일반교사를 합한 수치임.
 자료: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서비스(2013), 2012년 유치원현황.

〈표 14〉 설립유형별 어린이집 교사의 학력

단위: %(명)

구분	고졸	3년제 대학재학	3년제 대졸	4년제 대학재학	4년제 대졸	대학원재학	대학원 졸	계(명)
전체	15.7	3.0	51.6	2.3	23.9	1.3	2.2	100.0 (23,441)
국공립	6.0	2.2	52.8	3.7	28.7	2.7	3.9	100.0 (3,717)
사회복지법인	5.2	3.1	63.5	1.6	24.1	0.7	1.7	100.0 (2,866)
법인·단체	10.0	2.4	55.4	2.3	26.2	1.4	2.3	100.0 (2,289)
민간	20.1	3.1	55.8	2.1	16.8	0.8	1.3	100.0 (7,621)
직장	29.8	4.1	45.1	2.2	17.0	0.6	1.1	100.0 (4,980)
가정	3.0	1.5	28.2	1.7	56.8	3.6	5.2	100.0 (1,968)

자료: 이미화 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 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표 13〉과 〈표 14〉에서 볼 수 있듯이 유치원교사는 4년제 대졸자 이상이 46%에 이르고 있으며 보육교사는 4년제 대졸 이상이 29.7%에 이르고 있다 특히 직장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교사는 고졸이 각각 29.8%와 20.1%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사이에 학력차가 많으며 특히 각 기관속의 근무기관유형에 따라서도 큰 것을 알 수 있다. 학부모 1500명을 조사한 육아정책연구소의 조사결과에서도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이 같아야 한다는 응답이 67.9%로 나타나고 있으며(유희정 외, 2008; 이미화 외, 2013) 2013년의 연구에서는 85.8%가 자격이 동일해야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었다(이미화 외, 2013).

교사양성기관에서 교사자격을 얻기 위해 이수해야하는 교과목과 학점은 유치원 교사의 경우 전공과목 50학점, 교직과목 22학점이다. 전공과목은 기본이수과목이 21학점(7과목)이상이고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교직과목은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교직소양 4학점, 교육실습 4학점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보육교사의 자격은 유치원 교사와 달리 학과를 중심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대학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중에서 17과목(51학점)을 이수하면 된다(영유아교육법 시행규칙 2012.8.17.개정, 2014년 시행). 따라서 보육교사양성 교과목과 유치원교사의 과목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육교사의 경우 교직과목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보육교사가 학과목과 학점을 중심으로 부여되는 개방적인 체제에 대해서 학과중심으로 전문성을

찾아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유보통합에 대비하여 유아교사의 전문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그동안 많은 연구와 발표들이 있어왔다. 특히 유아교육/보육교사의 교사 자격의 통합과 전문성강화가 지속적으로 논의 되었으며 자격취득제도를 동일하게 조정할 것, 자격취득을 위한 기본학력수준을 최소 3년제 이상으로 하며 궁극적으로는 4년제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로 상향 조정하고 학력과 경력에 따른 자격과 역할을 세분화 시킬 것, 보육교사 양성 교육과정에 교직과목과 교양과목을 강화할 것, 영아와 유아교육전담교사를 구분하여 양성할 것 등을 제안해 오고 있다. 이외에도 학력에 따른 교사의 처우 차등화문제, 실습과목의 내실화, 자격관리를 위한 국가자격시험제도 도입, 사이버나 교육원등의 양성과정을 축소하거나 폐지하여 교사 재교육기관으로의 전환 필요성 등이 제안되고 있다(이미화, 임승렬, 조형숙, 유은영, 송신영, 2007; 정미라, 2013; 조부경, 2013). 보육의 아이사랑플랜 평가 결과를 분석해 보았을 때도 가장 성과가 낮았던 부분 역시 보육인력의 전문성과 처우 개선이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정책으로 평가하였다(서문희, 이혜민, 2013).

이와 더불어 교사의 수급정책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왜냐하면 유치원 및 보육교사 공급규모는 수요를 심각하게 상회하고 있어서 교사의 양성 및 자격기준의 조정을 통한 공급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미화, 장명림, 신나리, 김문정, 김현철, 2006). 교사의 문제는 유보통합의 과제에서 가장 문제가 많고 해결해야할 단계가 많은 주제로써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 없다.

Ⅵ.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현상과 과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논의 되는 것은 정보공시제와 재무회계시스템에 대한 것이다. 이는 유보통합의 논의가 활발해 지고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이 만들어지면서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즉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도 제시되고 있다.

1. 정보공시제

정보공시제는 2013년 들어 수요자들에게 모든 정보를 공시하여 학부모들의 알권리 보장과 함께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과 선택권을 확대하기위해 이루어지

고 있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정보공시는 이원화 되어있으며 유치는 '유치원알리미' 어린이집은 '아이사랑 보육포털'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기관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부모가 통합하여 얻기는 힘든 실정이다.

유치의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3744호, 2012.4.20.공포)이 개정되면서 유치원공시정보의 범위, 횟수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담고 있다. 공시정보는 기본현황 등 7개 항목 총 18개 세부항목이며 2012년 9월부터 유치원 정보공시 전용사이트 '유치원알리미'에 공시하기 시작하였다. 공시 시기는 수시공시와 정기적 공시로 나뉘며 정기적 공시는 연1회(15종)-2회(1종)이며 세부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다(최은영 외, 2013).

2013년 8월에는 원비의 표시방법을 개선하고 방과후 과정 특성화 활동, 운영시간, 주당 운영횟수, 프로그램별 단가 등을 공시항목에 세분화하였다. 이는 초기의 정보공시제도에 원비와 특별활동비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개선된 방법을 원비 현황, 회계 결산서 등 정기 공시 항목 2종과 유치원 규칙, 위반내용 및 조치 결과 등 수시 공시 2종을 공시하게 되었다. 특히 방과후 특성화 활동에 대하여 운영 프로그램의 수, 일일 운영시간, 주당 운영횟수, 각 프로그램별 단가, 참여원아수, 원아 1인당 활동비 등으로 공시항목을 세분화 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정보공시제의 활용에 대해 연구해본 결과 정보입력담당자의 경우 공립병설은 90% 이상이 교사가 입력하고 있어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필요한 정보의 과다공시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부모의 경우 80% 가까이 유치원정보공시제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실제 이용률은 50%가 되지 않고 관심이 없는 학부모도 40%가 되는 것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최은영 외, 2013).

어린이집의 정보공시는 2013년 6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근거하여 실시되며 아이사랑보육포털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기본현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집 소개, 어린이집 기본정보, 어린이집 현황, 어린이집 운영현황, 평가인증점수를 공시하고 있고 특별활동 정보를 내용, 횟수, 시간 교사이력, 업체 금액으로 자세히 공시하고 있다(이정욱, 2013).

앞으로 수요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유아교육기관에 대해 알 권리를 준다는 의미

를 부여한다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정보공시 항목을 공통적으로 하여 수요자가 기관 별 비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공시의 내용들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할 것이다.

2. 재무회계의 투명성

정부지원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보편화됨에 따라서 이러한 재정지원에 대한 투명성과 적절성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무상보육이 확대되고 누리과정이 실시된 이후에 여러 가지 재정의 비리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정부의 관리 감독의 허점도 지적되고 있다. 공공형 어린이집의 경우나 평가인증에서 우수한 어린이집으로 평가된 곳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재무회계규칙의 문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각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규정과 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어 복잡한 구조로 되어있다. 국공립유치원은 교육부령으로 「 시도 교육규칙 」 및 「 공립학교 회계규칙 」을 따르고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따르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은 법인이 아님으로 사학법인과 사회복지법에 근거한 재무회계규칙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 보다 더 적합한 재무회계규칙제정이 요구되므로 사립유치원과 민간 어린이집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조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지성애, 2014).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재무회계규칙이 있어 재무회계체계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유치원은 아직 없고 어린이집의 재무회계는 유치원에 맞지 않아 유치원의 입장을 반영한 재무회계규칙의 정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사립유치원이나 민간 어린이집은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상황에 맞는 간소화된 재무회계규칙 제정을 요청하고 있다. 현재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정부의 재무회계규칙제정 시안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 이번 10월 7일에 하려고 했던 공청회조차 무산되고 있는 실정이라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VII. 맺는말

유아교육은 2013년에 들어서면서 그 어느 때 보다도 또 다시 정부와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저 출산, 취약계층지원, 여성의 취업과 양육, 보육에 대한 확대,

이에 따른 정부의 획기적인 재정지원의 문제가 있었다면 이제는 유보 통합에 대한 논의가 주목을 받으며 부각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 2013년 5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출범을 기점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작업을 착수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 유아교육의 방향은 이러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의 관점에 기초를 두고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욕적인 출발과는 달리 아직도 그 방향과 실효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며 실행되고 있는 것이 가시화 되고 있지 않다. 한국 유아교육이 이와 같이 통합에 기저를 두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그 통합의 방향과 그것을 뒷받침 해줄 법적인 근거가 확립되어야 하며 이를 관장할 행정부처가 확실해야 할 것이다. 그간 유보통합의 목적, 목표, 강조점이 사실은 발표 시기와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이루어져 왔다. 유보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향성과 목적정립이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미화, 2014). 그러나 현재까지 나온 계획안은 1단계 즉시 가능한 것 우선추진으로 정보공시, 평가체계, 재무회계규칙 등 품질 개선 기반구축과 조정이며 2단계는 영유아 교육·보육현장의 규제 및 운영환경 등 통합 정비방안을 조정하며 3단계는 마무리 단계로써 교사처우 격차 해소, 관리부처 및 재원의 통합이다. 사실 이러한 3단계로 진행되는 계획은 한국 유아교육의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포괄하고 있으며 이는 선 인프라 구축 후에 제도 및 부처 통합을 하겠다는 순서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즉 관계법들이 뒷받침이 되어야하고 특히 관련부처의 통합 없이 이러한 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 본문에서 살펴본 행정 전달체계, 시설과 이용영유아의 수, 재정지원의 체제와 구조, 누리과정과 보육과정, 교사양성과 자격, 관리·감독체계 등의 현상들은 향후 한국 유아교육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어렵게 하고 있다.

결국 유보통합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에는 모두 이견이 없으며 현 정부 들어 강력한 의지이기도 하다. 시기가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은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으리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그 방향이 부모의 편이나 행·재정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미래의 우리 영유아들의 권익과 행복에 우선 그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09).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2011). 2011년도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14.2.14.). 국무총리 소속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단 14일 공식출범!
- 김덕화(2013). 유아교육과 보육, 일원화 체제에 대한 지방교육 재정적 측면 고찰. 김세연, 김태년 의원주관.
유아교육과 보육, 일원화 체제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자료집.
- 김은설·신나리(2006).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통합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육아정책포럼 창간호.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 김은설·최윤경·조아라(2013). 유치원-어린이집 재정 지원 비교 분석 연구(연구보고 2013-47).
육아정책연구소
- 류민정(2013). 유아교육 및 보육의 제도적 개선방향. 행·재정적 관점에서 본 유아교육 및 보육의 실태와
통합방안 대토론회 자료집, 77-117.
- 보건복지부(2013). 2013년 보육사업안내. 서울: 보건복지부.
- 서문희·이혜민(2013). 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연구보고 2013-28). 육아정책연구소.
- 송기창(2012). 교육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확충 및 분배 방안. 시·도 교육감 협의회·한국교육개발원
주최. 2012 지방교육재정포럼 자료집.
- 신은수·박은혜(2012).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에 의한 유아교육단계의 교원제도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7(3), 265-282.
- 유희정·이미화·장명림·김은설·김은영·송신영(2008). 유치원과 보육시설 일원화체제를 위한 협력과
통합 방안(연구보고 2008-09). 육아정책개발센터.
- 윤희숙(2014). 보육·유아교육 통합 논의의 바람직한 방향. 제 2차 육아선진화 포럼 유보통합 토론회 자료집,
34-36.
- 윤희숙·김인경·권형준(2013). 보육·유아교육 지원에 관한 9가지 사실과 그 정책적 함의KDI FOCUS.
- 이기숙·김순환·정종원(2011). 만 5세 유아의 읽기능력, 어휘력과 개인·환경 변인이 초등학교 1학년
읽기이해능력과 어휘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 32(6), 123-139.
- 이기숙·김순환·정종원·김민정(2013). 만 5세 유아의 읽기능력, 어휘력과 개인·환경 변인이 초등학교
3학년 읽기이해능력과 어휘력. 한국유아교육학회, 33(4), 363-384.
- 이기숙·손수연(2012). 한국·중국·일본·대만 유아의 일상생활 비교. 유아교육연구. 32(2), 49-72.
- 이기숙·정미라·김현정(2008). 한국, 일본, 중국 부모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비교연구. 유아교육연구, 28(3),
151-172.
- 이미화(2014). 2014년 제 2차 육아선진화포럼: 유보통합 토론회. 육아정책연구소
- 이미화·서문희·이정원·이정림·도남희·권미경·양미선·손창균·김경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 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이미화·임승렬·조형숙·유은영·송신영(2007). 육아지원인력 양성 교육과정 모형개발연구(연구보고
2007-05). 육아정책개발센터.

- 이미화 · 장명림 · 문무경 · 서문희 · 김은영 · 김은설 · 최윤경 · 유해미 · 최은영 · 양미선 · 이혜민 · 나지혜(2013).
한국형 유아교육 · 보육 발전 로드맵 연구(연구보고 2013-17). 육아정책연구소.
- 이미화 · 장명림 · 신나리 · 김문정 · 김현철(2006). 육아지원인력의 수급전망과 전문성 제고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이은혜 · 이기숙(1994).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서울: 창지사.
- 이정옥(2013). 유보통합에 따른 새로운 도전과 과제. 유보통합 추진과 창의적 융합인재 교육의 방향과 과제.
한국유아교육학회.
- 장명림(2013). 유보통합모형 탐색과 통합 추진 현황. 유보통합 추진과 창의적 융합인재 교육의 방향과 과제.
한국유아교육학회
- 정미라(2013). 유보통합과 유아교사의 전문성. 유보통합 추진과 창의적 융합인재 교육의 방향과 과제.
한국유아교육학회.
- 조부경(2013). 유아교육, 보육 통합을 위한 교원 정책 방안. 한국유아교육학회 2013년 정기 총회 및 정기
학술대회 자료집, 미래지향적인 유아교육정책의 방향. 35-59.
- 지성애(2014). 유보통합에 대한 토론. 2014년 제 2차 육아선진화 포럼(세미나자료 2014-08).
- 최윤경 · 민정원 · 김기환 · 이세원(2013). 미래 육아지원정책 수요 전망 연구(연구보고 2013-16).
육아정책연구소.
- 최은영 · 김정숙 · 송신영(2013). 2013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연구보고 2013-29). 육아정책연구소.
- 홍현주(2011). 영유아에서 지나친 인지학습의 정신의학적 영향.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사교육포럼 9차
토론회 발제자료.

주제강연 I

유아교육 정책 현황과 과제

장석환(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서기관)

유아교육 정책 현황과 과제

장석환(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서기관)

I. 서론

최근 우리나라 유아교육 환경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불과 3년 전인 2011년만 하더라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만 3~5세 유아가 선택해서 다닐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 외에는 공통적인 요소를 찾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정부가 2012년 3월에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2013년 3월에는 만 3~4세까지 누리과정을 확대함에 따라 지금은 누구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만 3~5세 유아들에게 같은 교육과정을 적용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유아를 유치원에 보내든, 어린이집에 보내든 균등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에서 2013년 2월 25일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요한 정책적 변화가 생겼다.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유아교육·보육 체제를 통합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유보 통합을 위해 2013년 5월, 국무조정실에 '유보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같은 해 12월에는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2014년 2월에는 국무조정실에 '영유아 교육·보육통합 추진단'을 발족하여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교육부는 유아교육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한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2013년 2월 22일에 수립하였다. 5대 영역 25개 핵심과제로 구성된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은 2013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2014년 11월 현재 우리나라 유아교육 정책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겠다. 도입된 지 1년 8개월이 지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과 유아교육발전 5개

년 계획, 그리고 통합 방안이 발표된 지 10개월이 지난 유보통합 추진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 정책이 추진되어 온 경과와 추진 현황, 그리고 향후 과제를 검토해 보는 것은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누리과정은 최근 소요재원 문제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에 논란이 있어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Ⅱ. 누리과정 도입 및 확대

1. 누리과정 도입 경과

5세 누리과정은 2012년 3월에 도입되었지만 그 발단은 2009년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이하 '미래위')는 2009년 11월 25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차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미래위는 저출산 현상은 다양한 사회·경제·문화적 요인들이 상호 작용한 결과로, 장기적·종합적 접근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 중 하나가 '초등학교 입학연령 1년 인하 방안'이다. 미래위는 "최근 아이들의 발달 상황을 고려할 때, 학교 입학연령을 1세 낮추어 조기에 사회에 진출하도록 하고, 절감 재원을 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에 집중시키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관점에서 이를 적극 제시하였다"고 했다.

미래위의 이런 제안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2010년 2월부터 6월까지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및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했다. 치열한 논의와 연구를 거친 결과, 초등학교 취학 연령의 하향 조정보다 만 5세 유아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교육·보육의 질적 향상이 더 효율적이고 시급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러한 교과부의 대안 제시가 받아들여져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가 가동되었다.

수 개월간 관계부처와의 협의, 국무총리 주재 교육개혁협의회 보고 등을 거쳐 2011년 5월 2일 이명박 대통령은 정례 라디오 연설에서 취학 전 유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사실상 의무교육 기간을 9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같은 날 김황식 국무총리는 2012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모든 어린이들이 새로운 공통과정을 배울 수 있게 하고, 국가의 지원

도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만 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계획’을 정부 합동으로 발표했다. 학부모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게 하면서 자녀가 어디를 가든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만 5세 공통과정’이라는 명칭은 제도 도입 초기에 불렸으나, 제도 도입 취지를 잘 나타내면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보다 친근하고 밝은 명칭을 공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명칭공모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5세 누리과정’을 선정했다. ‘5세 누리과정’의 ‘누리’는 ‘세상’을 뜻하는 순 우리말로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보육을 통해 만 5세 어린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고,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꿈과 희망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5세 누리과정은 만 5세 유아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디를 가든 동일한 교육과정을 배우고, 보호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전 계층에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1년에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매월 17만 7,000원을 지원하던 유아학비와 보육료는 2012년에 매월 20만원을 지원하고, 2016년에는 매월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하였다. 그에 소요되는 재원은 교과부에서 관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교과부와 복지부는 협업을 통해 2011년 8월 12일, 5세 누리과정 제정 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후 9월 5일에는 5세 누리과정을 반영한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개정·고시했다. 그리고 9월 30일에는 「유아교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했다.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후 2012년 1~2월에는 5세 누리과정을 담당할 교사 연수를 실시하였고, 2월말까지는 누리과정 해설서·지침서 및 교사용 지도서 등을 개발·보급하였다.

정부는 2011년에 5세 누리과정 도입 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2012년 1월 18일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3~4세 누리과정 도입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3~4세 누리과정 도입계획을 발표하기에 앞서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유아교육과 보육 투자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2011년 9월 8일 ‘추석맞이 대통령과의 대화’에서는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은 국가 장래를 위해 복지 차원과 다른 투자 개념으로 봐야 하며,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고, 2011년 12월 9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유치원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5세 이하 아이들 모두를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하도록 하

겠다”고 말한 바 있다. 2011년 12월 14일 교과부의 2012년도 업무보고에서는 “5세 누리 과정에 이어 만 4세, 만 3세까지 적용하는 공통과정을 마련하고,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라”고 교과부장관에게 지시하였다. 그리고 2012년 1월 2일 신년국정연설에서는 “올해는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해서 만 다섯 살 어린이를 둔 모든 가정에 보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네 살, 세 살 어린이도 내년부터 지원하겠습니다”라고 발표하였다.

유아교육 투자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고, 누리과정의 확대를 여러 차례 언급하였으므로 교과부는 2011년 하반기부터 ‘3~4세 누리과정 도입 방안’ 마련을 준비해 왔으며, 2012년에 들어와서는 본격적으로 관계부처 협의에 착수하였다. 교과부가 마련한 기본계획을 토대로 2012년 1월 5일에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였고, 1월 16일에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1월 17일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거쳐 1월 18일에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3~4세 누리과정 도입계획(안)’을 정부 정책으로 확정·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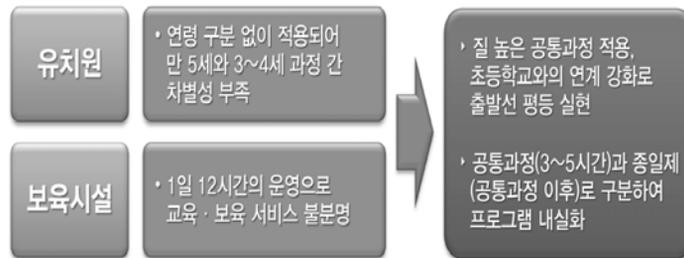
만 5세 유아는 1997년부터 무상교육·보육 원칙을 「초·중등교육법」 등에 명시하고 있어 시행령 개정만으로 제도 도입이 가능하였으나, 만 3~4세 유아는 법률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일정소득 이하 자녀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고 있었으므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3~4세 모든 유아에게 교육·보육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법」 등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었다. 교과부는 제18대 국회의 임기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으나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였으며, 그 결과 2012년 2월 27일에 유아 무상교육을 초등학교 취학 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3월 21일에는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개정 법률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3~4세 누리과정 도입계획 발표 후 교과부는 2012년 3월 초부터 ‘3~4세 누리과정 제정 TF’를 구성하고, 공통과정 마련을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 5세 누리과정 도입에 서와 같이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TF를 13차례 운영하였고, 공청회와 교육과정심의회를 거쳐 7월 초에는 양 부처가 각각 3세, 4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고시하였다.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도 각각 개정하였고, 2013년 2월까지 교사 연수와 교재개발·보급도 이루어졌다.

2. 누리과정의 주요 내용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만 3~5세 유아들은 유치원에서는 유치원 교육과정을 배우고, 어린이집에서는 표준보육과정을 배워 왔다. 그러나 2011년 9월 5일, 교과부와 복지부가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한 ‘5세 누리과정’을 고시하고, 2012년 3월부터 이를 적용함에 따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 5세 아이들은 같은 내용을 배우게 되었다.

‘5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라 만 5세 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육은 한층 내실화되었다. 그동안 유치원 교육과정은 연령 구분 없이 적용되어 연령간의 차별성이 부족했고,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은 1일 12시간 운영으로 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았다.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됨에 따라 <그림 1>과 같이 만 5세 유아는 공통과정 적용과 초등학교와의 연계 강화, 3~5시간의 공통과정과 구분되는 방과 후 과정 운영을 통해 한층 내실화된 프로그램을 적용받게 되었다.



< 그림 1 > 만 5세 유아 교육·보육 내실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세 누리과정’은 그 동안 수준별로 구성되어 있던 만 3~5세 교육·보육과정 중 만 5세 유아에게 필요한 기본 능력을 선별하고, 수정·보완하여 마련하였다. 그리고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기본 생활습관 및 질서, 배려, 협력 등 바른 인성을 기르기 위한 창의·인성 교육을 강조하고,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유아 주도적인 경험과 놀이중심의 통합과정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공통과정 제정과는 별도로 만 5세 무상교육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2011년 9월 30일에 「유아교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각각 공포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

로서 유치원, 어린이집,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에서 교과부장관과 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유아를 무상교육의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만 5세아 비용 지원에 관한 업무를 교육감이 시·도지사에게 위탁하도록 하였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는 무상보육의 대상을 매년 1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로 하였고, 무상보육 실시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하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는 유아교육비 외에 보육료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는 만 5세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내용이 크게 달라졌다. 우선 유아학비·보육료 지원대상은 2011년에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였으나 2012년에는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였다. 지원단가 또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2011년에 월 17만 7천원을 지원하던 유아학비와 보육료는 2012년에는 월 2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6에는 월 3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하였다.

5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유아학비·보육료는 교과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기로 하였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 등 관리 체계는 현재와 같이 교과부와 복지부가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표 1>은 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달라지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달라지는 내용

구 분	2011년도	2012년도
지원 대상	소득하위 70%	전 계층으로 확대 (100%)
교육·보육과정	유치원 교육과정, 어린이집 보육과정으로 이원화	'5세 누리과정'으로 일원화
지원 단가	공립유치원(월 5.9만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11년 월 17.7만원)	⇒ 공립유치원(월3만원, 입학금·수업료 면제),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12년 월 20만원)
재원 부담	유아학비(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육료(국고, 지방비)	유아학비, 보육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리 체계	유치원(교과부), 어린이집(복지부)	현행 유지

2012년 1월 18일에 발표한 '3~4세 누리과정 도입계획'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우선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한 ‘3세 누리과정’과 ‘4세 누리과정’을 각각 마련하여 2013년 3월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3~4세 누리과정의 구성 방향은 유아기부터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공감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만 3~4세 유아의 연령에 적합한 기본 능력을 선별하여 수정·보완하고,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영역 등 5개 영역을 중심으로 유아 주도적인 경험과 놀이 중심의 통합과정으로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5세 누리과정과 만 2세 이하 표준보육과정과의 연계성도 고려하고, 특히 3세 누리과정의 경우는 표준보육과정과의 연계성을 더욱 고려하기로 하였다. 연령별 누리과정 일원화 안은 <표 2>와 같다.

<표 2> 연령별 누리과정 일원화안

구분	2012년	2013년			
기관	교육·보육과정	만 5세	만 4세	만 3세	만 0~2세
유치원 (교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교육과정 (5세 누리과정/만 3~4세 교육과정) 	5세 누리과정	4세 누리과정	3세 누리과정	-
어린이집 (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보육과정 (5세 누리과정/만 3~4세/ 2세/ 2세미만) 	(교과부·복지부 공동)			표준보육과정 (복지부)

그리고 2012년에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에 대하여만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만 5세 유아와 같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 대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지원단가도 2012년에는 만 3세는 월 19.7만원, 만 4세는 월 17.7만원이었으나 2013년에는 만 5세 유아와 같이 월 22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3~4세 누리과정 도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만 3~5세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대상 및 지원단가 인상계획을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표 3> 유치원비·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만 5세	소득하위 70%, 월 17.7만원	전 계층, 월 20만원 (5세 누리과정)	전 계층, 월 22만원 (5세 누리과정)
만 4세	소득하위 70%, 월 17.7만원	소득하위 70%, 월 17.7만원	전 계층, 월 22만원 (4세 누리과정)
만 3세	소득하위 70%, 월 19.7만원	소득하위 70%, 월 19.7만원	전 계층, 월 22만원 (3세 누리과정)

그리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가 전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국고·지방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함께 활용하고,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원을 일원화하기로 하였다.

Ⅲ.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

1. 5개년 계획 수립의 배경 및 경과

교육부가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 추세에 부합하는 유아교육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미 2006년에 만 3~5세 유아를 위한 무상 공교육 체제를 구축하였고, UNESCO는 2011년에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를 개정하여 영유아 교육의 범위와 경계를 확장하였다.

둘째,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 및 발전을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2013년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 3~5세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누리과정)과 학비 지원 재원은 통합되었으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제가 이원화되어 있어 같은 연령의 아이들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는 체제는 여전히 미흡하다.

셋째, 2009년 12월에 수립된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의 세부 과제가 법제화되어 2013년부터는 세부계획 수립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 선진화 계획을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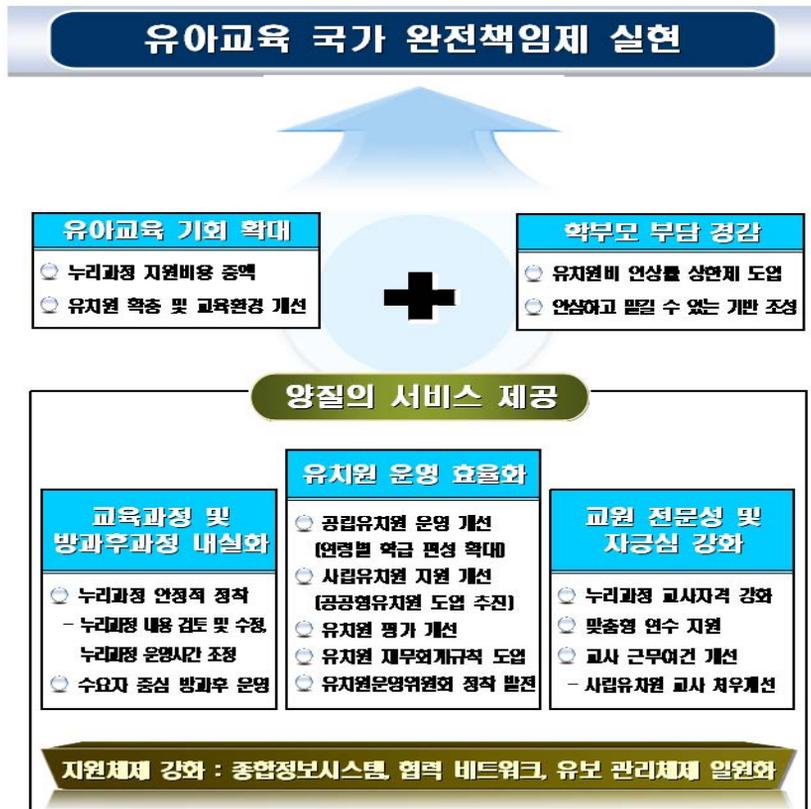
넷째, 「유아교육법」이 개정(2012.1.26. 공포, 2012.4.27. 시행)되어 교육부장관이 매 5년마다 유아교육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였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 2012년 6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유아교육 5개년 계획수립 TF’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관련 정책연구를 추진하였다. 유아교육학계, 공·사립유치원 대표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등 34명으로 구성된 TF에는 총괄 TF와 3개 분과를 두어 각 분과별 팀원과 정책연구진, 담당 공무원 협의체 형식으로 진행하였

다. 작성된 초안에 대하여 과제 발굴을 위한 교육청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연구진의 초안에 대한 현장 세미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하였다.

2.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비전과 목표는 <그림 2>와 같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유아교육 지원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유아의 교육받을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 그림 2 >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비전 및 목표

그리고 주요 정책분야와 핵심과제는 <표 4>와 같다. 각 영역별로 세부과제를 선정 한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4>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주요 정책분야 및 핵심과제

영역	핵심과제 내용
유아교육 기회 확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유아 무상교육 지속 확대 ② 유치원 신증설의 적정화 ③ 유치원 시설·설비의 적정 기준 마련 ④ 내실 있는 유치원 정보제공을 위한 제도 정착 ⑤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유치원 운영 효율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립유치원 운영 개선 ② 사립유치원 지원 및 운영체제 개선 ③ 유치원 평가제도 개선 ④ 유치원 재무·회계규칙 도입 ⑤ 유치원운영위원회 정착 및 발전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내실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누리과정 정체성 명확화 및 질적 발전 ②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현장 지원체제 강화 ③ 유아교육 교재교구 인증제 도입 및 우수 프로그램 활용 ④ 방과후과정 운영 내실화 ⑤ 방과후과정 전담인력 배치
교원의 전문성 및 자긍심 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누리과정 담당교사 자격기준 강화 ②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연수 지원 ③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착 ④ 유치원 교원임용 및 인사방식 개선 ⑤ 유치원 교사 근무여건 개선
유아교육 지원체제 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유아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② 유아교육진흥원 및 체험교육원 운영 활성화 ③ 유아교육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 전개 ④ 유아교육 대내외 협력 네트워크 강화 ⑤ 유아교육 지원기능 강화

(1) 유아교육 기회 확대

2012년 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만 5세 아의 교육기회가 확대되었으나, 약 4만 6천여 명(9.8%)은 5세 누리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세 누리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유아는 예·체능학원(27.0%), 영어학원(19.0%), 보습학원(18.7%) 등에 다니고 있으며, 전혀 다니지 않는 경우(4.6%)도 있었다. 5세 누리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 보내기 위해'(14.9%)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어느 기관에도 자녀를 보내지 않는 경우 가장 큰 이유는 '정부 지원비 외 추가비용 부담'(19.5%)이었다.

한편, 2012년 4월에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학부모는 비용이 저렴한 국·공립 시설을 선호하나, 시설 부족으로 집에서 가까운 시설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5개년 계획에서는 누리과정 지원비용 증액,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유치원 확충 및 교육환경 개선, 올바른 정보 제공 등을 위해 5가지 세부과제를 정하였다.

여기서 소개하고 싶은 과제는 세 가지이다. 첫째, 유아 무상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누리과정 도입 확대에 따른 유아학비 지원 단가를 2013년 월 22만원에서 2016년 월 30만원까지 인상하고, 일정 시기에는 무상교육비 지원을 표준유아교육비에 따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둘째, 유치원 신·증설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유아수용계획의 세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취학권역별로 3개 학년도 이상의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한다. 교육감이 유아 수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였다. 셋째, 내실 있는 유치원 정보 제공을 위해 정보공시제도를 정착시킨다. 유치원 정보공시제는 초기 시행 단계로 지금까지는 전국 모든 유치원의 정보공시 참여를 독려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나, 공시 자료의 신뢰도에 대한 요구가 점점증하고 있다. 따라서 공시오류 신고센터 설치, 오류정보 검증 프로그램 제공, 유치원 공시자료 입력실태 현장 점검 및 시·도별 모니터링단 구성 등 자체 검증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2) 유치원 운영 효율화

2012년 4월 기준으로 전국 공립유치원 4,522개원 중 병설유치원은 4,355개원(96.3%)이며, 유치원당 평균 학급 수는 단설유치원이 6.2학급, 병설유치원은 1.5학급이었다. 또한 공립 병설유치원에는 혼합반 비율이 높아(46.2%) 연령별 누리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한편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유치원비가 자율화 되어 있어 지역별·유치원별 원비 차이가 심화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전국 유치원비 평균은 월 325천원이나, 원비를 가장 많이 받는 유치

원은 서울지역 월 807천원, 가장 적게 받는 유치원은 전남지역 월 141천원이었다. 이와 더불어 사립유치원은 대부분 개인(88.3%)이 운영하고 있으나, 회계 운영에 있어 투명성·책무성 확보 장치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유치원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개선과제로 공립유치원 혼합반 문제, 사립유치원비 안정화, 유치원 평가, 사립유치원 투명성·책무성 강화 등을 정하였다. 연령별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을 위해 유치원 학급의 신·증설을 확대하고, 정부 재정지원 확대에 상응하는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책무성 확보가 관건이다.

이 영역에서는 세 가지 과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공립유치원을 지역별 수요와 서비스 만족도 등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개선한다. 장기적으로 초등학교 병설 중심의 체제에서 수요자 만족도가 높고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한 단설유치원 체제로 전환 유도한다. 또한, 3~5세 연령별 교수·학습이 가능하도록 병설유치원을 최소 3학급 체제로 전환하고, 통학지원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둘째,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방식을 개선하고, 사립유치원 원비 인상을 상한제를 도입한다. 표준유아교육비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을 공공형으로 지정하고, 표준유아교육비에 맞추어 운영비 등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셋째,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도입이다. 차입금과 적립금 제도 도입 및 제한적 허용 근거를 마련하고, 예·결산 기준을 명시하며 장부와 서식을 간소화하고자 한다.

(3)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내실화

2013년 3월부터 시행되는 ‘3~5세 누리과정’의 안착을 위해서는 내실 있는 연령별 교육과정 운영, 다양한 복식학급 운영 모형 발굴·적용, 교원 및 학부모 대상의 누리과정 이해와 연령별 연계교육 방법에 대한 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1일 3~5시간의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 시간은 방과후과정 운영 시간과 맞물려 있어 교육과정 정상화와 관리감독 문제, 학부모 방과후과정 비용 부담 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아울러 유치원 방과후과정을 기본과정의 심화나 편안한 돌봄보다는 초등학교의 방과후 특별활동과 동일한 개념으로 받아들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유아에게 적절하지 않은 과도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실시할 우려가 있고, 연중무휴 운영과 방과후과정의 원아가 늘어남으로 인해 추가 지원 업무에 따른 교원의 업무 과중 및 운영에 필요

한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누리과정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유아들이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돌봄기능을 강화하여 학부모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세부과제를 정하였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과제는 두 가지이다. 첫째, 누리과정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질적 발전을 가져와야 한다. 누리과정의 성격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통 교육과정으로서 '국가 수준의 보편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아울러 누리과정의 운영시간을 현행 3~5시간에서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5시간으로 조정함으로써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다만, 이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누리과정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방과후과정 운영으로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인다. 누리과정(5시간)을 중심으로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아침돌봄, 방과후 과정, 저녁돌봄을 연계한 돌봄 기능을 강화한다. 방과후과정은 돌봄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고, 유아 발달에 적합한 운영 형태와 방법 등 방과후과정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기로 하였다.

(4) 교원의 전문성 및 자긍심 강화

누리과정 전면 시행에 따라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교사의 상이한 자격기준을 정비하고, 자격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유치원 교사는 초·중등학교 교사와 달리 전문학사·학사자격 소지자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원의 연수는 개인에 따라 편차가 매우 커서 교원의 직무 역할 및 경력을 고려한 연수 프로그램이 미흡한 실정이다. 연수 기관별로 연수 내용의 중복 및 특정 영역에 치중된 경향을 보이므로, 특화 영역 설정 및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은 유치원별로 교원 임용방식이 다르고 체계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할 수 있도록 임용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원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교사 자격기준 정비, 교원 맞춤형 연수 지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착,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을 제도개선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 영역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과제는 세 가지이다. 첫째, 누리과정 담당교사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누리과정은 교직 이수자 및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제한하고, 중·장기적으로 학사학위 취득자로 한정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그리고

유치원 교사 양성과정의 기본 이수과목을 기본지식과 교과지식으로 구분하여 최소 이수단위를 제시하기로 하였다. 둘째,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연수를 지원한다. 교원 생애주기별 핵심역량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교원의 생애주기별 핵심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수기관별로 특화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기로 하였다. 셋째, 유치원 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대체교사 확대를 위한 인력 확보와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립유치원 교사의 사기 양양을 위해 처우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다만, 이 과제는 유치원비 안정화와 사립유치원 지원체제 개선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

(5) 유아교육 지원체제 강화

각종 유아교육 사업별로 임의로 개발·운영 중인 정보화 시스템을 포털 사이트로 연결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2013년 11월 기준으로 전국 15개 지역에 운영 중인 유아교육진흥원은 현재의 조직과 인력 규모로는 지역 안에 있는 유아들의 체험활동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한 실정이다. 유아교육은 ‘교육적 기능’ 외에 ‘사회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사회의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협력주체별·지역별 네트워크 활성화로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역량을 결집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일부지역의 학부모는 5세 누리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누리과정을 몰라서’라고 응답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한편, 누리과정의 도입으로 교육과정 및 학비지원 재원은 통합되었으나, 동일한 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유아교육·보육간 ‘정책 칸막이’로 인한 유치원과 어린이집간 교육여건 차이가 지속되어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국민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2013년 2월 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교육과학분과 토론회와 2월 18일 국정기획조정분과 토론회에서 박근혜 당선인은 유아교육·보육 관리체제 일원화는 꼭 가야 될 방향이며, 통합에 따른 국민의 혼란 최소화 및 통합성과 극대화를 위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새 정부 초기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파급효과가 크고 하기 어려운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유보통합을 거론하였다. 따라서 이 영역에서는 유치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유아 체험교육 및 유치원간 협력 강화, 유·보 관리체제 일원화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과제를 정하였다.

이 영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세부과제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유아교육·보육의 관리체제 일원화를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IV. 유아교육·보육 통합 추진

1. 유보통합 추진방안 논의 과정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13년 2월, 대통령 당선인이 주재하는 각 분과별 국정과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월 14일에 열린 교육과학분과 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관리체제를 일원화하는 것은 꼭 가야될 방향이며, 통합에 따른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2월 18일에 열린 국정기획조정분과 토론회에서는 정권 초기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파급효과가 크고, 하기 어려운 것을 해야 한다며 유보 통합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이로써 유보 통합은 새 정부에서 추진할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2013년 2월 25일 새 정부가 출범한 후에는 유보 통합이 부처간 협업과제로 선정되었고, 대통령은 유보 통합에 대한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였다. 3월 28일 교육부의 2013년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0~5세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완전책임제 실현'을 부처 협업과제 중 하나로 보고하였고, 대통령은 4월 15일 수석비서관 회의와 4월 23일 국무회의, 그리고 4월 30일 국무조정실 업무보고 자리에서 학부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처가 힘을 합쳐 유보 통합을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유보 통합을 위한 준비가 본격화되었다.

5월 10일,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가정책조정회의 안건으로 '유보통합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이 보고되었고, 회의에서의 결정에 따라 5월 22일에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과 관련단체·언론·학계·학부모 등 다양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유보통합 추진체계와 향후 유보통합 추진 일정 등이 보고 및 논의되었다. 유보통합 논의 기구는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실무 조정을 담당하는 실무조정위원회, 그리고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모델개발팀으로 구성되었다. 유

보 통합의 추진 일정은 5~6월중에 수요자인 학부모 등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8월말 까지 통합모델개발팀을 중심으로 2~3개의 통합모델안을 개발하여 시범사업 대상 및 지역 등을 결정한 후 2014년 3월 새 학기 시작에 맞추어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정해졌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유보통합에 있어 관계부처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를 협업의 선도과제로 선정하여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2013년 7월 31일 국무조정실은 유보 통합과 관련한 수요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날 간담회는 유아교육·보육 발전을 위한 ‘학부모 의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보 통합의 정책 수요자인 학부모들의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지는 형식으로 공개 진행되었다. 간담회에서 발표된 ‘학부모 의견조사’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교육부·보건복지부와 유아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6월 17일부터 7월 12일까지 4주간 실시하고 이를 잠정 분석한 것으로 기관 선택 이유와 불편사항, 유치원·어린이집 이용시간 및 비용 부담, 교사 및 프로그램의 질, 현재처럼 유치원·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유용한 점과 불편한 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부모 의견조사 결과는 통합모델개발팀에서 통합모델을 설정하고, 향후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었다.

2013년 12월 3일 정부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그동안 통합모델개발팀의 통합모델안 연구 결과와 학부모 의견조사 및 간담회, 그리고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실무조정위원회에서 7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안)’을 논의하고, 추진 상황을 대외에 발표하였다. 그리고 2014년 1월 14일에는 유보통합에 관한 전략 수립 및 통합 추진 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관보에 고시하였다. 또한 2014년 2월 14일에는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유·보 서비스 체계 개선 설명자료 등을 배포하였다.

2. 유보통합 추진 방안의 주요 내용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는 2013년 12월에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유보 통합 추진방안의 대체적인 방향과 내용을 밝혔고, 2014년 2월 추진단 발족에

〈표 5〉 영유아 교육·보육 현황

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근거 법률 및 성격	유아교육법 (교육기관)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기관)
관리부처	교육부 - 시도 교육청	복지부 - 자치단체
이용대상 및 현황 (12년 기준)	3~5세, 8천5백개, 60만명	0~5세, 4만2천개, 150만명
운영시간	3~5시간+방과후과정(선택)	12시간(7:30~19:30)+시간연장(선택)
정부지원 총액 (13년 기준)	총 4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 8.3조원 (국비 4.1조원, 지방비 4.2조원)
정부지원 교육비·보육료 (학부모/기관)	0세 75만원, 1세 52만원, 2세 40만원, 3~5세 22만원 (39/36) (35/17)	(29/11) (22/0)
교육·보육 내용	공동 누리과정 (3~5세)	표준보육과정 (3~5세)
		* 공동 누리과정 포함 표준보육과정 (0~2세)
교사자격·양성	유치원교사 1·2급 및 준교사 (전문대졸 이상, 학과제)	보육교사 1·2·3급 (고졸이상, 학점제)
정보공시	'12.9월~, 유치원 알리미	'13.12월~, 아이사랑보육포털
	* 어린이집-유치원 간 공시항목·주기 등 세부사항 상이	
평가체계	의무적 평가	자율적 평가인증제
	* 평가항목은 유사하나 평가주체, 평가절차 등 상이	
재무회계 규칙	어린이집, 유치원, 기관별 설립주체 등에 따라 운영 상이	
가격규제	원장 자율	시도별 상한액
시설기준	1, 2층, 놀이터 160m(40명 이하) 등	1층 원칙, 놀이터 3.5m/명 등

즈음해서는 지난해 12월에 논의된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기정사실화했다.

먼저 유보통합의 필요성에 대하여 정부는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는 영유아(0~5세)를 교육하고 돌보는 기관이 설립 목적과 취지에 따라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과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으로 나누어져 있어 〈표 5〉와 같이 근거 법령, 교사의 자격, 설치 기준, 담당부처, 민원관리 부서 등이 다르고, 보육이나 교육의 내용, 학부모 부담 수준, 이용일수나 시간 등이 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다. 따라서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체계를 개선한다는 것은 유치원·어린이집 어느 기관을 가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학부모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과정이며, 학부모의 선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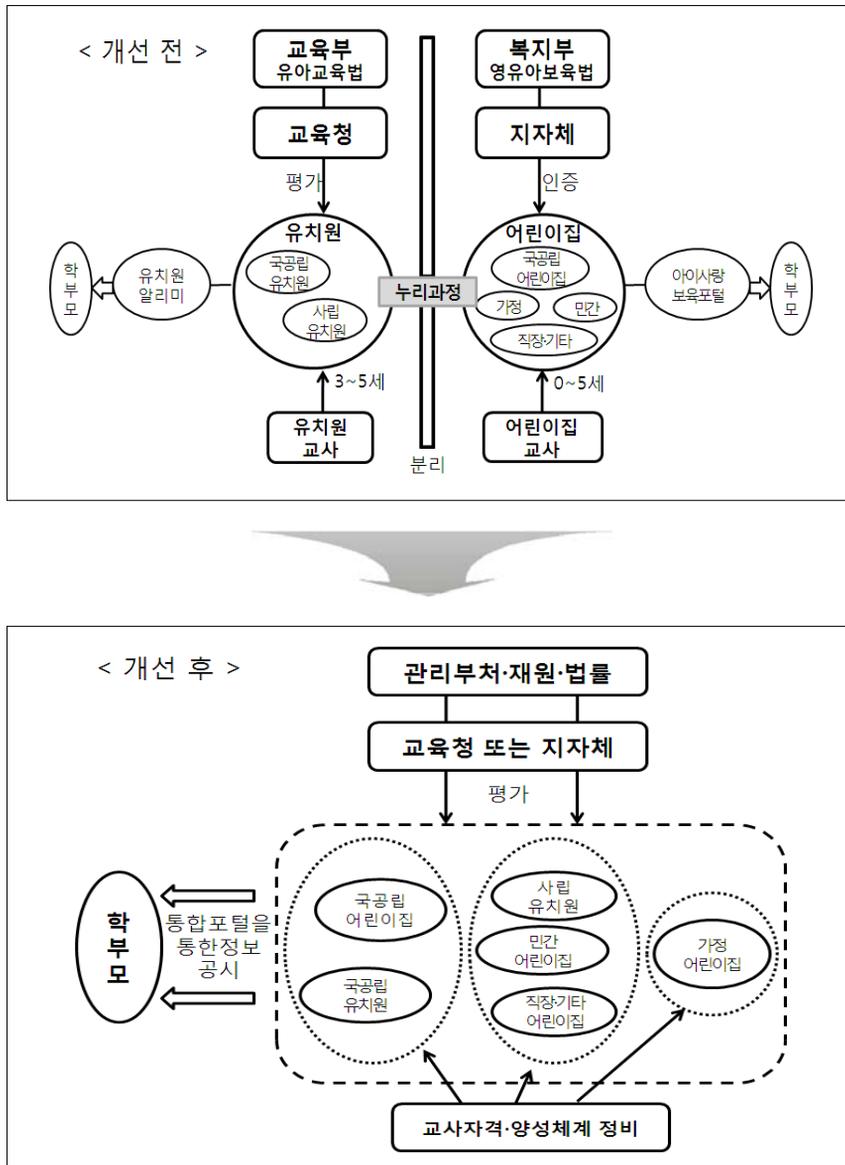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다양한 기관 형태는 그대로 두면서, 학부모가 이용 과정에서 양 기관의 차이로 인해 겪는 불편과 불합리를 해소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유보통합 추진방안의 기본 방향은 ① 학부모 요구 충족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② 현 정부 임기 내에 완성하되, ③ 이해관계자의 갈등요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였다.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유보통합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1단계인 2014년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과제들을 추진한다. 이를테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원비·교사·특별활동·급식 등 정보공시 내용을 확대·연계 및 통합하고, 공통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마련하는 한편,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연계하며, 재무회계규칙 적용 확대 및 공통 적용 항목 개발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둘째, 2단계인 2015년에는 다양한 규제 환경을 정비하는 등 본격적으로 통합을 추진한다. 세부내용으로는 결제카드 통일, 교실면적·교사당 아동비율 등을 포함한 시설기준 정비·통합, 이용시간과 교육과정 등 통합, 교사자격과 양성체계 정비 및 연계 추진 등 많은 과제들이 해당된다. 셋째, 3단계인 2016년에는 관리부처와 유아교육·보육 재정 등도 통합함으로써 유보 통합을 마무리 한다. 3단계에서는 유치원·어린이집 간 교사 처우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부-복지부, 교육청-지자체 등 관리 부처와 영유아교육·보육에 소요되는 예산을 통합하는 것을 주요과제로 한다.

그렇다면 유보 통합을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바꾸어 말해서 통합 이전과 통합 이후에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영유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어느 기관에서건 우수한 자질의 교사로부터 공통 교육·보육과정을 격차 없이 제공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국가 차원의 교육·보육 비전에 따라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유·보 지원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 이를 정책 대상별로 보면, 먼저 학부모 입장에서는 만족도는 올라가고 이용 불편은 줄어든다. 학부모는 유치원·어린이집 비용, 교육·보육 프로그램, 교사, 급식, 통학차량 등 알고 싶은 정보를 통합 정보포털에서 쉽게 비교한 후 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One-card System으로 정부지원금 결제상의 불편이 해소되며, 이용 불편에 대한 민원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다. 교사 입장에서는 자질과 처우가 단계적으로 좋아진다. 재교육·보수교육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처우를 개선하고, 교사자격·양성체계 개편으로 교사 자질과 자긍심을 높이며, 근무시간 조정

등으로 장시간 근로 관행이 개선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입장에서는 운영 환경이 개선된다. 시간선택제 보육·교육 등으로 탄력적인 기관 운영이 가능하고, 표준비용을 주기적으로 재산정해 운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유보통합 이전과 이후를 도식화하여 비교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유보통합 전후 비교

V. 향후 과제

지금까지 우리나라 유아교육 분야의 핵심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누리과정 도입,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 그리고 유보 통합의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 보았다. 그렇다면 2104년 11월 기준으로 각각의 정책은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가?

먼저 누리과정은 예산지원 문제가 뜨거운 감자이다. 현행 법령상 2015년부터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에게 제공하는 보육료를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나,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은 10월 7일,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육료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월 8일 “국민과 어린이를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는 결과가 된 것은 유감”이라고 하면서, “교육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예산 편성 의무를 준수할 것으로 보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10월 15일에는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장관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도 누리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밝혔지만, 10월 16일부터 시작된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누리과정 재정보조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 간 격론이 오갔다. 결국 이 문제는 금년 연말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무렵이나 내년 상반기가 되어야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5개년 계획은 2014년 4월 초에 중앙유아교육위원회에서 2013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25개 과제 중 18개 과제는 정상 추진되고 있었고 7개 과제는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이 미흡한 7개 과제 중 일부는 유보통합 과제에 포함되어 있거나 연계되어 있으므로 국무조정실 유보통합추진단과 협력하여 합리적인 통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보통합과 관계없는 나머지 과제들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유보통합은 국무조정실 유보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교육부·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과제별 업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지난 8월 29일에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결제카드 통합방안’과 ‘유치원·어린이집 정보공시 연계 및 통합방안’을 심의하였다. 현재 정부는 1단계 통합과제인 평가체계 연계·통합방안과 재무회계규칙 통합 방안을 금년 중에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제강연 II

누리과정 발전포럼을 통해 본 누리과정 운영 실태와 향후 과제

김은영(육아정책연구소 전략기획센터장)

누리과정 발전포럼을 통해 본 누리과정 운영 실태와 향후 과제

김은영(육아정책연구소 전략기획센터장)

I. 들어가며

2011년 5월 2일, 김황식 국무총리는 2012년 3월부터 모든 만5세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만5세 공통과정」을 도입·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만5세 공통과정’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하여 만5세의 모든 어린이들이 새로운 공통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만5세 자녀를 보내는 모든 보호자에 대해 유치원비·보육비 지원을 순차적으로 늘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는 의미를 지니며, 결과적으로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사실상 10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국무총리실 보도자료, 2011. 5. 2). 같은 해 12월 14일,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과학기술부의 2012년 업무보고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하고, “내년부터 시작하는 5세 누리과정에 이어 만 4세, 만 3세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같이 적용되는 공통과정을 마련하고, 지원 확대 방안을 관계부처와 스케줄을 연구하여 발표”할 것을 교과부장관에게 지시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11. 12. 14). 이상의 조치로 2012년 3월부터 만 5세에 대한 보편적인 무상 교육·보육정책이 시행되었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적으로 ‘5세 누리과정’이 적용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누리과정은 2013년 3월부터 3, 4세까지 확대·적용되었다.

새로운 정책 추진을 위해 교육부와 복지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여 공포하였으며, 교육부는 누리과정 시행을 포함하여 유아교육선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위해 「유아교육법

」을 개정하였다. 유아교육선진화 추진계획을 통해 교육부는 육아정책연구소에 위탁하여 누리과정 및 해설서와 지침서 등 관련 자료 개발과 함께 이를 수행할 교사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누리과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013년에 누리과정이 전면 도입됨에 따라 유아교육과 보육계의 의견 차이 및 갈등을 최소화하고,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각계각층의 통합된 시너지 창출을 위해 육아정책연구소는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2012년 7월 ‘누리과정 발전포럼’을 발족하여 2014년 6월까지 2년 간 운영하였다. 1차년도 누리과정 발전포럼이 위원 중심으로 운영되었다면, 2차 포럼은 각 지역을 돌면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 누리과정 관련 연구결과와 지역 현장 교원의 누리과정 운영의 실재를 발표함으로써 지역의 전문가들과 현장교원들이 함께 경험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누리과정 전면 시행이 2년을 향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누리과정 발전포럼을 통해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찾아보는 것은 의의 있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고에서는 누리과정의 운영실태, 누리과정의 질 제고를 위한 이슈, 누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슈, 누리과정의 효과, 누리과정에 대한 요구와 개선 사항, 누리과정의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2. 누리과정 운영 실태는 어떠한가?

2012년 5세 누리과정이 시작된 이래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평가연구’를 꾸준히 시행해 왔다. 여기서는 지난 2년 간 누리과정 발전포럼 발표 자료 중 운영실태를 조사한 가장 최근 자료를 중심으로 몇 가지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육과정 운영실태

하루 평균 누리과정 운영 시간은 유치원은 4.8시간, 어린이집은 4.2시간으로 유치원이 36분 정도 더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의 경우 연령별 차이가 별로 없으나,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혼합연령반에서 가장 운영시간이 적었고, 단일연령반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운영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표 1〉 하루 평균 누리과정 운영 시간(교사)

단위 : %(명), 시간

구분	3시간 이하	4시간	5시간	5시간 초과	계	평균 (표준편차)
유치원 전체	11.2	21.5	54.6	12.7	100.0(1209)	4.8(0.64)
만 3세	11.5	25.3	50.3	12.8	100.0(288)	4.8(0.66)
만 4세	12.7	19.6	53.3	14.5	100.0(332)	4.9(0.66)
만 5세	9.5	19.8	59.2	11.5	100.0(400)	4.9(0.61)
혼합연령	11.6	22.8	53.4	12.2	100.0(189)	4.9(0.65)
어린이집 전체	40.6	18.2	21	20.2	100.0(1384)	4.2(1.97)
만 3세	45.1	19.2	17.6	18.2	100.0(490)	4.0(1.98)
만 4세	38.3	16	24.2	21.5	100.0(363)	4.3(1.95)
만 5세	33.2	18.6	23.1	25.1	100.0(355)	4.5(1.99)
혼합연령	47.7	19.3	19.3	13.6	100.0(174)	3.9(1.81)

자료: 권미경, 김정숙, 이경진, 장현실(2013). 3~4세 누리과정 운영 및 이용 현황과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영, 이미화, 장명림, 김혜진, 이연주(2014). 제2차년도 누리과정 발전포럼 합본집. 교육부·인천광역시교육청, 육아정책연구소.

반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유치원은 단일연령 학급이 85.1%이며, 어린이집은 87.7%에 달하여 어린이집의 단일연령 학급비율이 더 높았다. 혼합연령학급의 비율은 유치원의 경우는 3, 4세 혼합반이 가장 많았으며, 어린이집의 경우는 4, 5세 혼합반의 비율이 높았다.

〈표 2〉 반 편성 현황

구분	단일연령학급			혼합연령학급				장애유아통합/ 누리장애아반	총 학급수
	만3세	만4세	만5세	만3,4세	만3,5세	만4,5세	만3,4,5세		
유치원	441	569	686	106	2	59	91	38	1992
학급수	(22.1)	(28.6)	(34.4)	(5.3)	(0.1)	(3.0)	(4.6)	(1.9)	(100.0)
어린이집	757	479	466	40	0	150	2	46	1940
반수	(39.0)	(24.7)	(24.0)	(2.1)		(7.7)	(0.1)	(2.4)	(100.0)

자료: 권미경, 김정숙, 이경진, 장현실(2013). 3~4세 누리과정 운영 및 이용 현황과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영, 이미화, 장명림, 김혜진, 이연주(2014). 제2차년도 누리과정 발전포럼 합본집. 교육부·인천광역시교육청, 육아정책연구소.

누리과정의 영역별 활동형태별 운영비율을 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자연탐구 영역을 제외하고는 20%내외로 나타났다. 자연탐구영역은 16%대로 다른 영역에 비해 운영비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누리과정을 교육보육활동으로 전개하는데 어려운 영역으로 교사들은 ‘자연탐구영역’을 가장 많이 꼽았다는 연구결과(권미경 외, 2013)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활동형태별 비율을 보면 소집단

활동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 대집단 활동의 비율이 높은 반면 개별활동은 낮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표 3〉 영역별, 활동형태별 운영 비율(교사)

단위 : %(명), 점(점)

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신체운동·건강영역	21.7(6.02)	20.5(5.42)
의사소통영역	22.1(6.33)	22.3(5.65)
사회관계영역	19.2(4.44)	20.3(4.71)
예술경험영역	20.7(5.55)	20.0(5.32)
자연탐구영역	16.4(5.28)	16.8(4.89)
대집단활동	40.8(13.65)	35.5(15.71)
소집단활동	31.0(10.17)	30.3(11.49)
개별활동	28.2(12.88)	34.2(17.49)

자료: 권미경, 김정숙, 이경진, 장현실(2013), 3~4세 누리과정 운영 및 이용 현황과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영, 이미화, 장명림, 김혜진, 이연주(2014), 제2차년도 누리과정 발전포럼 합본집. 교육부·인천광역시교육청, 육아정책연구소.

(2) 교사 배치

누리과정 담당 교사 배치는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2급 정교사와 1급 정교사의 비율이 각각 50% 정도로 유사하고,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 1급 소지자가 60%를 넘어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유치원은 담당연령이 높을수록 유치원 1급 정교사의 배치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어린이집 또한 담당연령이 높을수록 보육교사 1급의 배치비율이 높아 높은 연령에 자격이 높은 교사를 배치하는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표 4〉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최상위 소지자격(교사, 복수응답)

단위 : %(명)

구분	유치원 정교사 2급	유치원 정교사 1급	보육 교사 2급	보육 교사 1급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감	보육 교사 3급	유치원 원장	사례수
전체	49.5	48.7	21.3	19.1	10.0	1.8	0.4	0.2	(1209)
유치원									
3세 학급	60.4	37.8	29.2	19.4	10.4	2.4	0.3	0.0	(288)
4세 학급	57.5	40.4	24.7	17.8	10.2	2.1	0.9	0.0	(332)
5세 학급	44.8	52.5	18.3	20.3	11.3	2.0	0.3	0.8	(400)
혼합연령 학급	28.6	72.0	9.5	18.5	6.3	0.0	0.0	0.0	(189)

구분	어린 이집 원장	보육 교사 1급	보육 교사 2급	보육 교사 3급	유치원 원감	유치원 정교사 1급	유치원 정교사 2급	사례수
전체	15.9	61.7	26.1	0.1	0.2	5.7	32.0	(1384)
어린이집								
3세반	12.7	55.3	34.7	0.0	0.0	4.3	30.0	(490)
4세반	14.6	61.2	27.3	0.3	0.0	6.9	32.8	(363)
5세반	21.1	71.5	13.2	0.0	0.0	7.3	32.1	(355)
혼합연령반	17.2	60.3	25.9	0.0	1.7	4.0	36.2	(174)

자료: 권미경, 김정숙, 이경진, 장현실(2013). 3~4세 누리과정 운영 및 이용 현황과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영, 이미화, 장명림, 김혜진, 이연주(2014). 제2차년도 누리과정 발전포럼 합본집. 교육부·인천광역시교육청, 육아정책연구소.

(3) 재정 지원

누리과정 관련 비용 지원은 유치원의 경우 크게 유아학비 지원, 교사 인건비 지원, 방과후과정비 지원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유아학비로 사립유치원 부모에게 월 22만

〈표 5〉 누리과정 관련 비용 지원 (2013년)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 학비	누리과정 유아 1명당 사립 월 22만원(국·공립 월 6만원) - 부모에게 주는 지원이나 아이즐거움카드 인증을 통하여 정부에서 기관으로 지급됨 - 추가 수업료 발생 시 부모 부담	보육비	누리과정 유아 1명당 월 22만원 - 부모에게 주는 지원이나 아이사랑카드 인증을 통하여 정부에서 시설로 지급됨 - 추가 보육료 발생 시 부모 부담
교사 인건비 지원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51만원 (담임수당 11만원 포함: 국·공립 교사는 국가에서 월급을 지급하므로 별도 인건비 지원이 없음) - 누리과정 시행 이전부터 지원해왔음 (해마다 액수의 차이 있음) - 교사의 통장으로 직접지원	누리 과정 교사 수당	② 담임 교사당 30만원 - 누리과정 시행 이전에는 시·군·구청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해왔음 - 교사의 통장으로 직접지원 ① 누리과정 유아 1명당 월 7만원 * 어린이집은 모든 유아를 오후시간까지 보육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누리과정 유아 수만큼 지원
방과후 과정비	방과후 과정 유아 1명당 사립 월 7만원(국·공립 월 5만원) - 방과후 과정 학급 유아에게만 지원 - 부모에게 주는 지원이나 정부에서 기관으로 지급됨 - 추가 수업료 발생 시 부모 부담	누리과정 운영비	①의 시도별 총액에서 ②의 시도별 총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시도별 누리과정 유아수로 나누어 산출 - 정부에서 시설로 지급됨 - 유아 1인당 평균 4~5만원 가량 (장애유아는 일반유아의 2배)이나 시도별 월별 차이 있음

자료: 권미경, 김정숙, 이경진, 장현실(2013). 3~4세 누리과정 운영 및 이용 현황과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영, 이미화, 장명림, 김혜진, 이연주(2014). 제2차년도 누리과정 발전포럼 합본집. 교육부·인천광역시교육청, 육아정책연구소.

원, 국공립 유치원 부모에게 월 6만원을 카드 인증을 통하여 지급하며, 교사인건비는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처우개선비조로 담임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방과후과정비는 참여하는 유아에 한하여 사립유치원 부모에게 월 7만원 국공립유치원 부모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한다. 어린이집의 경우 크게 보육비, 누리과정 교사수당, 누리과정운영비로 나누어볼 수 있다. 보육비는 누리과정 유아 1명당 월 22만원을 지급하며, 누리과정 교사수당은 월 30만원, 기관에는 누리과정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다.

3. 누리과정 질 제고를 위한 이슈들은 무엇인가?

본 장에서는 누리과정의 이슈 중 질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교사전문성과 누리과정 컨설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사 전문성

2012년 5세 누리과정, 2013년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히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앞서 누리과정 운영 교사 배치를 살펴보면, 높은 자격을 가진 교사들을 누리과정 교사로 배치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여전히 교사의 질적 편차로 인한 누리과정 운영의 편차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교사들의 자격 수준 차이는 공정한 출산선 보장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며, 누리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자격체계 정리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1차년도 제7차 누리과정 발전포럼에서는 ‘누리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교사의 전문성 제고 방안’에 대한 주제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본 포럼에서 유치원 교사를 주제로 발표한 이희경(2013)은 유치원 교사 관련 통계들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자는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수립 정책연구에 누리과정 담당교사는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므로, 향후 누리과정 담당교사는 학사학위 수준에서 양성해야 하며, 구체적인 교수요목을 포함하고 구체적인 실습지침서가 있는 교사양성교육과정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현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이 지식중심과 기술교육에 치우쳐 있으며, 양성대학의 다양성으로 인해 비동질성, 교양교육의 전문성 미비, 질 관리 체제 미흡, 전문성 확보 우려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보육교사에 대한 발표에서 이미정(2013)은 보육교사 관련 통계들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연구자는 자격체계의 세분화 및 강화가 필요하며, 보육교사 양성에서 개방형 학점이수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학과중심의 자격증 발급제도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외국의 경우 보조교사가 아닌 정규교사의 학력은 2년제 대학졸업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면서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학점은행제, 보육교사교육원 등을 통한 자격취득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면에서 연구자는 외국의 사례를 들어 양성과정에 복지와 양육과 보호의 개념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실습교과목의 엄격한 통제와 실행 전제의 필요성과 함께 실습기준과 매뉴얼 마련의 필요성을 요구하였다. 더불어 4년제 교육과정 전환에 대한 재고, 0~5세 분리 반대,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학점 하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실제로 유치원 2급 정교사와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의 발급현황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치원 2급 정교사의 경우 전문대학에서 양성하는 비율이 64.4%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대학 및 대학원 20.7%, 방송통신대학 14.5% 순이다. 보육교사 2급 또한 전문대학에서 양성하는 비율이 51.3%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은 학점은행제 33.0%, 대학 및 대학원 10.2% 순이다.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은 2013년 기준으로 7,088명이 발급되어 2급과 합하여 생각하면 보육교사교육원 출신은 학점은행제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장에서 논란이 되는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보육교사교육원 출신을 합하면 20,435명으로 전문대학과 대학 출신의 교사만큼 배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여기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표 6> 유치원 2급 정교사 및 보육교사 2급 자격 증 발급 현황(2013)

단위 : 명(%)

구분	유치원 2급 정교사	보육교사 2급
시도교육청	40(0.4)	
대학(산업대학 포함) / 대학원	2,134(20.7)	3,757(10.2)
전문대학(전공대학 포함)	6,641(64.4)	18,854(51.3)
방송통신대학	1,490(14.5)	817(2.2)
원격(사이버) 대학		1,206(3.3)
학점은행		12,141(33.0)
계	10,305(100.0)	36,775(100.0)

자료 : 교육통계(2013). 교원자격증 발급현황. 한국교육개발원.

김의향(2013).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격관리와 처우개선 방안. 한국보육지원학회 2013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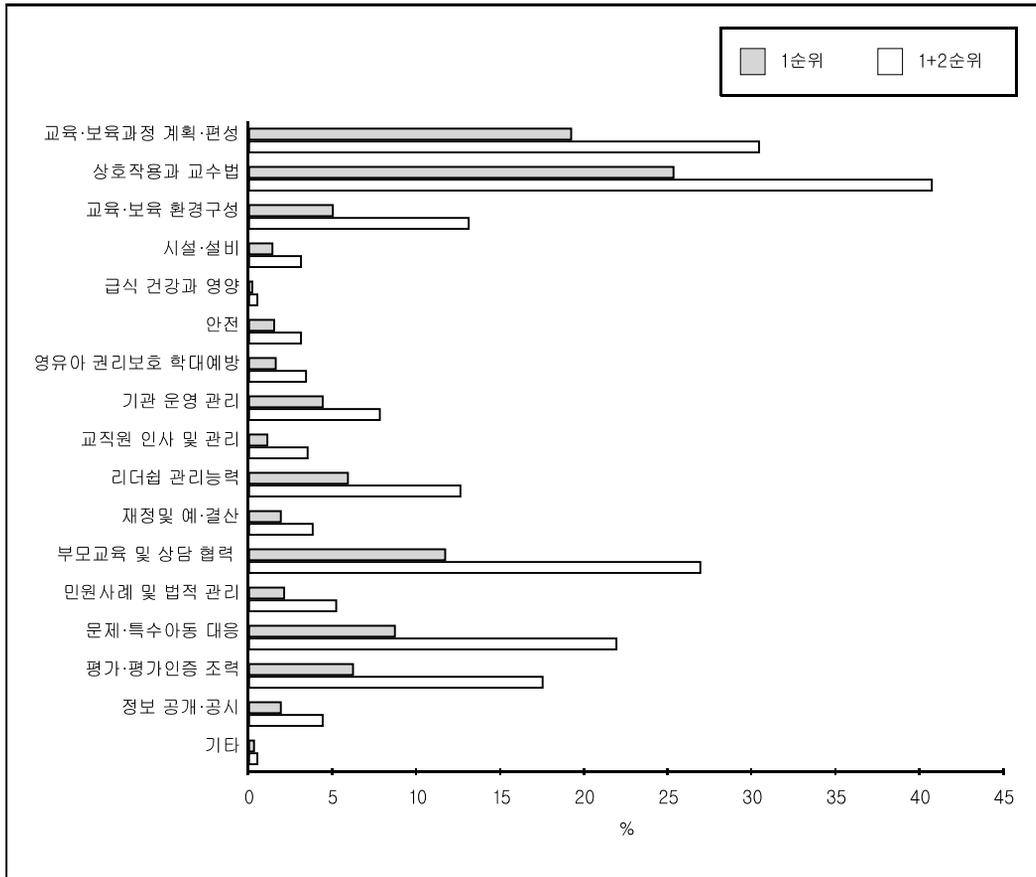
이상의 논의에 대해 토론자들은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 각자의 입장에서 논의하였는데, 먼저 유치원의 경우 전문가는 소요예산을 추정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 강구를 요청하면서 표준화된 교수요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이정옥, 2013). 또한,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질적인 연수의 필요성과 함께 보수의 상향 조정, 교사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 각 기관의 자율권 보장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신경은, 2013). 현장의 교사는 교사수급의 불균형을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유치원을 학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행정인력을 배치하고 적정수업시수를 정하며 사립유치원교사 보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한편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토론에서 한 전문가는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으며, 누리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공동체를 구축하고 지원 인프라를 보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서영숙, 2013). 또한 누리과정 실행을 위해서는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와 실행능력, 교육과 보육이 실행될 수 있는 적절한 환경, 누리과정을 실시하는 교사의 자질, 그에 준하는 급여 지급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보육교사 자격을 유치원교사 자격취득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으며, 자격 미달 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이남주, 2013). 한편 어린이집 교사는 누리과정 교수·학습 자료를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커뮤니티 공간을 통한 질의응답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누리과정에 대해 교사 뿐 아니라 원장과 중간관리자도 적절한 연수가 필요하며, 학력과 자격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현 호봉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김수영, 2013).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세부적인 방안에는 차이가 있으나,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수업연한, 양성과정, 실습 등을 포함하는 자격기준의 상향조정과 함께 적절한 연수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교사가 누리과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인력 지원 등의 근무환경 개선과 함께 처우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었다.

2) 누리과정 컨설팅

누리과정 운영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교사들이 누리과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지원의 한 방편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컨설팅이다. 컨설팅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도와주



〈그림 1〉 컨설팅 희망 내용(1순위와 1+2순위 비교)

자료: 김은영, 이미화, 장명림, 김혜진, 이연주(2014). 제2차년도 누리과정 발전포럼 합본집. 교육부·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정책연구소.

는 활동으로(박효정, 정미경, 김민조, 2009, 최은영, 2014에서 재인용), 교육기관을 지원하는 방법 중 일반적 장학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컨설팅 활동은 교사의 전문성 발달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접근으로 주목받는 추세이다(이화진, 오상철, 홍선주, 2007, 최은영, 2014년에서 재인용). 이러한 맥락에서 제1차년도 제6차 누리과정 발전포럼과 누리과정 발전을 위한 호남지역 토론회에서는 누리과정 질 제고를 위한 방법의 하나인 ‘누리과정 컨설팅’을 주제로 하였다.

본 포럼에서 발표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컨설팅 현황 및 요구를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자는 유치원 교사는 컨설턴트로 동료교사를 가장 선호하는 반면 어린이집 교사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선호하며, 컨설팅 희망자가 과반수이나 비

희망하는 경우 그 이유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최은영, 2013). 한편 교사들이 컨설팅을 받고 싶다고 희망하는 내용은 <그림 1>과 같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1순위를 살펴보면, '상호작용과 교수법'에 대한 선호가 25.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교육·보육과정 계획 및 편성'이 19.3%로 높았다. 1순위와 2순위를 합하여 살펴보면, '상호작용과 교수법'이 40.8%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고 다음은 '교육 보육 과정 계획·편성'이 30.5%, '부모교육 및 상담 협력' 27.0%, '문제특수이동 대응' 22.0%순이었다.

연구자는 이상의 실태와 요구를 기초로 유아교육·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을 위해 컨설턴트 확보 및 전담 컨설턴트 양성, 세분화된 컨설턴트 연수 지원, 컨설턴트의 담당 의뢰인 수 적정화, 컨설팅 용어와 개념의 재정립, 기관평가와 연계한 컨설팅 필요성을 제안하였다(최은영, 2014).

이상의 발표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율성과 자발성을 토대로 한 컨설팅(지성애, 2013), 컨설팅 지원 시간 확보 필요, 양 부처 및 전달 체계 간 협력(김의향, 2013)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더불어 교사들의 자발적인 컨설팅 참여를 위하여 컨설팅이 업무의 연장이고 번거로운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자신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부처나 지원체계의 컨설팅담당자와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컨설턴트 자격 요건 강화를 위해 일정시간 연수를 거친 후 자격을 주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김은영 외, 2014).

4. 누리과정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슈는 무엇인가?

누리과정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는 몇 가지 주제가 있는데, 여기서는 누리과정 운영시간, 인성교육,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주제로 다루고자 한다.

1) 운영시간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시간은 1969년 제정된 제1차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3시간(180분)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이후 개정된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3~4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다가, 1987년 제4차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하루 3시

간 기준으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제시된 이래 2007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까지 180분으로 제시되었다. 이후 2011년 고시된 만 5세 누리과정과 2012년 고시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서는 교육과정 시간을 3~5시간으로 규정한 바 있으며, 2014년 교육부에서는 유치원 교육과정 시간을 5시간으로 지침을 제시한 바 있다.

교육부의 이러한 지침은 현장에 혼란을 가져왔으며, 특히 초등학교와의 연계 및 교육의 질, 교사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유치원 현장에서는 초등학교의 1시간 수업은 40분이 원칙으로 5시간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3시간 20분이고, 휴식과 점심을 포함해도 보통 1시를 전후하여 마치는데, 유치원이 그보다 더 장시간 교육을 하는 것이 타당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더불어 교사의 수업준비 시간이 축소되어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이 낮아지고, 교사의 업무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석호현, 2013).

한편 교육부의 입장은 유아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 재정 지원의 책무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유치원 교육과정 적정운영시간 선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현재 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시간 실태를 보더라도 5시간 지정에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육아정책연구소는 유치원 교육과정 적정운영시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선진국의 다양한 사례, 유치원의 누리과정 운영시간, 유치원 이용시간, 학부모의 희망시간 등을 조사하여* 제시한 후 유치원에서의 누리과정 운영시간을 5시간으로 정할 경우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시간 전후의 돌봄 지원 강화, 초과근무 산정 및 행정지원 인력 배치, 수업지원을 위한 자료의 개발 및 보급, 적정 수업시수 산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최은영, 2013).

이에 대한 토론에서 한 전문가는 적정 운영시간 산정을 위해 유아발달에의 적합성, 무상보편교육 시간의 기준, 사회적 여건, 유치원 교원의 수업시수 고려를 제안하였으며(이정욱, 2013), 유치원 교원 입장에서는 5시간 운영 지침에 30분 정도 자율권 부여, 교사 연구시간 보장, 행정인력 배치, 등하원 시간 융통성 부여, 탄력적 운영 허용, 초등학교와의 연계 고려를 제시하였다(전호숙, 2013). 한편 학부모의 입장에서 교육과정의 적정 운영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4시까지 희망하여 전문가나 교원의 입장과는 차이를 보였다(이혜성, 2014).

* 미국은 1일 수업시간 수를 5시간 규정한 주가 반수에 이르며, 프랑스 유아학교의 수업시간은 주당 24시간, 호주 빅토리아주 1일 수업시간은 6시간으로 규정함. 유치원 누리과정 운영시간은 4.01시간, 유치원 이용시간은 평균 7시간 12분, 학부모가 희망하는 유치원 운영시간은 평균 7시간 45분임.

2) 인성교육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주요 구성방향의 첫 번째에는 ‘질서, 배려, 협력 등 기본 생활습관과 바른 인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 구성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새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학교 정상화’를 들고 실천 과제 중 하나로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의 강화를 선정하였다(김은설, 2014). 이런 맥락에서 교육부는 2011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였으며, 2012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인성교육 실천 우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선정·지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누리과정 발전을 위한 경상지역 토론회의 주제는 ‘누리과정에서의 유아 인성교육’이었으며, 본 포럼의 발표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인성교육 실태를 분석하고 유아기 인성교육의 내실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유아기 인성교육의 실태에서 몇 가지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표 7>, <표 8>과 같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을 대상으로 유아반 내 영유아들 간 따돌림, 공격성, 욕설 등 비행을 관찰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따돌림이 있다’는 응답이 50.2%로 과반수였으며, 공격성향 아동이 있다고 보고한 교사는 49.7%, 욕설이나 비속어 등 잘못된 언어를 사용하는 아동이 있다는 응답도 36.7%에 이르렀다. 한편 발달이 느리거나 허약하여 이 같은 괴롭힘을 당하는 취약 대상이 있다고 보는 교사도 53.3%로 과반이 넘었다. 그러나 유아기 따돌림 현상은 유아가 타인에 대한 존재감을 배우고 협동놀이가 발전하지 못한 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폭력으로 보는 것보다는 사회성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목격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김병태, 2014).

<표 7> 유아반 내 학교폭력 유형별 실태

단위: %(명)

	없음	있음	계
따돌림	48.0	52.0	100.0(1,004)
공격성향 아동	50.3	49.7	100.0(1,004)
욕설/비속어 사용	63.3	36.7	100.0(1,004)
괴롭힘 표적 가능 아동	46.7	53.3	100.0(1,004)

자료: 김은설, 최은영, 조아라(201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영유아기 인성교육 강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영, 이미화, 장명림, 김혜진, 이연주(2014). 제2차년도 누리과정 발전포럼 합본집. 교육부·인천광역시교육청, 육아정책연구소.

한편 누리과정에서 인성교육의 주요 덕목으로 제시되고 있는 배려, 존중, 협력, 나눔, 질서, 효 등이 실제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교육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5점 척도에 4점 전후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덕목별로 살펴보면, 질서에 대한 교육이 4.13으로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협력, 나눔, 배려, 존중, 효 순이었다.

〈표 8〉 누리과정 내 인성교육 덕목별 교육 정도에 대한 교사 인식

단위: %(명), (점)

덕목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대체로 이루어지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잘 이루어짐	매우 잘 이루어짐	계	평균
배려	0.1	0.8	18.6	65.3	15.1	100.0(1,004)	3.95
존중	0.0	1.2	25.5	54.9	18.4	100.0(1,004)	3.91
협력	0.0	0.3	15.2	59.6	24.9	100.0(1,004)	4.09
나눔	0.1	1.0	17.8	58.7	22.4	100.0(1,004)	4.02
질서	0.0	0.5	14.3	56.7	28.5	100.0(1,004)	4.13
효	0.4	3.6	32.2	51.0	12.8	100.0(1,004)	3.72

자료: 김은설, 최은영, 조아라(201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영유아기 인성교육 강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영, 이미화, 장명림, 김혜진, 이연주(2014). 제2차년도 누리과정 발전포럼 합본집. 교육부·인천광역시교육청,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자는 유아기 인성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교사와 부모 대상 교육 기회 확대 및 다양화, 바깥놀이 시간 확대,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문제행동 아동 지도 지원 등 교육환경 조성, 인성교육에 대한 지원, 부모 역할 시간 확보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등 사회·정책적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김은설, 2014). 현장에서는 누리과정에 기초한 인성교육을 통해 유아에게는 배려와 협동심을 길렀으며, 교사 또한 스스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협력하는 태도를 실천하고자 하였음을 보고하였다(김정민, 2014). 포럼 발표에 대한 토론에서 전문가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인성교육용 자료 개발과 지원방식이 지속적이고 주기적이어야 하며, 상호작용적이고 시의성이 담긴 지원방식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최혜영, 2014). 원장은 유아교육이 곧 인성교육이므로 인성교육에 대한 영유아 교육·보육기관의 책무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하였으며(지주영, 2014), 어린이집 교사는 인성교육에 대한 참여형 부모교육 필요성과 함께 인성교육이 또 하나의 프로젝트처럼, 행사처럼 왜곡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명하

였고(서선희, 2014),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누리과정이 지향하는 목표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어떻게 교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교사 소모임을 통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박초아, 2014).

이상을 종합하면, 누리과정에서의 인성교육은 정부와 부처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현장에서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하나의 행사보다는 일과 중 관련 주제와의 통합적 활동 속에 자연스럽게 내면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성교육을 더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관과 학부모의 연계 및 자료 개발 및 소모임 지원 등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3) 누리과정 연계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연계는 과거로부터 강조되어 왔지만, 누리과정이 3~5세를 위한 국가 수준의 공통교육과정이며, 누리과정에 대한 무상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사실상 의무교육으로 부상함에 따라 누리과정과 초등교육과정과의 연계는 조금 더 이슈가 되었다.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주요 구성 방향에도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0-2세 표준보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누리과정 발전을 위한 서울·인천·제주지역 토론회의 주제는 ‘누리과정 연계’였으며, 본 포럼의 발표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학기 초 적응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초등학교 1학년 적응은 유아의 개인 변인, 가정환경 변인, 기관 변인에 따라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관변인과 관련하여서는 특히 학급 구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학급이 연령별 학급이었는지, 혼합연령 학급이었는지에 따라 학교적응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전체적인 학교적응 점수는 연령별 학급이 3.93점, 혼합연령반이 3.74점으로 연령별 학급에서 누리과정 경험을 했던 유아의 학교적응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영역별로 보면 학습수행, 또래관계, 교사관계의 3가지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상생활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연령별 학급에서 누리과정을 경험한 유아가 더 잘 적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유치원·어린이집 혼합연령반 유무에 따른 학교적응 현황

단위: M(SD), 명

구분	학교적응	학교적응 하위영역				사례수
		일상생활	학습수행	또래관계	교사관계	
연령별	3.93(0.72)	4.04(0.89)	3.92(0.79)	3.72(0.82)	4.15(0.72)	665
혼합연령	3.74(0.74)	3.87(0.88)	3.68(0.86)	3.56(0.86)	3.97(0.70)	116
t	2.500**	1.895	2.985**	1.966*	2.612**	781

주: *p < .05, **p < .01

자료: 장혜진, 김은설, 상경아, 송신영(2013). 누리과정 효과분석 기초연구: 초등학교 적응을 중심으로. 유아정책연구소. 김은영, 이미화, 장명림, 김혜진, 이연주(2014). 제2차년도 누리과정 발전포럼 합본집. 교육부·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정책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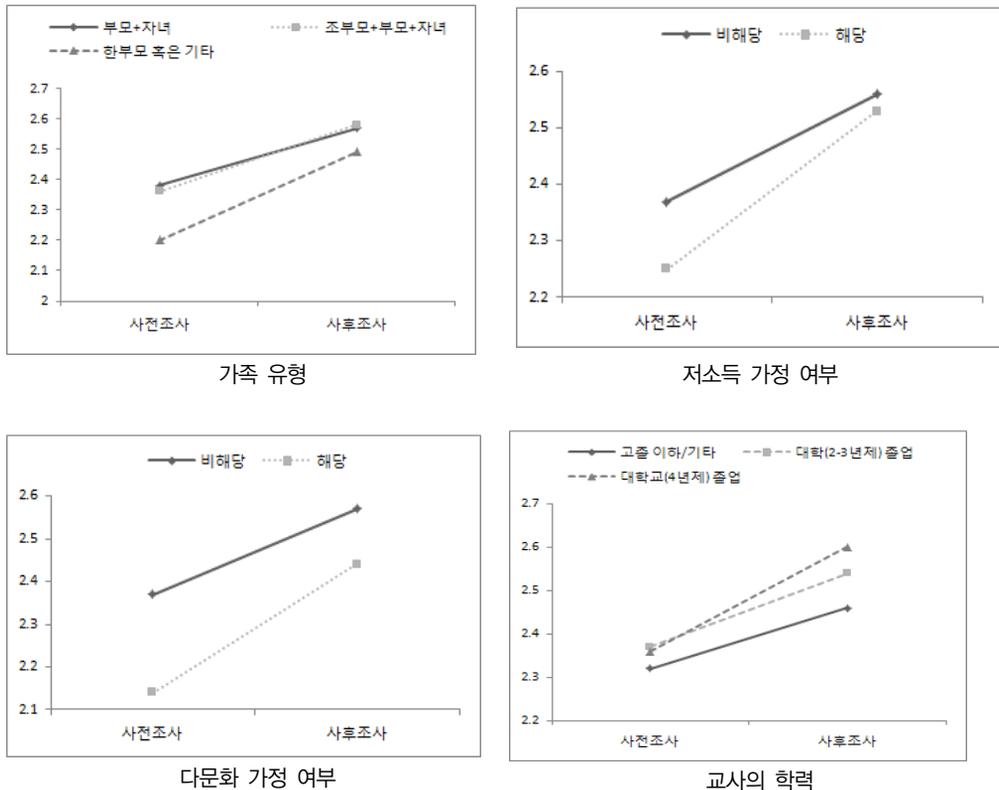
이상의 분석을 통해 연구자는 초등학교 1학년 적응을 돕기 위해 누리과정 교사를 대상으로 또래관계를 지원하는 연수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부모교육과 함께 취약계층 유아 및 부모 대상 지원을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누리과정 담당 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해야 하고, 연령별 학급 편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장혜진, 2014). 이러한 발표에 대해 한 전문가는 외동이 다수인 현 출산문화를 고려할 때 혼합연령을 지양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하였고(이종희, 2014), 다른 전문가는 누리과정 연계를 위해 상호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의 장 확보, 입학 초기 적응을 위하여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공통적인 기본운영방침 마련, 유초연계에 대한 부모들의 올바른 인식 지원, 관련기관 간의 협조체계 및 국가 차원의 제도적, 정책적 지원체계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최일선, 2014). 원장은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누리과정부터 초중등 교육과정까지 국민 공통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누리과정 영역과 초등학교 교과 명칭 통일, 초등교육과정 관련 연수 및 자료 보급, 초등교육과정과 초등교사용 지도서에 누리과정 관련 요소 명시를 제안하였으며, 교육제제 및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상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및 적응을 위한 연구, 발달에 맞는 교수학습방법 전개와 교육환경 구성을 제안하였고, 유초연계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 인식 제고도 중요하다고 하였다(유홍옥, 2014).

5. 누리과정의 효과는 어떠한가?

누리과정이 시행된 기간은 짧지만, 많은 재정이 투입된 정책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누리과정에 대한 평가 혹은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는 누리과정의 효과를 유아측면, 부모 측면, 교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유아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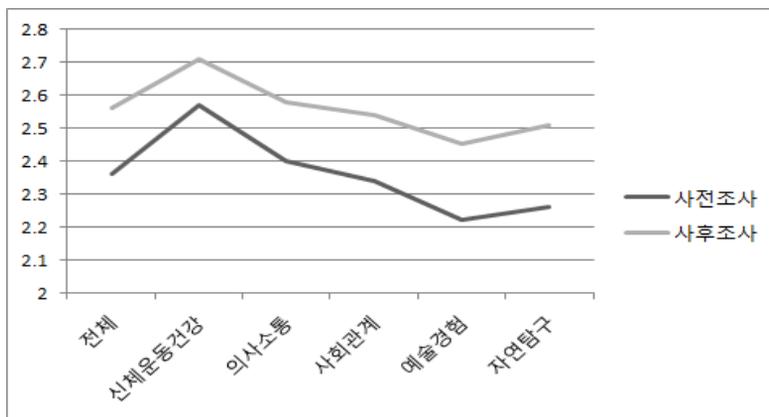
누리과정 발전을 위한 경기·강원지역 토론회의 주제는 ‘누리과정의 효과’였고, 발표자는 누리과정을 적용했을 때 유아의 발달을 사전, 사후 조사로 측정함으로써 다양한 변인에 따른 발달 정도를 비교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누리과정이 출발선 평등을 보장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즉 누리과정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경우, 질 높은 교사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에 더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의 <그림 2>에서 차이폭이 줄어드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혼합연령 학급보다는 단일연령 학급에서 측정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다양한 변인과 측정시기의 상호작용 효과

주: 저소득 가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을 포함함.
 자료: 이정림, 이미화, 오유정(2013). 「5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활용을 통한 누리과정 효과 분석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영, 이미화, 장명림, 김혜진, 이연주(2014). 제2차년도 누리과정 발전포럼 합본집. 교육부·인천광역시교육청, 육아정책연구소.

본 발표에서 더 살펴볼만한 결과는 <그림 3>에서 볼 수 있다. 누리과정 영역별 점수를 통해 유아들이 가장 잘 하고 있는 영역과 부족한 영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장 점수가 높은 영역은 신체·운동 건강영역이며, 가장 낮은 영역은 예술경험으로 나타났다. 사전조사 대비 사후조사에서 일정 부분 점수가 모두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상승폭이 다소 높은 경향이 있었다.



〈그림 3〉 누리과정 영역별 평균 점수 비교

자료: 이정림, 이미화, 오유정(2013). 「5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활용을 통한 누리과정 효과 분석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영, 이미화, 장명림, 김혜진, 이연주(2014). 제2차년도 누리과정 발전포럼 합본집. 교육부·인천광역시교육청, 육아정책연구소.

이상의 결과에서 발표자는 취약계층 유아 대상 누리과정 교육 효과 홍보 및 확산, 누리과정의 중장기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종단연구 실시, 4년 이상의 교사 양성교육 기관 확보, 5세 단일반 위주 운영 및 5세 혼합반을 위한 지침 제공, 누리과정 연수 및 장학 기회 확산을 제안하였다(이정림, 2014). 이에 대한 토론에서 전문가는 누리과정이 취약계층 가정 유아의 출발점으로부터의 평등 실현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평가하며, 특성에 따른 별도의 프로그램 제공, 보조교사 지원 등 혼합연령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김혜금, 2014).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누리과정을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도움을 주었으며, 교육활동의 편차 축소에 기여했다고 보았다(정정옥, 201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누리과정은 유아의 발달에 효과가 있었으며, 특히 취약계층일 경우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어느 정도 출발점 평등 실현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교사의 전문성이 높을수록 그 효과가 더 커졌다는 결과는 향후 교

사자격 개편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참고할만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2) 부모 측면

부모측면에서 누리과정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은 누리과정 시행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는 것이다. 우선 누리과정에 대해 알고 있다는 부모를 대상으로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기대 효과를 중심으로 만족도를 4점 척도로 알아본 결과는 <표 10>과 같다. 부모들의 응답은 모든 항목에서 3점이 넘는 결과를 나타내어 긍정적이었으며, 이 중 교육비와 보육료의 비용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표 10>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기대효과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점(점)

구분	유치원 학부모	어린이집 이용부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어느 기관을 다니는지에 관계없이 동일한 내용경험	3.1(0.5)	3.2(0.6)
사립 월 22만원, 공립 6만원 비용 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 감소	3.2(0.7)	3.3(0.7)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	3.1(0.6)	3.2(0.5)
초등학교 취학 준비에 도움	3.1(0.6)	3.2(0.6)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짐	3.1(0.7)	3.1(0.6)
교사의 전문성 향상	3.1(0.6)	3.2(0.6)

자료: 권미경, 김정숙, 이경진, 장현실(2013). 3~4세 누리과정 운영 및 이용 현황과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영, 이미화, 장명림, 김혜진, 이연주(2014). 제2차년도 누리과정 발전포럼 합본집. 교육부·인천광역시교육청, 육아정책연구소.

누리과정의 비용지원에 따른 가계 도움 정도를 알아본 결과, 유치원은 92.7%, 어린이집은 94.4%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4점 척도에 유치원은 3.5점, 어린이집은 3.6점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누리과정 비용지원의 가계 도움 정도

단위: %(명)

구분	비용지원 가계 도움 정도					계	평균 (표준편차)
	매우 도움이 된다	조금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모름/ 무응답		
유치원	57.1	35.6	5.9	1.0	0.5	100.0(1,553)	3.5(0.7)
어린이집	63.1	31.3	4.1	0.9	0.6	100.0(1,506)	3.6(0.6)

자료: 권미경, 김정숙, 이경진, 장현실(2013). 3~4세 누리과정 운영 및 이용 현황과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영, 이미화, 장명림, 김혜진, 이연주(2014). 제2차년도 누리과정 발전포럼 합본집. 교육부·인천광역시교육청, 육아정책연구소.

누리과정 지원으로 절약된 금액의 주된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부모 모두 가족생활비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은 해당 자녀를 위한 사교육비나 추가 지출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누리과정 지원이 자녀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어느 정도는 덜어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2〉 비용 지원으로 인한 절약 금액의 주 사용처(1순위)

단위: %(명)

구분	유치원 학부모	어린이집 이용부모
가족 생활비	35.1	39.4
해당 자녀를 위한 추가지출(간식, 장난감, 옷, 체험활동 등)	23.2	23.7
해당 자녀 사교육비	27.9	23.3
다른 자녀 사교육비	4.8	3.4
저축	4.3	3.5
다른 자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이용비	1.2	1.4
기타	0.2	0.6
모름/무응답	3.3	4.8
사례수	(1,553)	(1,506)

자료: 권미경, 김정숙, 이경진, 장현실(2013). 3~4세 누리과정 운영 및 이용 현황과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영, 이미화, 장명림, 김혜진, 이연주(2014). 제2차년도 누리과정 발전포럼 합본집. 교육부·인천광역시교육청, 육아정책연구소.

이상의 내용에서 누리과정의 정책지원에 대해 부모들은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으며, 특히 누리과정 비용정책이 부모의 가계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누리과정의 성공적인 실행은 누리과정에 대한 학부모의 올바른 인식과 이에 대한 협력적 태도가 중요하므로 누리과정에 대한 학부모 대상의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 교원 측면

누리과정과 관련된 교원 측면에서의 효과는 비용 지원 측면에서 기관 운영과 교육·보육과정 측면에서 누리과정 운영의 개선에 대한 체감 정도에서 알아볼 수 있다. 누리과정 도입 후 원장과 교사의 개선에 대한 체감 정도를 4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누리과정으로 개선된 부분에 대해 유치원 원장과 교사는 교육비와 보육료 지원이 일원화된 점을, 어린이집의 경우는 보육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 향상된 점을 상대적으로 높게 체감하고 있었다. 반면, 교사의 행정관련 업무경감에 대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원 모두 대체로 불만족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13〉 누리과정 도입 후 개선 체감 정도

단위 : 점(점)

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 평균(편차)	교사 평균(편차)	원장 평균(편차)	교사 평균(편차)
교육비·보육료 지원 일원화	3.1(0.7)	3.0(0.7)	2.9(0.7)	3.1(0.6)
재정운영 안정화	2.7(0.8)	2.3(0.8)	2.7(0.7)	2.7(0.8)
프로그램 질적 수준 향상	3.0(0.6)	2.9(0.6)	3.2(0.5)	3.0(0.5)
교사의 전문성 수준 향상	2.9(0.7)	2.8(0.6)	3.0(0.6)	2.9(0.5)
원아 모집 용이	2.4(0.8)	2.4(0.7)	2.3(0.8)	2.6(0.7)
기관 이미지 제고	2.6(0.8)	2.6(0.7)	2.5(0.7)	2.7(0.7)
학부모의 기관 신뢰도 강화	2.7(0.8)	2.7(0.7)	2.6(0.8)	2.7(0.7)
교사의 행정관련 업무경감	1.8(0.8)	1.9(0.8)	2.0(0.8)	2.2(0.8)

자료: 권미경, 김정숙, 이경진, 장현실(2013). 3~4세 누리과정 운영 및 이용 현황과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영, 이미화, 장명림, 김혜진, 이연주(2014). 제2차년도 누리과정 발전포럼 합본집. 교육부·인천광역시교육청, 육아정책연구소.

누리과정 발전포럼을 통해 원장들과 교사들은 누리과정으로 인해 개선된 점에 대해 여러 번 언급하였다. 어린이집 원장은 누리과정 실시의 좋은 점으로 공통교육과정 적용으로 인한 출발점 평등이 실현되고 격차가 해소되었으며, 부모의 인식이 개선되어 원아모집에 도움이 되었고, 교육과정의 연계성이 확보되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자료 제공으로 교사의 보육과정 계획과 적용도 수월해졌음을 보고하였다(김영수, 2013). 유치원 원장은 누리과정 시행으로 기본교육과정에 충실하게 되었고, 특성화프로그램을 인성교육으로 전환하였으며, 교육과정의 연계성과 계열성을 위한 고민과 실행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김연진, 2014). 어린이집 교사는 누리과정을 적용하려는 노력을 통해 교육의 의미에 대해 재정비하였고,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왔음을 이야기하였고(정해진, 2014), 교사의 자존감과 성취감이 증진되었다고 하였다(이진영, 2014).

한편 전문가들도 누리과정의 효과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나종혜(2013)는 보육과정의 내용과 구성면에서 질적이 향상이 있었으며, 운영금 및 보조교사 지원을 통해 교재교구를 확보하였으며, 운영비와 처우개선비 지원을 통해 보육의 질을 향상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학부모와 일반여론에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공통교육과정을 적용한다는 설명이 가능해짐으로써 어린이집의 위상이 올라갔다고 하였다. 최혜영(2014)은 누리과정 도입으로 인해 비용지원 일원화,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

상, 바깥놀이 증가, 특별활동 시간이 오후로 이동하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이상에서 누리과정이 유아 측면에서는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부모에게는 어느 정도 가계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비용지원과 공통적인 교육·보육과정 운영을 통해 기관 운영 측면에서 도움이 되고 있으며, 교사에게는 처우개선비 지원과 함께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자료 보급 및 사전 연수 실시로 인해 성취감이 증진되고 교육·보육과정 운영의 질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누리과정에 대한 요구 및 개선사항은 무엇인가?

누리과정 발전을 위한 과제는 누리과정에 대한 요구사항과 개선점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2013년 누리과정 운영과 이용실태를 분석한 연구(권미경 외, 2013)에서 학부모, 원장, 교사를 대상으로 요구와 개선 사항을 조사한 결과는 <표 14 ~ 표 16>과 같다. 누리과정 운영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에서 부모들은 누리과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사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그 다음은 누리과정의 운영 평가를 강화하는 것, 누리과정 홍보 확대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14> 누리과정 운영 개선 요구(부모)

단위: %(명)

구분	유치원 학부모	어린이집 이용부모
교사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28.3	32.3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운영평가 강화	19.6	19.8
누리과정의 홍보 확대 (예: 누리과정 설명회, 리플렛·e-book 보급, 안내책자 발간 등)	18.1	18.3
유아학비 지원 신청 절차 간소화	14.8	9.2
교육·보육비 지불을 위한 카드 회사 선택 폭 확대 및 사용	10.5	11.6
잘 모름	8.7	8.8
사례수	100.0(1,553)	100.0(1,506)

자료: 권미경, 김정숙, 이정진, 장현실(2013). 3~4세 누리과정 운영 및 이용 현황과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영, 이미화, 장명림, 김혜진, 이연주(2014). 제2차년도 누리과정 발전포럼 합본집. 교육부·인천광역시교육청, 육아정책연구소.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유치원 원장은 행정관리 간소화를 가장 많이 지적한 반면 어린이집 원장은 재정 지원 강화를 요구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유치원 원장은 재정 지원 강화, 지도서 활용성 제고, 보조인력 지원 강화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어린이집 원장은 교사교육 강화, 행정관리 간소화, 프로그램 활용성 제고 순으로 나타나 요구 내용은 유사한 가운데 각 내용에 대한 요구 정도는 다를 수 있다.

〈표 15〉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개선사항(원장)

단위 : %(명)

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행정관리 간소화	34.8	11.9
재정 지원 강화	24.4	38.3
프로그램/지도서 활용성 제고	12.0	10.7
보조인력 지원 강화	11.2	6.0
교사 교육 강화	7.9	17.5
기관별 교육·보육서비스 격차 완화	4.9	7.2
시설·설비 보완	3.1	6.0
홍보 강화	0.4	1.4
기타	1.4	1.0
전체	100.0(509)	100.0(514)

자료: 권미경, 김정숙, 이경진, 장현실(2013). 3~4세 누리과정 운영 및 이용 현황과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영, 이미화, 장명림, 김혜진, 이연주(2014). 제2차년도 누리과정 발전포럼 합본집. 교육부·인천광역시교육청, 육아정책연구소.

누리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요구에 대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는 모두 다양한 활동자료의 개발과 보급을 원하였다. 그 다음으로 유치원 교사는 보조인력 지원 강화, 교사 급여 수준 향상을 원하였으며, 어린이집 교사는 급여수준 향상, 방과후반 별도 편성 등을 위하여 상황에 따라 요구사항이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표 16〉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요구(교사)

단위 : %(명)

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다양한 활동자료 개발/보급	52.2	34.5
보조인력 지원 강화	20.4	16.3
담당 교사 급여 수준 향상	13.5	18.5
교사용 지도서/연령별 프로그램 활용성 제고	9.3	4.8
누리과정 연수(교사 재교육) 내실화	3.2	3.9
누리과정 장학 실시 확대	0.3	1.4
기타	1.1	1.1
방과후반 별도편성	-	17.8
영아반교사와의 수당격차해소	-	2.0
전체	100.0(1209)	100.0(1384)

자료: 권미경, 김정숙, 이경진, 장현실(2013), 3~4세 누리과정 운영 및 이용 현황과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영, 이미화, 장명림, 김혜진, 이연주(2014), 제2차년도 누리과정 발전포럼 합본집. 교육부·인천광역시교육청, 육아정책연구소.

7. 누리과정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

본 장에서는 누리과정 발전포럼을 통해 논의되었던 누리과정의 운영 실태 및 이슈들, 누리과정의 효과 및 개선 요구에 기초하여 향후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누리과정발전포럼은 여러 회를 개최하였으나, 개선을 위한 공통된 의견들이 반복적으로 논의되었으며, 결국 이러한 내용을 누리과정의 향후 과제로 제시할 수 있다. 여기서는 누리과정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를 누리과정 운영, 교원 전문성, 재정 지원의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누리과정 운영 측면

누리과정 운영에는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향후 과제를 6가지 정도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누리과정 운영에 있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다양한 용어 사용에 대한 개념 정의와 공통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두 기관의 이원화 체계로 인해 교육·보육 과정 운영방식과 시간뿐 아니라 시설·설비 기준, 학급 편성, 교사 대 유아 비율 등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누리과정이라는 공통된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위해

서는 이에 대한 기준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누리과정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재교구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이미 정부에서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누리과정 해설서, 지침서, 지도서/프로그램, 혼합연령 운영 매뉴얼 등을 보급한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는 한결같이 교육과정 획일화 및 하향평준화를 경계해야 하다는 것이다. 누리과정 지도서/프로그램은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참고자료이나, 이 자료를 교과서처럼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현장의 다양성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편성·운영 지침을 제공하며, 현장에서 여러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재교구를 보급하고, 다양한 사례를 포함한 활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 개발된 자료의 내용과 활용방식을 분석한 후 여기에 기초하여 개정·보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누리과정 운영에 있어 장애유아나 다문화 가정 유아 등 취약계층 유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누리과정 발전포럼에서 전문가들은 누리과정에 장애유아를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별로 없다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보강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다음 개정 시에는 이들에 대한 배려 부분이 추가되고 지도서나 프로그램 개발 시에 누리과정 장애유아 통합 교육계획 등 이들에 대한 교육과정 적용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누리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운영 지원체계로서 유아교육진흥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유아교육진흥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에 근거를 둔만큼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자료를 개발하고, 누리과정 운영 시 부족한 점을 진단하여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를 개발하여 운영하면서 그 지역 교사들의 누리과정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누리과정 운영에 대한 자체평가모형이 필요하다. 현장에서는 누리과정 내용영역 구성의 균형과 지도의 어려움을 보고한 바 있으며, 교육·보육과정 운영을 위한 계획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행점검은 잘 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따라서 누리과정 운영에 대한 자체평가 모형 개발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누리과정 계획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계획한 것에 대해 잘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여섯째,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부모와 지역사회의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 우선

누리과정의 바른 이해를 위한 부모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누리과정 이해를 위한 e-book을 개발한 바 있다. 최근 자녀 양육을 전적으로 기관에 맡기려는 학부모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부모, 지역사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부모의 경우 수업 참여 및 기관 운영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누리과정 운영에 부모를 참여시켜야 하며, 지역의 전달체계를 활용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발굴하여 끌어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2) 교원 전문성 측면

유아가 경험하는 누리과정의 질은 결국 교사에 의해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누리과정 질에 대한 논의에서 핵심이 되는 주제였다. 교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과제는 4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누리과정 운영 교사의 자격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누리과정 운영 실태를 보면 다행히 상대적으로 자격 수준이 높은 교사를 배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여전히 교사의 질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 향후 유보통합을 앞두고 유아교사양성체제 정비가 이루어질 것이나, 누리과정 운영의 질 보장을 위해 우선 누리과정 운영 교사 자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직교사에 대한 지속적인 연수와 컨설팅 및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여건 제공이 필요하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가 잡무를 줄이고 연수와 컨설팅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조 인력과 행정인력, 대체 인력 등 다양한 인력 지원이 필수적이다. 연수 방법에 있어서는 대단위 집합연수나 사이버 연수뿐 아니라 연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소규모 워크숍, 사례 연구 등의 심도 깊은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또한 한 기관 내 혹은 한 지역 내에서 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활용하거나 자율장학을 통해 실제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도교육청과 유아교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전달체계와 지원체계에서는 교사들의 요구에 기초한 컨설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교사의 처우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처우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사립유치원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수당 지급만으로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향후 누리과정 운영 교사 자격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자격체계에 맞추어 교사 호봉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어린이집의 경우 자격과 학력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호봉체계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경력과 학력을 반영하고 있는 유초중등교사 호봉체계를 따르는 것이 형평성의 문제 해결과 함께 누리과정 교사의 사회적 지위를 제고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으로 보인다.

넷째,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의 원장에 대한 교육도 필수적이다. 누리과정 연수가 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정작 누리과정 운영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위치에 있는 원장에 대한 교육이 없어서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다. 교사 뿐 아니라 원장의 학력 등의 편차도 상당히 심한 것으로 보고되고, 원장이 교육·보육과정 운영 전반에 주도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원장 대상의 체계적인 맞춤교육이 필수적이다.

3) 재정 지원 측면

누리과정이 시행되면서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유아에게 지원카드를 통해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사에게는 처우개선비가, 기관에는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다. 재정지원 측면에서 4가지 정도의 향후 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누리과정 재정지원은 형평성과 합리성, 투명성을 고려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현장에서는 누리과정을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도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제기와 함께 누리과정 지원금의 적절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한 회계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누리과정 운영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이에 근거한 합리적인 재정 지원, 현장의 요구에 따른 지원금 지급의 시기 조정,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누리과정 운영지원금 사용의 융통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지나친 융통성은 자칫 지원금이 잘못 사용될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나, 고정될 경우 현장의 사정에 따라 정작 필요한 곳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누리과정 지원금 대부분을 상업적인 교재교구를 구입하는데 사용한다는 보고가 있었

다. 따라서 사용 항목을 지정하되 지원금의 일정부분에 대한 융통성은 부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누리과정 지원 재원에 대한 국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언론에서는 여러 지방정부들이 예산부족으로 누리과정 재정지원을 할 수 없다고 정부에 맞서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으며, 최근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조달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위반된다고 국회입법처의 해석이 있었다(뉴시스, 2014. 10. 23).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원과 학부모는 재정지원이 언제 중단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재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누리과정 재정 지원의 효과성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누리과정 재정 지원이 결국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자의 주머니로 들어간다가거나 혹은 사교육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사교육을 오히려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파악을 통해 국가의 막대한 재정지원이 유아들의 공평한 출발점을 보장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는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그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

8. 나가며

지난 2년간의 누리과정 발전포럼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김은영, 2014). 첫째, 누리과정을 통해 현장의 노력이 더해지고 결과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이 향상되었다. 둘째, 누리과정 운영 시 현장의 고충과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은 지역별로 다양하였다. 셋째,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융통적인 활용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누리과정의 내실화는 결국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누리과정에 대한 교원 교육의 내실화, 유치원과 어린이집 컨설팅 기회 확대 및 교사 소모임 활성화, 누리과정의 기본철학과 취지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의 노력을 해야 하며, 동시에 교사업무 지원을 위해 교사의 행정업무 간소화, 보조교사 지원,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자료 개발 및 보급, 지역별 맞춤 지원 체제 구축, 지역차를 반영한 시도교육청별 맞춤 지원 방안 마련,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 및 방법 지원 등을 수행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눈앞에 두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유보통합에 관심을 두고 국무조정실에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단을 구성하여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연구와 협의회를 통해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유보통합을 언제 어떻게 이루느냐보다는 유보통합의 근본적인 목적인 생애 출발점에 있는 모든 영유아들이 가까운 곳에서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 나가야할지 고민할 때이다.

참고문헌

- 교육통계(2013). 교원자격증 발급현황. 한국교육개발원.
- 권미경, 김정숙, 이경진, 장현실(2013). 3~4세 누리과정 운영 및 이용 현황과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설, 최은영, 조아라(201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영유아기 인성교육 강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영, 이미화, 장명림, 김혜진, 이연주(2014). 제2차년도 누리과정 발전포럼 합본집. 교육부·인천광역시교육청, 육아정책연구소.
- 김의향(2013).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격관리와 처우개선 방안. 한국보육지원학회 2013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이정림, 이미화, 오유정(2013). 「5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활용을 통한 누리과정 효과 분석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장명림, 이미화, 김은영, 조혜주, 남상보(2013). 제1차년도 누리과정 발전포럼 합본집. 교육부·충청남도교육청, 육아정책연구소.
- 장혜진, 김은설, 상경아, 송신영(2013). 누리과정 효과분석 기초연구: 초등학교 적응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뉴스스(2014. 10. 23). 국회입법처 “무상보육 재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달은 위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3&aid=0006152094&sid1=001>.

Young Scholar Session (I)

- 유치원 교원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모형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방안
문복진(유아교육진흥원 교육지원과 과장)
- 유치원 초임교사 핵심역량의 타당화 연구
박은혜(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조운주(한국교통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유치원 교원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모형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방안

문복진(유아교육진흥원 교육지원과 과장)*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아교육을 이끌어 가는 원동력은 전문성을 갖춘 유치원 교원의 열정과 헌신에서 시작된다. 전문직으로서의 교원은 교직 전 기간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전문성을 유지·발전시켜야 하며 급변하는 정치·경제·사회적 변화 추세 속에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지식과 정보 기술을 습득해 나가야 한다(이윤식, 1993; OECD, 1982).

이러한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방법으로 교사로 임용된 이후 참여할 수 있는 현직연수가 있으며 현직연수 가운데 가장 일반적으로 택하는 것이 교원 연수이다. 교원연수의 형태는 주관하는 주체에 따라서 기관중심 연수, 학교중심 연수, 개인중심 연수로 나눌 수 있다(박은혜, 2004; 이윤식 1999). 「교원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서는 직무연수 연수 과정, 내용, 연수비 지급, 직무연수 지침 마련, 연수실적의 기록·관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시행규칙에서는」 특수분야 직무연수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2013)는 2014년도 연수 추진 중점 방향으로 정책 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 과정 운영,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 내실화, 교원연수의 효율성 및 활용성 증대, 연수기관 평가 및 인가를 통한 질 관리를 설정하였다.

* 본 논문은 2014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의 일부임

** bjmouse@sen.go.kr

그러나 여러 학자들(김경화, 2002; 민복기, 2004; 박은혜, 2009; 신은수, 박은혜, 조운주, 이경민, 유영의, 이진화, 이병호, 2010; 양정희, 2005; 이윤식, 1993; 이은화, 배소연, 조부경, 2003)은 이러한 체제의 현직연수는 유치원 교원의 지속적인 전문성을 신장시키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유치원 교원 연수의 문제점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기회가 부족하고 교육과정의 체계성이 미비하며,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연수 프로그램 관리 및 통제적 측면, 우수강사의 확보 등이 부족하다(민복기, 2004; 신은수 외, 2010; 이윤식, 1993; 이은화 외 2003). 연수 방식에 따라 동일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과목명이 달라 혼선이 야기되고 이론중심, 강의중심의 교수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양정희, 2005; 이병진, 1996; 이윤식, 1993). 특히 유치원 현장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은 연수에 불참하는 원인이 된다(김은영, 2006; 민복기, 2004). 유치원 교사의 연수에 불참하는 원인은 연수를 개인의 책무로 인식하는 사회 통념(이윤식, 1993)때문이며 이는 유아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유치원 교원은 경력 및 직급에 따라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내용과 방법으로 연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신은수 외, 2010; 이병진, 1996) 연수 내용 선정시 교원들의 발달수준이나 요구보다 연수 기관이나 연수 주체의 의도대로 교육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 게다가 연령이나 경력이 다양한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가 획일적인 연수과정이 제공되고 있다(김한규, 1994; 박철희, 최화숙, 장인실, 2012; 신의남, 2002).

그동안 교육 학계에서는 이러한 현직연수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유치원 교원의 핵심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연구하고 있다. 유치원 교원 양성과 임용에 대한 연구(박은혜, 김수연, 김희진, 김희태, 박정선, 이대균, 이희경, 조부경, 조형숙, 황해익, 김미석, 김은영, 2010)에서는 유치원 교사의 핵심역량을 개발하여 양성교육과정, 유아교사 임용, 유치원 교원 평가 등의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연계 시키려는 방안이 모색되었다. 이와 더불어 여러 학자들(성병찬, 부재울, 한경임, 이경화, 2009; 신은수, 박은혜, 조운주, 이경민, 유영의, 이진화, 이병호, 2010; 신은수 외 2011; 조운주 외 2011; 박혜경; 2012)에 의해 유치원 교원의 핵심역량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현직 연수로 강화될 수 있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을 위한 역량은 21세기 사회에서 개인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소경희,

2007; OECD, 2003)이며 조직 환경 속에서 탁월하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행동 특성이다(이경진, 최진영, 장신호, 2009). OECD(2003) DeSeCo(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의 핵심역량을 규명한 프로젝트에서는 ‘핵심 역량(key competence)’이란 많은 가능한 역량 가운데 삶에 걸쳐서 반드시 필요한 몇 가지의 역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유치원 교원의 핵심역량은 모든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원이 교육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라고 정의될 수 있다(Chappel & Nye, 2007). 성병창 외(2009)는 유치원 교원의 핵심역량은 유치원 교사의 특성, 유치원 교사로서의 갖추어야 할 전문성, 유치원 교사의 역할, 유치원 교사로서의 자질 등을 포괄하는 핵심적인 직무수행 능력으로 보았다. 따라서 유치원 교원의 핵심역량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들에게 질 높은 환경, 경험, 관계를 제공하고 유아의 발달적 요구 충족과 우수한 교육과정 적용을 위하여 교원의 성공적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핵심역량의 기능을 살펴보면 대학은 우수 유치원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조직할 때의 기초자료로 사용하며(성병창 외, 2009; Nebraska Department of Education, 2009) 유치원 교원 개인은 성장과 발달을 위한 다양한 경로를 제공하는 구조를 구성해 주어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로드맵을 제공해준다(Bellm, 2008; Higher Education Early Childhood Task Force for the New Mexico Child Development Board, 2002). 더불어 유치원 교원의 핵심 역량은 원장과 기관운영자들에게 핵심역량에 근거하여 유치원 교원의 부족한 역량을 평가, 분석하여 부족한 역량을 발달시키도록 지원하는 계획과 전략을 구성하는 기초를 제공한다(신은수 외, 2011). 더 나아가 정부 기관과 정책 결정자들은 우수유치원 교사의 선발 방향 및 선발 지침의 기초자료로 제공되고(성병창 외, 2009) 교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지원시스템, 지원프로그램들을 구성하는 기준과 방향을 제시한다(Oklahoma Development of Human Services, 2008).

최근 우리나라에도 교원의 핵심역량이 중요시되면서 초·중등에서는 생애주기별로 핵심역량 강화 교육 과정이 개발되고 있다(김정원, 박소영, 김기수, 정미경, 2011; 조대연, 이성순, 조영진, 김건실, 김인성, 정미영, 2009). 최근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유치원 교원의 경력 및 직급별 역량 강화 및 활용 방안을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신은수 외, 2010; 조운주 외, 2011).

그러나 대부분의 교원 역량 관련 연구들은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이고 유치원 교원 각 수준의 핵심역량뿐 아니라 높은 경력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경력 발달 경로를 개발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예와 비교하면 미미한 실정이다. 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들은 핵심역량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직무연수 모형 체계나 모형에 근거한 핵심역량 강화 직무연수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 교원의 직무 연수 모형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형에 근거하여 핵심역량 강화 직무연수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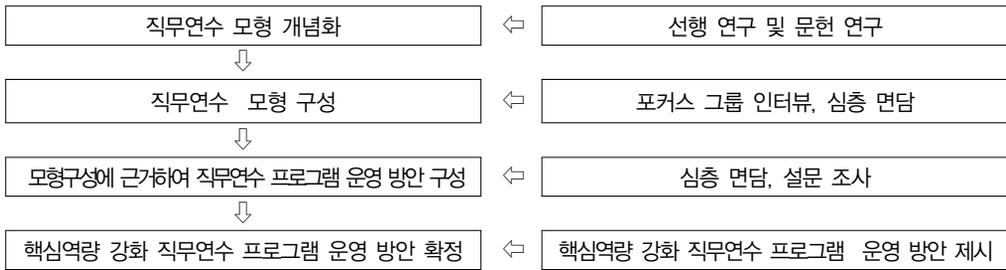
1. 유치원 교원의 직무연수 모형을 개발한다.
2. 개발된 모형에 근거한 핵심역량 강화 직무연수 프로그램의 운영 방안을 제시한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유치원 교원의 직무연수 모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교원 연수에 관련된 선행연구 및 모형 개발에 관한 문헌을 고찰하였다. 문헌 고찰 결과 유치원 교원들의 학력이나 경력, 승진체계, 직전 교육, 현직 교육 등에 있어서 유치원 교원만의 교원 발달 체계와 연수체계 맥락을 같이 하여 방향을 잡아 갈 필요가 있다. 또한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모형은 현실적 적용 가능한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으로서 실현 가능하고 행정체계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유치원 교원의 직무연수 모형 개발을 위하여 문헌연구와 유아교육 전문가인 8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연수기획·운영 전문가 10인의 심층면담이 이루어 졌다.

핵심역량강화 직무연수 프로그램 운영방안 제시는 연수 기획·운영 전문가 10인의 심층 면담과 초임교사, 경력교사, 부장교사 및 원감, 원장 총 430명에게 설문지 형식의 요구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전체적인 연구 과정과 방법을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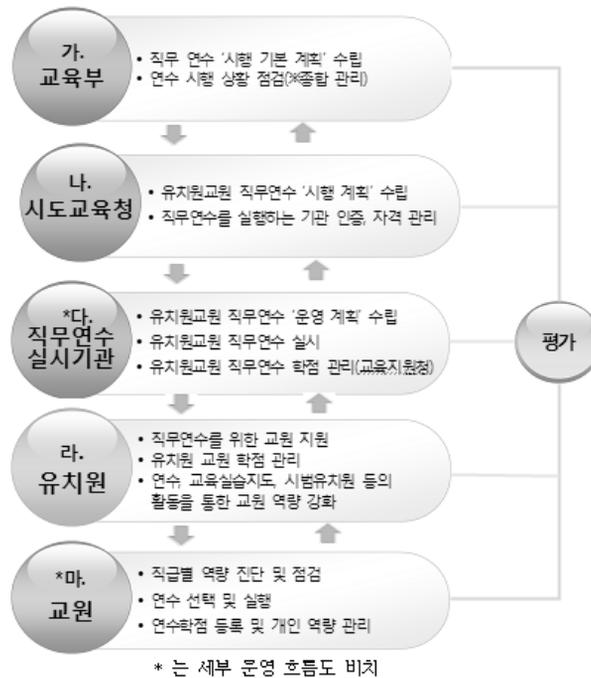


〈그림 1〉 직무연수 모형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방안 과정

Ⅲ. 연구결과

1. 직무연수 모형개발

유치원 교원의 직무 연수를 위한 법적·이론적 근거와 유아교육전문가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 연수 기획·운영 전문가의 면담에 근거한 유치원 교원의 직무연수 모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유치원 교원의 직무연수 모형

유치원 교원의 직무연수 모형은 교육부, 시·도교육청, 직무연수 실시기관, 유치원, 교원이 직무연수 모형의 주체가 된다. 개발된 직무연수 모형은 행정 체계로 교육부는 직무연수 시행 기본 계획을 세우고 직무연수 시행 상황을 점검하며 종합 관리한다. 시·도교육청은 유치원 교원의 직무연수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하며 시행 계획에는 공·사립 유치원 교원의 직무연수 이수 학점 관리를 적용한다. 직무연수 실시기관은 직무연수 운영 계획을 수립·운영하며 직무연수 운영은 연수 준비, 연수 실행, 연수 결과 처리 단계로 기획·운영한다. 지역교육청은 유치원 교원의 학점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체계화 한다. 유아교육기관은 유치원 교원이 직무연수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직무연수 학점 기록을 승인하여 관리 한다. 유치원 교원은 역량을 진단하고 점검하여 연수를 선택·신청 후 수강하고 연수이수 학점을 기록한다. 직무연수 모형의 주체인 교육부, 시·도교육청, 직무연수 실시기관, 유치원, 교원의 행정 체계는 유치원 교원의 직무연수 평가를 통하여 환류 되어 발전한다.

2. 핵심역량 강화 직무연수 프로그램 운영 방안

개발된 모형에 근거한 핵심역량 직무연수 프로그램 운영 방안은 연수 기획·운영 전문가 심층면담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초임교사를 예시로 제시하였다. 운영방안의 목표는 ‘초임교사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모색 한다’, ‘초임교사의 핵심역량 강화 직무연수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핵심역량을 강화한다.’이며 세부 목표를 첨가하였다. 내용은 유치원 교원의 7개영역 39개의 핵심역량 내용중 요구도 수준이 높은 영역과 내용을 선정하는 것이다. 교수 방법은 강의, 토의·토론, 워크숍, 외부기관 견학, 연구발표, 선배와의 만남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운영 형태는 집합연수, 원격연수, 집합연수와 원격연수의 혼합 연수 형태로 구성하며 총 연수 시간 편성은 15시간, 핵심역량 각 영역별 운영시간은 5시간 이내로 편성한다. 운영 시기는 학기 중으로 하고 직무연수 실시기관은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청, 특수분야 직무연수 지정기관 등이다. 개발된 핵심역량 강화 직무연수 프로그램은 초임교사의 요구에 의한 내용과 운영방법으로 제시하였지만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 나타난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유치원 교원의 직무연수 모형은 현행 유치원 교원의 직무연수 체제를 제도화하여 정비하고 관리하는 일 등의 행정체계의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교육의 이론·방법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배양을 위한 직무연수는 현직 교육으로 꼭 필요한 정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교원에게는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 주지 못하였다. 또한 행정지원 체계에 있어서도 직무연수에 대한 법의 적용을 사립 유치원 교원에게는 의무화하지 못하였다. 특히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최소기준인 1년 15시간 의무 연수 이수시간, 연수학점 등록, 연수비 지급 등은 사립유치원 교원에게는 행정체제로 흡수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유치원 교원의 직무연수 모형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교육부, 시·도교육청, 직무연수 실시기관, 유치원, 교원이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발전하는 모형이다. 유치원 교원의 직무연수 모형이 실행되면 교육부, 시·도교육청, 직무연수 실시기관, 유치원, 교원의 주체들이 직무연수 평가를 통해 환류 하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직무연수에 행정력을 발휘 할 수 있는 모형으로 활용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유치원 교원의 직무연수 행정체계가 정립되고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이 향상되어 유아교육의 질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둘째, 개발된 모형에 근거한 핵심역량 강화 직무연수 프로그램 운영 방안은 초임교사를 예시로 제시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유치원 교원의 직무연수는 교육과정의 체계성,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연수 내용 및 운영방법, 국가적 관리 및 통제, 우수강사 확보 등이 부족하였다. 특히 직급 및 경력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연수는 유치원 직급에 따른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신장시켜 주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 개발된 모형에 근거한 핵심역량 직무연수 프로그램 운영 방안은 핵심역량 내용을 코드번호화 하여 체계화 하고 유치원 교원 직급별 핵심역량 직무연수 이수 시간을 3년 180시간 의무화 하여 상위자격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연수 목표, 내용, 교수 방법, 운영 방법 등을 초임교사의 요구도에 의하여 운영방안을 적용함으로써 초임 교사에게 필요한 핵심역량 강화 직무연수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직무연수 실시 기관은 교사의 요구에 의한 직무연수

개설로 초임교사의 핵심역량을 강화 할 수 있다. 또한 이 예시 방법은 경력교사, 부장교사 및 원감, 원장에도 적용하여 핵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직무연수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유치원 교원의 직무연수 모형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직무연수 이수에 대한 의무 및 보상체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원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2조, 제33조에서는 교육성적으로, 동법 제41조 제3항 제3호의 직무연수 이수실적에서는 1년 60시간 4학점의 가산점으로 평정하여 승진점수에 반영하고 있다. 공립유치원 교원은 승진, 전보, 성과급 등에 연수 학점 이수가 사용되지만 사립유치원 교원은 직무연수 이수에 대한 의무성이나 보상 체계가 미비해 직무연수 참여를 위한 동기 부여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격연수 대상자 차출시 연수 학점 이수자를 우선으로 선정하는 제도나 승진, 포상, 유치원 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등에 연수학점 이수자에 대한 혜택이 적용되도록 다각도로 모색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유치원 교원의 직무연수 모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유치원 교원의 이해 및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유치원장은 직무연수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유치원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연수 참여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다. 유치원장들의 직무연수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 된다면 유치원 교원은 직무연수 참여가 용이할 것이므로 직무연수 참여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원장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유치원 교원의 연수에 대한 인식 부족이 개선되어야 한다. 연수의 본질이 교원의 전문적 신장이나 유치원 교육의 질적 성장임에도 불구하고 교수·학습방법 증진에만 초점을 맞추어 바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연수 참여를 선호하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따라서 직무연수 모형이 실제적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원장의 의식 전환과 유치원 교원의 연수 내용 선호 인식이 바뀌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행·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유치원 교원의 직무연수 모형의 실행을 위해서는 직무연수기관의 정비와 확대가 필요하다. 현행 유치원 교원을 위한 연수 학점화 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청, 특수분야 직무연수 지정기관, 원격연수기관으로 한정되어있다. 유치원 교원의 직무연수 모형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전문 연수기관 확대,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연수의 특수분야 직무연수 지정 의무화, 유치원 교원 연수를 관리하는 유치원 교원 직무연수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교육부(2013). 2014년도 교원 연수 중점 추진 사항.
- 교육과학기술부(2009). 유아교육선진화추진계획.
- 김경화(2002). 원격교육을 통한 유아교원연수의 활성화 방안. 한국영유아보육학, 31, 327-350.
- 김성재, 김후자, 이경자, 이선옥(2000). 포커스 그룹 연구방법. 서울: 현문사.
- 김은영(2006). 유치원 교사의 직무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원, 박소영, 김기수, 정미경(2011). 교사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민복기(2004). 사이버연수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 및 요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혜(2002).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유아교사의 지식. 서울: 창지사.
- 박은혜(2004). 유아교사론. 서울: 창지사.
- 박은혜(2009a). 유아교사론. 서울: 창지사.
- 박은혜, 김수연, 김희진, 김희태, 박정선, 이대균, 이희경, 조부경, 조형숙, 황해익, 김미석, 김은영(2010). 유아교육선진화 기반조성사업 5-유치원 교원 양성 및 임용 체제 개선 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박일환(2001). 교원연수의 문제와 개선방안. 사회교육연구, 10, 113-146.
- 박철희, 최화숙, 장인실(2012). 경기도 교육청의 교원연수체제 및 교원연수프로그램 모형 개발 연구.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12(40), 475-495.
- 박혜경(2012). 유치원 교사의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유아교육논집, 16(6), 189-211.
- 성병창, 부재울, 한경임, 이경화(2009). 교사의 핵심역량에 대한 교육공동체 인식 조사. 수산해양연구, 21(1), 78-95.
- 소경희(2006). 학교지식의 변화요구에 따른 대안적 교육과정 설계방향 탐색. 교육과정연구, 24(3), 39-59.
- 소경희(2007). 학교교육의 맥락에서 본 '역량' (competency)의 의미와 교육과정적 함의 연구. 교육과정연구, 25(3), 1-21.
- 신은수, 박은혜, 조운주, 이경민, 유영의, 이진화, 이병호 (2010). 유아교육선진화 기반조성사업 5-유치원 교원의 생애 주기별 역량강화 및 활용.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신은수, 박은혜, 조운주, 이경민, 유영의, 이진화, 이병호 (2011). 유치원 교원 핵심역량 구성 방향 탐색. 유아교육학논집, 15(5), 203-226.
- 신의남(2002).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현직 연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정희(2005). 교직 생애주기에 따른 초등교사의 현직 연수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진, 최진영, 장신희(2009). 초등교사의 핵심역량 수준 및 교직 경력별 수준차이 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26(3), 219-240.
- 이병진(1996). 교직 생애 주기에 따른 교원연수 제도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 34(1) 315-345.
- 이윤식(1999). 교사발달 관점에서 본 장학. 한국교사교육, 16(2), 1-27.
- 이윤식, 유상근, 최상근(1993). 교원연수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은화, 배소연, 조부경(2003). 유아교사론. 서울: 양서원.
- 전제상(2010). 교원연수체제 개선 요구 조사 분석. 한국교육논단, 9(1), 115-137.

- 조대연(2009). 교사발달단계별 직무 역량 요구 분석 : 서울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국교원교육연구, 26(2), 365-385.
- 조대연, 이성순, 조영진, 김건실, 김인성, 정미영(2009). 교사의 생애주기별 직무연수 교육과정 개발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 조운주(2001). 유아교육 실습지도교사 교육 프로그램 모형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운주, 최일선, 김은영 (2011). 유치원 교원 평가를 위한 포트폴리오 모형 및 평가준거 개발. 한국교원교육연구, 28(1), 37-63.
- Bellm, D. (2008). Center for the study of child care employment. San Francisco, CA: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 Chappel, M., & Nye, S. (2007). Nevada's core knowledge areas and core competencies for early care and education professionals. The Nevada Registry. Retrieved November, 15, 2007.
- Day, C. (2006). 열정으로 가르치기(박은혜, 이진화, 위수경, 조혜선 공역). 서울: 파란마음. (원서 2004 출판)
- Higher Education Early Childhood Task Force for the New Mexico Child Development Board (2002). Common core content and areas of specialization. Retrieved April 22, 2013, from <http://www.newmexicokids.org/Resource/Library/LaRistraPDF/cc%20indicator.pdf>
- Morgan, D. L. (2007). 질적 연구로서의 포커스 그룹(오상은, 은영, 손행미, 이명선 공역) 서울: 군자. (원서 2006 출판)
- Nebraska Department of Education (2009). Nebraska's Core Competencies for Early Childhood Professionals. Retrieved April, 10, 2013, from http://ect.education.ne.gov/projects_opp/core_comp/core_comp_0510.pdf
- OECD (1982). In-service education and training of teachers. Paris, France: OECD. OECD(2002). 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DeSeCo): Theoretical and conceptual foundations-Strategy paper. OECD Press.
- OECD(2003). 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Theoretical and conceptual foundations. (DeSeCo)-Summary of the final report. OECD Press.
- Quebec Ministry of Education (2001). Teacher training : Orientations professional competencies, Quebec, Canada: Quebec Ministry of Education.
- Seidman, I. (2009). 질적 연구 방법으로서의 면담(박혜준, 이승연 공역). 서울: 학지사.

유치원 초임교사 핵심역량의 타당화 연구

박은혜(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조운주(한국교통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I. 서론

유치원 교사는 유아의 발달을 긍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전공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유아교육 현장 경험과 실천을 통한 지속적인 전문적인 발달에 참여하는 등 핵심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Nebraska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2011). 유치원 교사의 핵심역량은 유아와 일하는 성인이 유아의 학습과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 성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NCCIC, 2009). 유치원 교사의 핵심역량은 유아들에게 질적인 환경, 경험, 관계를 제공하고, 유아들의 발달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맥락과 상황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거나 조직하여 적용, 실천할 수 있는 지식, 기술, 성향이다(신은수·박은혜·조운주·이경민·유영의·이진화·이병호, 2011).

핵심역량의 중요성 때문에 미국의 여러 주들은 유아교사 핵심역량을 개발하였다. 유럽의 일부 국가들도 유아교사를 핵심역량을 제시하고 있다(University of East London & University of Ghent, 2011). 싱가포르(Steiner, 2010)도 유아교사 핵심역량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치원 교원의 생애 주기별 핵심역량을 개발하였다(신은수, 박은혜, 조운주, 이경민, 유영의, 이진화, 이병호, 2010).

이처럼 유치원 교사의 핵심역량이 강조되면서 핵심역량의 구성방향,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일부 연구(신은수 외, 2011; 박혜경, 2012)가 수행되었으나, 개발된 핵심역량의 적합성이나 유용성을 검증하는 연구는 실행되지 않았다. 다양한 방법으

* wjcho@ut.ac.kr

로 개발된 핵심역량의 타당성을 검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성태제, 199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유치원교사의 핵심역량 중 가장 기초가 되는 초임교사 핵심역량의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유아교육선진화 기반조성사업 10 ‘유치원교원의 생애주기별 역량강화 및 활용(신은수 외, 2010)’의 설문조사 참여자로 전국 공·사립 유치원 교원 515명이다.

2.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유치원 초임교사의 핵심역량 내용의 중요도를 묻는 118개 문항(4점 척도)과 개인배경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 내용은 교직 인성 및 전문성 발달 23문항, 학습자에 대한 이해 7문항, 교육과정 운영 25문항, 평가의 이해 및 실행 16문항,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실천 20문항, 정보화 소양 개발 12문항, 유치원 운영 15문항, 개인배경 7문항(지역, 기관유형, 경력, 연령, 학력, 자격, 직위)으로 구성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유아교육선진화 기반조성사업 10 ‘유치원교원의 생애주기별 역량강화 및 활용(신은수 외, 2010)’ 보고서의 설문지 자료를 재분석하였다. 유치원 초임교사 핵심역량의 구인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 SPSS PC 18.0을 활용하여 핵심역량 영역별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KMO(Kaiser-Meyer-Olkin)와 Bartlett 구형성 검증을 실시하였고, 요인 추출은 주축요인 방법, 요인회전은 프로맥스 분석과 사각회전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4. 연구절차

설문조사는 전국 공·사립유치원에 협조를 요청하여 2010년 8월 20일~10월 8일까지

메일, 방문, 인터넷 서버(<http://agency.wsurvey.net/survey/answer.php?sidx=594>)를 통해서 수집하였다(신은수 외, 2010). 구인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2013년 8~11월에 걸쳐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유치원 초임교사 핵심역량의 구인타당도

1) 교직인성 및 전문성 개발

‘교직인성 및 전문성 개발’ 영역의 요인분석을 위한 KMO(.93)와 Bartlett 구형성 검증($\chi^2=10785.40$, $df=253$, $p < .001$)을 수행한 결과 요인분석에 적합하였다. 요인분석에서 4개 요인이 추출되었고, 공통성 값은 .38이상이고 요인부하량은 .38~.98로 유의하였다. 요인분석에 기초하면, ‘교직인성 및 전문성 개발’ 영역의 4개 범주(교직에 대한 열정 소유, 창의성 개발, 반성적 자기 개발, 교직윤리함양) 23개 핵심역량 중 ‘교직에 대한 열정’ 범주와 ‘창의성 개발’을 통합시키고, ‘교직윤리 함양’ 범주를 ‘교직윤리’와 ‘근무자세’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2) 학습자에 대한 이해

‘학습자에 대한 이해’ 영역의 요인분석을 위한 KMO(.83)와 Bartlett 구형성 검증($\chi^2=2778.29$ $df=21$ $p = .000$)을 수행한 결과, 요인분석에 적합하였다. 요인분석에서 2요인이 추출되었고, 공통성 값(.55이상)과 요인부하량(.65~.95)은 유의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1개 범주를 ‘유아발달 특성 이해’와 ‘특수아 이해’의 2개 범주 7개 내용으로 분리가 필요하였다.

3)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운영’ 영역의 요인분석을 위한 KMO(.95)와 Bartlett 구형성 검증($\chi^2=12485.91$ $df=300$ $p < .001$)을 수행한 결과, 요인분석에 적합하였다. 요인분석에서 4요인이 추출되었고, 공통성 값은 .55이상이고 요인부하량은 역량38을 제외하면 .40 이상으로 유의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교육과정 운영’ 영역은 2개 범주(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및 실행, 교수학습에 대한 이해 및 실행) 25개 내용을 4개 범주(국가수준 교육과정 이해, 교육과정 이론 이해, 교수학습 이해 및 실행)로 조정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역량38은 삭제가 필요하였다.

4) 평가의 이해와 실행

‘평가의 이해와 실행’ 영역의 요인분석을 위한 KMO(.95)와 Bartlett 구형성 검증($\chi^2=8590.44$, $df=120$, $p < .001$)을 수행한 결과, 요인분석에 적합하였다. 요인분석에서 2개 요인이 추출되었고, 공통성 값(.65이상)과 요인부하량(.55~.93)이 유의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2개 범주(평가의 이해 및 실행, 평가의 활용) 16개 내용 모두 타당하였다.

5)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실천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실천’ 영역의 요인분석을 위한 KMO(.93)와 Bartlett 구형성 검증($\chi^2=11720.59$, $df=190$, $p < .001$)을 수행한 결과, 요인분석에 적합하였다. 요인분석에서 3개 요인이 추출되었고, 공통성 값(.65이상)과 요인부하량(.52~.94)이 유의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3개 범주(공동체 의식 및 태도 형성, 관계형성을 위한 의사소통 기술 형성, 공동체 형성 및 지원)에서 ‘공동체 의식 및 태도 형성’과 ‘관계형성을 위한 의사소통 기술 형성’을 하나의 범주인 ‘공동체 의식 및 의사소통 기술’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공동체 형성 및 지원’ 범주를 ‘부모와의 협력’, ‘지역사회 및 국가와의 협력’ 2개 범주로 나누어 총 3개 범주 20개 내용으로 수정이 필요하였다.

6) 정보화 소양

‘정보화 소양’ 영역의 요인분석을 위한 KMO(.91)와 Bartlett 구형성 검증($\chi^2=6919.77$, $df=66$, $p < .001$) 수행 결과, 요인분석에 적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공통성 값(.66)과 요인부하량(.46~.99)은 유의하였다. 요인분석 결과에서 ‘정보화 소양 영역’의 2개 범주(정보화 기술 이해, 정보화 기술 활용) 12개 내용은 타당하였다.

7) 유치원 운영

‘유치원 운영’ 영역의 요인분석을 위한 KMO(.90)와 Bartlett 구형성 검증($\chi^2=8144.97$

df=105, $p < .001$) 수행 결과, 요인분석에 적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공통성 값(.61이상)과, 요인부하량(.58~.99)은 유의하였다. 요인분석 결과에서 '유치원 운영' 영역은 2개 범주(교실문화 조성, 문서작성 및 관리)에서 '교실문화 조성' 범주를 '교실운영 및 유아와의 관계형성'과 '유아행동 지도'로 나누어 3개 범주(교실운영 및 유아와의 관계형성, 유아행동 지도, 문서작성 및 관리) 15개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2. 구인타당도에 근거한 유치원 초임교사의 핵심역량

유치원 초임교사 핵심역량의 영역별 요인분석에 의한 구인타당도 결과, 역량 38을 제외한 모든 역량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범주의 통합 및 분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역량38을 삭제하고 일부 범주를 조정하여 7영역, 16범주, 118 내용에서 7영역, 20범주, 117내용으로 수정 되는 것이 필요하였다.

IV. 논 의

이상의 결과에 근거하여 초임교사 핵심역량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 초임교사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차원의 노력 뿐 아니라 유아교육기관 내에서, 그리고 기관들의 상호 협력에서, 더 나아가 정부 차원에서 핵심역량을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유치원 초임교사가 핵심역량을 갖춘 유능한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교육이나 연수가 아니라 지속적인 지원과 장학이 필요하다. 셋째, 유치원 교사의 전문적 역량의 기초는 양성교육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므로 적합한 교육기간과 교육의 질이 보장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박혜경 (2012). 유치원 교사의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유아교육학논집, 16(6), 189-211.
- 성태제 (1995). 신뢰도와 타당도. 서울: 양서원.
- 신은수 · 박은혜 · 조운주 · 이경민 · 유영의 · 이진화 · 이병호 (2010). 유치원 교원의 생애 주기별 역량강화 및 활용. 유아교육선진화 기반조성사업 10.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_____ (2011). 유치원 교원 핵심역량 구성 방향 탐색. 유아교육학논집, 15(5), 203-226.
- National Child Care Information Center (2009). Early childhood professional development systems toolkit. Retrieved from http://nccic.acf.hhs.gov/pubs/goodstart/pd_section4.pdf. (2013. 4. 22. 인출)
- Nebraska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2011). Nebraska early childhood education career advising guide. http://nebraskaaeyc.org/files/2009/08/Nebraska_Career_Advising_Guide_Dec_201111.pdf. (2013. 9. 13. 인출)
- Steiner, L. (2010). Using competency-based evaluation to drive teacher excellence: Lessons from Singapore. NC: Public Impact.
- University of East London & University of Ghent (2011). Core competence requirement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London & Ghent: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Education and Culture.

Young Scholar Session (Ⅱ)

-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과 성격 및 양육 신념이 어머니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
이미영(해와 달 어린이집 원장)
이현옥(성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 북미 거주 한국 이민자 가정을 중심으로
김형미(한국성서대학교 영유아보육과 조교수)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과 성격 및 양육 신념이 어머니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

이미영(해와 달 어린이집 원장)**

이현옥(성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I. 서론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부모 역할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자녀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게 되고, 타인과 관계를 맺는 사회화의 기초를 형성하며, 인성발달, 지적발달, 사회정서발달, 신체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김지현·전예화, 2008; Erikson, 1950). 특히 어머니는 세상에 태어나 처음 접하게 되는 사람으로 자녀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자녀가 영유아기에 어머니로부터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면 감정조절 및 감정통제의 결핍, 인내심, 불쾌 자극에 대한 참을성 부족 등으로 인성발달, 사회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Bowlby, 1944; Freud, 1933; Sullivan, Thomson, Wright, Gross, Spady, 1982 ; Harlow, 1958; Erikson, 1950).

따라서 영유아기 자녀발달에 대한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바람직한 어머니 역할수행에 있어서 어머니가 자녀에게 무엇을 주려 하기 이전에 어머니 자신의 개인특성에 따른 어머니 역할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어머니가 스스로 자신의 개인특성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면 어머니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어머니 역할수행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 현재 직면한 문제들을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유

* 본 논문은 2014학년도 성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의 일부임.

** mylee235@hanmail.net

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어머니 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개인특성변인인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과 성격 및 양육신념에 따른 어머니 역할수행의 차이를 알아보고,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과 성격 및 양육신념 가운데 어머니 역할수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과 성격 및 양육신념에 따라 어머니 역할수행은 차이가 있는가?
2.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과 성격 및 양육신념이 어머니 역할수행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와 경기남부 2개시(C시, T시)에 거주하는 만 2세~만 5세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55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도구는 어머니 역할수행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 아동기 애착경험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 성격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 양육신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가 사용되었다. 어머니 역할수행을 측정하기 위해 강석규(2004)가 Smith, Ballard와 Barham(1989)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구성한 부모역할수행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친정부모와의 아동기 애착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Hazan과 Shaver(1992)가 제작한 성인애착 척도(Adult Attachment Scale, AAS)를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어머니의 성격측정은 Goldberg(1999)의 IPIP(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 성격척도를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양육신념 측정은 안지영(2001)이 개발한 양육신념 척도를 사용하였다. 연구를 위해 각 측정도구 별로 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만 2세~만 5세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 3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서울시와 경기남부 2개시(C시, T시)에 소재한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만 2세~만 5세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설문지 조사를 위해 사전에 연구자가 유아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설문지의 배부·회수 협조를 받았다. 완성된 설문지는 영유아를 통하여 담임교사가

수거하였으며 배부된 670부 중 총 559부(83.4%)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 요인분석, t 검증, 일원변량분석,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친정아버지와 친정어머니와의 아동기 애착경험이 안정적인 어머니가 훈육자의 역할, 사회화 과정의 역할, 인성형성의 역할, 건강과 위생담당자의 역할, 보호자의 역할, 표현적·정서적 역할, 학습기회와 지적자극 제공자의 역할 모든 하위요인에서 역할수행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성격에서는 신경증이 낮은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수행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외향성, 성실성, 친화성이 높은 어머니가 모든 하위요인에서 어머니 역할수행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개방성이 높은 어머니는 보호자의 역할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에서 어머니 역할수행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신념에서는 지적 성취강조 신념이 높은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수행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주의신념이 높은 어머니가 훈육자의 역할에서 어머니 역할수행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환경주의 신념이 높은 어머니는 훈육자의 역할에서 학습기회와 지적자극 제공자의 역할에서 어머니 역할수행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성숙주의 신념이 높은 어머니들이 학습기회와 지적자극제공자의 역할에서 어머니 역할수행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과 성격 및 양육신념 가운데 어머니 역할수행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은 어머니 성격 중 친화성이었으며, 그 다음은 개방성과 성실성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과 성격 및 양육신념에 따른 어머니 역할수행의 차이를 알아보고,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과 성격 및 양육신념이 어머니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결과분석을 통한 논의

를 하면, 첫째,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과 성격 및 양육신념에 따라 어머니 역할수행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교육지원프로그램으로 어머니의 아동기 친정부모와의 애착경험과 어머니의 성격 및 어머니의 양육신념의 내용을 다룰 필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어머니들이 아동기에 경험한 친정부모와의 애착경험과 어머니의 성격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신념이 현재 영유아기 자녀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역할과의 관계를 이해하게 된다면 어머니 역할을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절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둘째, 어머니의 성격 중 친화성은 어머니 역할수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친화성은 자녀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바람직한 어머니 역할수행을 위해 전통적 어머니 역할인 표현적·정서적 역할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석규(2004). 부모의 역할수행과 유아의 인성발달의 관계.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지현·전예화(2008). 유아의 애착표상과 또래 인기도 및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부산유아교육학회지, 17(2), 25-43.
- 안지영(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Bowlby, J. (1944). Forty- four juvenile thieves : Their characters and home-life. II.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 Erikson, E.(1950).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Freud, S. (1933). New introductory lectures on psycho-analysis. London: Hogarth.
- Goldberg(1999). A-broad-bandwidth, public-domain, personality inventory measuring the lower-level factors several five-factor models. Personality Psychology in Europe, 7, 7-28.
- Harlow, H.(1958). The nature of love. American Psychological, 673-685.
- Hazan, C., & Shaver, P. R.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Sullivan, T. Thompson K. Wright R. Gross G. Spady D. (1982), Social Problems, Wiely,.
- Smith, A. B. Ballard, K. D.& Barham, L. J(1989). Preschool Children's Perceptions of Parent and Teacher Role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4, 523-532.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 북미 거주 한국 이민자 가정을 중심으로*

Functional Communication Training for Korean Immigrant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김형미(한국성서대학교 영유아보육과 조교수)**

I. Introduction

Functional communication training (FCT) is one potentially beneficial intervention for such immigrant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challenging behaviors. Through FCT, children learn to use appropriate communication responses in lieu of challenging behaviors, resulting in a decrease of that behavior. FCT is one of the most generally used intervention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Matson, Dixon, & Matson, 2005), although there are other behavioral intervention strategies for treating challenging behavior in various populations as well (Kahng, Iwata, & Lewin, 2002; Sigafoos, Arthur, & O'Reilly, 2003). FCT has been implemented by identifying the challenging behavior's function for the individual and teaching appropriate communication strategies that serve the same function, thus replacing the challenging behavior (Durand, 1990; Reichle & Wacker, 1993).

Research on FCT for culturally and linguistically diverse children is needed to extend the literature on FCT and especially to respond to the increase in the population of Korean immigrants in the U.S. The first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whether FCT is an

* 본 논문은 2012학년도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대학원 박사학위논문의 일부임.

** hmksp@bible.ac.kr

effective intervention to reduce challenging behaviors and increase communication response in Korean immigrant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Maintenance and generaliz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FCT intervention are also evaluated. The second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tend the social validity of FCT by examining the perspectives on FCT of the participating mothers who implemented FCT intervention with their children, as well as the perspectives of other participating Korean parents.

II. Methodology

1. Participants

Three Korean immigrant mothers and their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participated in this study.

Peter was a 7-year-old boy who had been diagnosed with developmental delays. He started speaking several simple one-word such as 'mom', 'bye', and 'hi' at the beginning of this study. Peter frequently engaged in challenging behavior with aggression, tantrum, and destruction.

Dustin was a 5-year-old boy who had been diagnosed with autism. He did not speak any one-word utterances. Dustin's challenging behavior included tantrum, snatching, grinding teeth, self-injury, and stereotypical behavior.

Hans was a 7-year-old boy who had been diagnosed with autism. He uttered simple one-word or two-word to requests. Hans engaged in challenging behavior including self-injury, aggression, leaving the seat, elopement, and stereotypical behavior.

2. Settings & Implementers

All assessment, intervention, follow-up, and generalization procedures were conducted by each child's mother in their homes. The mothers selected specific home areas and routines that had specific needs for family members and also where their children frequently engaged in challenging behavior.

3. Response Definitions

1) Dependent Variables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the percentages of the intervals of the challenging behaviors and the percentages of the intervals of the communication responses. The data on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collected using a 10-second partial interval method.

2) Independent Variables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the percentages of the reinforcements per child's communication response and the percentages of the intervals of mand prompts.

4. Data Collection & Interobserver Agreement

All sessions were videotaped. The author and another observer independently viewed videotapes of sessions and collected data of the variables using codes designed by the author. The data were collected with a 10-second partial interval procedure and recorded on a coding sheet designed specifically for this study. Another assistant researcher watched 30% of all videotaped sessions across whole phases and collected data using the codes to obtain reliability between two observers.

5. Experimental Design

Function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a multi-element design to identify a function of challenging behavior. A multiple probe design across participants was conducted including the baseline, FCT, and follow-up. Generalization sessions were also conducted using a multiple probe design across participants to examine the generalization of the FCT intervention effect.

6. Experimental Procedure

1) Assessment & Intervention

All procedures were conducted in the participants' home settings. The author trained and coached the mothers to implement functional analysis, baseline, FCT intervention, follow-up, and generalization.

2) Social Validity

Social validity data were collected to investigate perceptions of the Korean moth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s well as perspectives of other Korean parents who were not familiar with FCT.

III. Results

1. Functional Communication Training

All three children engaged in high percentages of intervals of challenging behavior and did not use some communication response in baseline. After implementing the FCT intervention, they gradually increased percentages of intervals of communication response and challenging behavior simultaneously decreased. All the children maintained communication responses learned in the FCT and decrease in challenging behavior in follow-up. All children generalized their communication response learned in the FCT intervention to another home setting or activity. Reduction in challenging behavior was also observed in generalization across the three children.

2. Social Validity

1) Behavioral Intervention Rating Scale

All the mothers reported that the FCT intervention was acceptable. In addition, all the

mothers rated the FCT intervention as effective with challenging behavior.

2) Social Validity Video Observations

Thirty two Korean parents independently reviewed three video sections of all the children. They completed the Likert type rating scales after watching each video section. The rating scales consisted of three sentences asking about behavior's severity, danger, and requirement for restraint. The Korean evaluators reported higher means of rating scales for the video sections selected from the baseline than they did on means of rating scales for the video sections selected from the FCT intervention.

IV. Discussion

Korean immigrant children and families present a population group for achieving positive outcomes of FCT in children's behaviors and communications. Since Carr and Durand (1985) introduced FCT, numerous FCT studies have reported optimistic results for the participants' behaviors and communications (Mirenda, 1997).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FCT was effective in reducing challenging behaviors and in increasing communication responses and that these effects were maintained after 5 months. The children in this study generalized their communication responses to another home setting, but the generalization occurred differently across the children.

Perspectives on challenging behaviors were very different across the Korean immigrant parents. Each evaluator reported very different perspectives on challenging behaviors, but this result was based on responses of a small group of Korean immigrant parents from a particular area.

참고문헌

- Carr, E. G. & Durand, M. V. (1985). Reducing behavior problems through functional communication training. *Journal of Applied Behavior Analysis*, 18, 111-126.
- Durand, V. M. (1990). *Severe behavior problems: A functional communication training approach*. New York: Guilford Press.
- Kahng, S., Iwata, B. A., & Lewin, A. B. (2002). Behavioral treatment of self-injury, 1964 to 2000. *American Journal on Mental Retardation*, 107, 212-221.
- Mirenda, P. (1997). Supporting individuals with challenging behavior through functional communication training and AAC: Research review. *AAC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13, 207-225.
- Matson, J. L., Dixon, D. R., & Matson, M. L. (2005). Assessing and treating agg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 20-year overview. *Educational Psychology*, 25, 151-181.
- Reichle, J., & Wacker, D. P. (1993). *Communicative alternatives to challenging behavior: Integrating functional assessment and intervention strategies*. (Vol. 3) Baltimore: Paul Brookes Publishing Company.
- Sigafoos, J., Arthur, M., & O'Reilly, M. (2003). *Challenging behavior and developmental disability*. London; Philadelphia: Wiley.

Young Scholar Session (Ⅲ)

- 국가수준 유치원교육과정의 텍스트 연결망 분석: 놀이 관련어를 중심으로
박선희(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 보육교사를 위한 영아급사증후군 예방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연구
김일옥(삼육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박현정(김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국가수준 유치원교육과정의 텍스트 연결망 분석: 놀이 관련어를 중심으로*

박선희(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I. 서론

국가수준 유치원교육과정은 전국의 유치원에서 편성·운영해야 할 교육과정의 공통적이며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국가가 유아들에게 가르칠 교육의 전반적인 구조를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알리는 문서이다. 유아들에게 공통적인 수준으로 교육의 질을 보장하여 교육하겠다는 정부의 공약이므로 각 유치원에서는 국가수준 유치원교육과정에 준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박은혜, 신은수, 2012). 유치원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교사는 전문성과 자율성을 전제로 하여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읽고 해석한 뒤 적용하면서 유아를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백남진, 2013; 이병호, 2009; 정광순, 2012). 따라서 유치원교육과정 문서는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어야 한다.

실제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유아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놀이를 교육과정에 어떻게 통합시켜야 할지이다. 교사들은 아동 중심, 흥미 중심, 생활 중심과 더불어 놀이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대부분 인식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갈등하고 있다(김희진, 2013; 서혜정, 김은영, 2012; 이성희, 고을심, 사영숙, 2009; Wisneski & Reifel, 2012). 놀이에 대한 이분법적 의견의 영향으로 교사가 놀이에 전혀 개입하지 않아 유아가 어떠한 성취와 결과를 달성했는지 확인하지 못하거나, 자유선택활동 시간은 거의 없고 대소집단 활동 위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구조화된 활동지를 많이 제시하는 등 놀이와 교육과

* 본 논문은 2014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의 일부임.

** 1204psh@gmail.com

정이 통합되지 못한 실체가 교육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Kwon, 2004; Miller & Almon, 2009).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수준 유치원교육과정 문서에서 놀이 관련어가 역사적으로 어떠한 변천을 겪어왔는지 텍스트 연결망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수준 유치원교육과정 문서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무역사성과 타성의 요인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Beyer & Apple, 1998; Kliebard, 1992; Tanner, 1983).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의 질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는지 점검하고 검토함으로써 실제 교육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Cullingford & Oliver, 2001). 다음으로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된 텍스트를 연구함으로써 교육과정의 형식과 구성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속에 포함된 핵심 개념들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파악할 수 있으므로(Pinar, Reynolds, Slattery, & Taubman, 2001) 내용 분석의 장점을 차용하고 단점을 보완한 텍스트 연결망 분석을 통하여 국가수준 유치원교육과정 문서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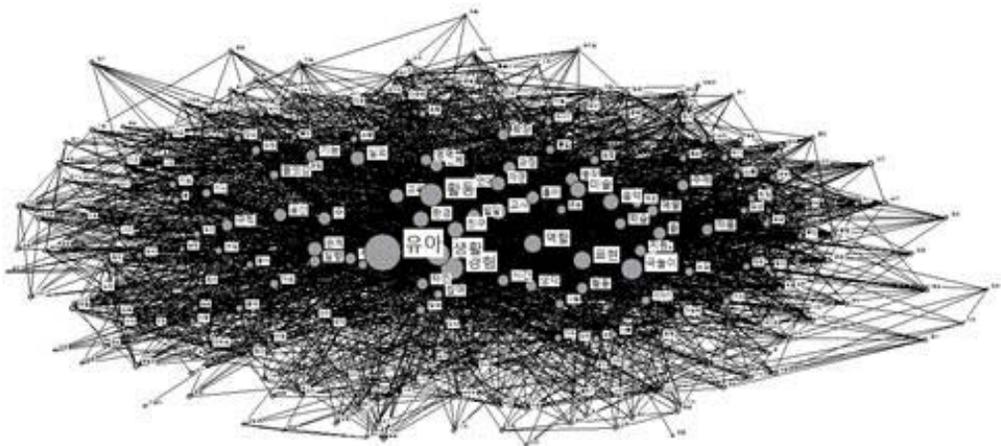
제 1차 유치원교육과정부터 현재 시행 중인 3-5세 누리과정까지 각 유치원 교육과정의 원문 및 해설서에 제시된 전체 텍스트를 대상으로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놀이’가 포함된 문장을 추출하여 관련 없는 단어를 제외하고 동일한 의미이면서 다른 형태의 단어를 통일시키는 등 데이터 정제 작업을 시행하였다. 연결망 분석을 위하여 공출현 행렬 기법을 이용하여 행렬 자료를 만든 뒤 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결망 시각화, 연결망 핵심 개념 도출 등의 절차를 따랐다.

연구 대상 자료에서 ‘놀이’ 및 ‘놀이’ 관련 단어가 포함된 문장을 추출한 뒤 지능형 형태소 분석기(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2011)를 이용하여 어절 및 형태소를 분석하여 명사형 단어를 선별하였다.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결망 분석을 위한 행렬 자료로 변환한 뒤 UCINET과 Pajek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결망 분석을 시행하였고 전체 결점 수, 연결선의 수, 밀도, 중심화 지수, 중앙성 값을 산출하였다. Netdraw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결망을 시각화 하고 결과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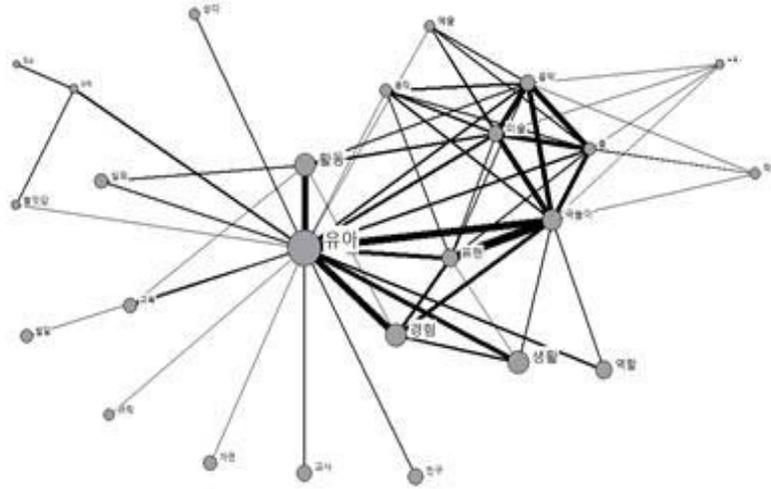
Ⅲ. 연구결과

1.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에 나타난 놀이 관련어의 각 시기별 특징

국가수준 유치원교육과정에 나타난 놀이 관련어의 각 시기별 특징 가운데 일부인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 대한 텍스트 연결망을 시각화한 결과는 <그림-1>과 같고, 간소화하여 제시한 연결망은 <그림-2>와 같다. <그림-1>, <그림-2>, <표-1>의 결과를 토대로 연결망과 중앙성 값에 대해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결점의 크기가 가장 큰 '유아'는 연결정도 중앙성 값이 가장 높으므로 '놀이'를 가장 많은 정도로 설명하고 있는 주요어이다. '유아'와 보다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주요어는 '극놀이', '활동', '경험', '생활'이다. 결점의 크기가 다음으로 큰 '극놀이' 또한 '놀이'를 설명하고 있는 주요어이다. '극놀이'와 보다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주요어는 '유아', '미술', '음악', '춤', '표현', '경험'이다. 즉,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서는 '놀이'를 설명할 때, 놀이 활동의 한 종류인 극놀이가 주로 강조되고 있고, 예술·표현 측면의 놀이 내용 및 방법이 편중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바로 직전 차시인 2007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의 경향과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그림-1>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놀이 관련어 연결망



〈그림-2〉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놀이 관련어 연결망(간소화)

〈표 1〉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놀이 관련어 중앙성

순위	연결정도 중앙성	사이 중앙성		
1	유아	2,1834	유아	0.2865
2	극놀이	1,6245	극놀이	0.0515
3	미술	1,1485	경험	0.0500
4	음악	1,1004	생활	0.0493
5	경험	1,0655	활동	0.0476
6	활동	1,0611	역할	0.0249
7	표현	1,0568	표현	0.0248
8	춤	1,0087	음악	0.0185
9	생활	0,7511	미술	0.0185
10	동작	0,6900	교사	0.0179

2.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에 나타난 놀이 관련어의 분포와 구조의 역사적 변천

국가수준 유치원교육과정에 나타난 놀이 관련어의 분포와 구조의 역사적 변천에 대한 연구 결과 중 일부를 〈표 2〉와 같이 제시하였다. 연결정도 중심화 지수와 사이 중심화 지수의 도출 결과, 누리과정 문서에서 ‘놀이’를 설명할 때 어느 일부분에 집중

되어 있으면서 각 주요어 간 범주가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결망의 결점 수, 연결선의 수가 매우 많고 밀도가 가장 높았던 누리과정의 중심화 지수가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은 많은 단어로 조밀한 연결망의 형태로 ‘놀이’를 설명하고 있으면서 어느 일부분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즉,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서는 ‘놀이’를 극놀이와 예술 및 표현 부분에 국한되어 설명하고 있었고, 이러한 정도가 다른 시기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2〉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의 놀이 관련어 연결망 중심화 지수의 역사적 변천

항목	시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2007	누리
연결정도 중심화 지수	13.41%	5.19%	9.70%	6.37%	4.90%	14.11%	6.61%	24.80%
사이 중심화 지수	21.99%	0.69%	34.76%	28.40%	22.45%	37.08%	18.18%	2.62%

※ 1, 2차는 해설서 미포함

IV. 논의 및 결론

각 시기별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놀이 관련어의 텍스트 연결망 분석 결과 교육과정에서 ‘놀이’를 중심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시대에 따라 달라졌음을 알 수 있었다. 놀이를 하는 대상인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목표 및 원리인 ‘학습’(2차)과 ‘발달’(3차), 내용인 ‘안전’(1차), ‘음악’, ‘미술’, 교수·학습 방법인 ‘활동’, ‘극놀이’(6차, 2007, 누리), 자료 및 환경인 ‘놀이감’(5차) 등이 ‘놀이’를 주요하게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 강조되지 않은 부분은 놀이의 관찰 및 평가이다. 놀이는 유아를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유아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인 만큼 교육과정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겠다(Freeman, Decker, & Decker, 2013; Jackman, 2012). 또한 ‘학습’은 제 2차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잠깐 등장했다가 이후 강조되지 않았다. 유아가 학습할 수 있는 중요한 상황과 도구로써 놀이가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학습과 놀이의 관계가 꾸준히 강조되어 왔으나, 학부모들은 이에 동의하지 못하고 교사는 어떤 방법으로 학습과 놀이를 연계시켜야할지 모른다(Nutbrown, Clough, & Selbie, 2008; Wong, Wang, & Cheng, 2011). 학습 준비도에 대한 오해와 놀이가 가지는 부정적인 사회·문화적 인식을 개선

시킴을 위하여 놀이와 학습에 대한 사회적 담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과정 문서에서 놀이를 설명할 때 학습을 주요하게 등장시켜 학부모에게는 놀이의 가치를 알리고 교사들에게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줄 수 있어야 하겠다.

다음으로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의 놀이 관련어 텍스트 연결망 분석에서 나타난 주요어의 분포와 구조의 역사적인 변천을 살펴본 결과, 타 시기에 비하여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가장 일부분에 집중되어 '놀이'를 설명하고 있는 연결망의 구조를 보였다. 그런데 집중된 부분이 극놀이와 예술 및 표현으로 전체 교육과정의 내용에서 볼 때 매우 편중된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특정 활동을 강조한다면 유아들은 표피적인 활동만을 경험하고 교사들도 의미 있는 교육과정을 구성하지 못할 것이다. 다양한 놀이의 방법과 가치에 대해 인식하고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놀이 시 개입 전략, 놀이와 교육과정의 통합, 교수 원리 및 지침 등을 제시하여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겠다. 교육과정 개정 앞서 철학적, 역사적, 비판적 연구를 통한 당대의 논쟁점을 검증하고, 기초 연구 및 현장의 실태 조사 연구가 선행되어 교육과정의 수권자인 교사에게 도움이 되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유아들에게 긍정적인 교육의 효과를 줄 수 있어야겠다.

참고문헌

- 김희진(2013). 자유선택활동 시간의 놀이 계획-실행-평가 관행에 대한 비판적 탐색. *교육과학연구*, 44(3), 1-17.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2011). 21세기 세종계획 최종 성과물 안내서: 지능형 형태소 분석기.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 박은혜, 신은수(2012a). 국제표준교육분류 0단계(ISCED 0단계)에 기초한 누리과정의 유아교육제도로서의 의미. *유아교육학논집*, 16(2), 341-356.
- 백남진(2013). 교사의 교육과정 해석과 교육과정 잠재력. *교육과정연구*, 31(3), 201-225.
- 서혜정, 김은영(2012). 자유선택활동시간에 교사 역할을 찾아가는 현장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6(5), 163-188.
- 이병호(2009). 국가교육과정기준 문서 체제 개선방안. *교육과정연구*, 27(4), 21-45.
- 이성희, 고을심, 사영숙(2009). 놀이와 교육과정 연계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유아 교사 인식과 현황.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6(4), 23-44.
- 정광순(2012). 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문해력. *통합교육과정연구*, 6(2), 109-132.
- Beyer, L. E., & Apple, M. W. (Eds.). (1998). *The curriculum: Problems, politics, and possibilities*.

-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Cullingford, C., & Oliver, P. (Eds.). (2001). *The national curriculum and its effects*. Hampshire: Ashgate Publishing Limited.
- Freeman, N. K., Decker, C. A., & Decker, J. R. (2013). *Planning and administering early childhood programs*. Boston: Pearson.
- Jackman, H. L. (2012). *Early education curriculum: A child's connection to the world*. Belmont, CA: Wadsworth, Cengage Learning.
- Kliebard, H. M. (1992). Constructing a history of the American curriculum, *Handbook of research on curriculum*, 157-184.
- Kwon, Y. (2004).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Korea: Discrepancy between National Kindergarten Curriculum and practices. *Education Review*, 56(3), 297-312.
- Miller, E., & Almon, J. (2009). *Crisis in the kindergarten: Why children need to play in school*. College Park, MD: Alliance For Childhood.
- Nutbrown, C., Clough, P., Selbie, P. (2008). *Early childhood education: History, philosophy, and experience*. London: SAGE Publications.
- Pinar, W. F., Reynolds, W. M., Slattery, P., & Taubman, P. M. (2001). 교육과정 담론의 새 지평(김복영, 박순경, 조덕주, 석용준, 명지원, 박현주, 소경희, 김진숙 공역). 서울: 원미사. (원서 1995년 출판)
- Tanner, L. N. (1983). Curriculum history as usable knowledge. *Curriculum Inquiry*, 12(4), 405-411.
- Wisneski, D. B., & Reifel, S. (2012). The place of play in early childhood curriculum. In N. File, J. J. Mueller, & D. B. Wisneski (Eds.), *Curriculum in early childhood education*(pp. 175-187). New York, NJ: Routledge.
- Wong, S., Wang, Z., & Cheng, D. (2011). A play-based curriculum: Hong Kong children's perception of play and non-pla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Learning*, 17, 165-180.

보육교사를 위한 영아급사증후군 예방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연구

김일옥(삼육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박현정(김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영아급사증후군이란(Sudden infant death syndrome, SIDS), ‘영아돌연사증후군’이라고도 불리는데, 12개월 이하 영아가 잠든 이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고, 현장조사와 부검 결과에도 그 원인이 규명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Hockenberry & Wilson, 2011). 대개 영아급사증후군의 95%가 생후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서 발생한다(안효섭, 2009).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영아급사증후군으로 사망한 경우가 2005년 75명에서 2012년 99명으로 7년간 32%가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13). 또한, 어린이집에서 영아가 수면 중 돌연 사망하는 사고도 최근 증가하면서, 법적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홀로 방치하지 말고 곁에서 발생 가능한 위급 상황에 대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각종 영아 사망의 원인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사고율이 낮아지도록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서울남부지법, 2012).

영아급사증후군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고발생 시 영아의 최일선에 있는 응급처치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영아보육교사는 의무적인 영아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영아급사증후군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교사를 위한 영아급사증후군 예방 교육프로그램

* clear74@naver.com

램이 보육교사의 영아급사증후군 예방에 대한 지식, 자기효능감, 실천정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영아급사증후군 예방 교육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위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영아급사증후군 예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보육교사의 영아급사증후군 예방 지식이 높을 것이다.

가설 2: 영아급사증후군 예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보육교사의 영아급사증후군 예방 자기효능감이 높을 것이다.

가설 3: 영아급사증후군 예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보육교사의 영아급사증후군 예방을 위한 실천정도가 높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보육교사를 위한 영아급사증후군 예방 교육프로그램이 보육교사의 영아급사증후군 예방에 대한 지식, 자기효능감, 실천정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의 유사실험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J구에서 영아를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로 본 연구의 목적 및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를 서명으로 동의한 보육교사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연구시작 4주전에 서울시 J구 가정어린이집연합회의 협조를 얻어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보육교사들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은 현재 영아를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로,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 의사소통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자, 교육과 질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자, 과거에 영아급사증후군 예방 교육을 받아 본적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연구수

행기간 내 한번이라도 참석하지 않은 자는 제외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α 값은 .05, 효과크기는 0.8, 검정력($1-\beta$)은 .80을 기준으로 독립표본 검증에 필요한 표본수를 산출한 결과 각 집단별로 요구되는 최소 대상자수는 26명이었고, 중도탈락을 고려하여 실험군, 대조군 각각 40명으로 선정하였다. 사전에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실험군 5명이 탈락하여 실험군 35명(31개 어린이집), 대조군 40명(23개 어린이집)이 본 연구에 최종 참석하였다.

3. 영아급사증후군 예방 교육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영아급사증후군 예방 교육프로그램 개발 전 보육교사 250명을 대상으로 영아급사증후군 예방에 대한 관리 현황 및 교육 요구도를 파악하여(김일옥 등, 2013), 교육시간 및 교육방법을 선정하였다. 가장 선호하는 교육방법인 동영상 및 실습교육을 교육방법으로 선정하였으며, 문헌고찰 등을 통해 영아급사증후군 예방 교육을 위한 동영상 및 교재를 개발하였다. 교육 매체는 교재, 동영상, 강의용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로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개발된 동영상 및 교재에 대한 내용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간호학 교수 2인과, 소아청소년과 및 응급의학과 전문의 1인, 아동전문간호사 1인의 전문가 타당도 검증을 거쳤으며, 보육교사 5인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거쳐 최종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4.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은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연구승인(IRB2012-047)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 대상자의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보육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진행 절차, 정보 활용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한 후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또한 참여 도중 언제라도 참여 철회가 가능하고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알려주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3년 1월 24일에서 2월 22일까지였고, 구조화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실험군의 사전조사는 프로그램 1회차 교육 시작 전 교육장소에서 실시하였고 대조군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 관리에 대한 다른 주제를 교육하면서 사전에 실시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후조사는 사전 조사 후 2주후에 연구보

조원이 각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사후 조사가 끝난 후에 영아급사증 후군 예방 교육프로그램 동영상 CD와 소정의 사은품을 제공하였다. 또한 대조군 대상자에게는 실험군에게 실시하였던 영아급사증후군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 종료 후 동일하게 제공하였다.

5. 자료 분석

앞서 제시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자료는 PASW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두 집단의 일반적 특성과 종속변수에 대한 두 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정은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 t-test를 이용하였고 중재 전후 종속변수에 대한 두 집단 간 차이검정을 위해 Independent t-test를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사전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정

보육교사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모든 변수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동질성 검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동질한 집단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전체 대상자인 보육교사의 연령분포는 22세에서 62세까지로, 평균 연령은 40세였으며 41세~50세가 40.0%(30명), 총 보육경력은 1~3년이 30.7%(23명)이 가장 많았다. 결혼 유무는 기혼자가 77.3%(59명) 더 많았으며,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가설검정

영아급사증후군 예방 교육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의 영아급사증후군 예방에 대한 보육교사의 지식, 자기효능감, 실천에 대한 두 집단 비교를 위해 중재 후 차이를 검정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가설 1: 영아급사증후군 예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보육

교사의 영아급사증후군 예방 지식이 높을 것이다.

교육 프로그램 제공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영아급사증후군 예방에 대한 지식은 유의한 차이를 보여($t=-2.051$, $p<.05$) 가설 1은 지지 되었다.

가설 2: 영아급사증후군 예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보육교사의 영아급사증후군 예방 자기효능감이 높을 것이다.

교육 프로그램 제공 후 영아급사증후군 예방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차이를 보여($t=-2.644$, $p<.001$) 가설 2는 지지 되었다.

가설 3: 영아급사증후군 예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보육교사의 영아급사증후군 예방 실천정도가 높을 것이다.

교육 프로그램 제공 후 영아급사증후군 예방에 대한 실천정도에 유의한 차이($t=-2.279$, $p<.05$)를 보여 가설 3은 지지되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보육교사를 위한 영아급사증후군 예방 교육프로그램이 보육교사의 영아급사증후군 예방에 대한 지식, 자기효능감, 실천에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를 한 유사 실험연구이다. 본 연구 결과 보육교사를 위한 영아급사증후군 교육 프로그램이 보육교사의 지식, 자기효능감, 실천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영아급사증후군 예방교육을 통한 올바른 영아급사증후군 예방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과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켜 영아급사증후군 예방관리 활동의 실천성을 높여 추후 어린이집에서의 영아급사증후군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좀 더 많은 보육교사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영아급사증후군이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장기적으로 추적조사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영아급사증후군 예방 프로그램의 교육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처음으로 시도되었으므로 추후 가정에서 주로 영아를 돌보고 있는 부모 및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영아급사증후군 예방 교육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영아급사증후군

발생 시 분쟁을 감소시키고 효과적인 보상대책마련을 위해 영아를 보육하는 어린이 집을 대상으로 영아급사증후군에 대한 안전공제회 특약가입을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거나,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일옥, 박현희, 박현정(2013). 보육교사의 영아급사증후군 예방에 대한 지식, 자기효능감 및 실천. 한국보육학회지. 13(3), 95~116.
- 보건복지부(2013). 보건복지부 통계연보. 보건복지부.
- 서울남부지방법원(2012). 우리법원 주요판결 2009가합 15740. <http://snambu.scourt.go.kr> 에서 2014년 7월 13일 인출.
- 안효섭(2009). 소아과학. 서울: 대한교과서.
- Hockenberry, M, Wilson, D(2011). Wong's Nursing care of infants and children, 9e, Elsevier.

포스터 발표

- 1.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이용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박경숙(은가람어린이집 원장)
박희숙(강남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 2. 유치원 방과후 과정 담당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분석**
고영자(서울신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조안나(서울신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3. 부모의 유아평화교육에 대한 인식**
이효숙(광주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이미나(전남도립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4.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녹색성장교육의 교수설계 모형 개발**
손수민(강남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 5. 유치원 교사의 임파워먼트, 직무만족, 교사리더십이 교직현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구조모형 분석**
장영숙(경인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 6. 만 2세 반 영아의 혼잣말의 현상학적 연구**
김민영(LG 이노텍 어린이집 원장)
- 7. 유아들의 거친 신체 놀이 의미 분석**
고여훈(청강문화산업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 8. 공립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운영실태 및 운영방안에 대한 운영위원의 인식**
안애경(안산원곡유치원 원감)
최일선(경인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 9. 유치원장의 리더십과 교사 관심사 발달수준간의 관계**
하수정(한국치료놀이학회 수련치료사)
박희숙(강남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 10. 교사의 유아 스트레스 대처 준비와 지원 자료에 대한 인식**
김소영(뿌리유치원 부장교사)
최일선(경인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이용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Using Smart Devices on Young Children's
Emotion Intelligence

박경숙(은가람어린이집 원장)**

박희숙(강남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I. 서론

본 연구는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이용이 영유아의 정서지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영유아의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부모교육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사용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어머니의 배경변인에 따른 스마트기기 이용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3. 어머니의 배경변인에 따른 정서지능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4.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이용과 정서지능의 관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Y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1개소, 국공립 유치원 1개소, 민간어린이집 1개소,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총 4개 기관의 230명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 본 논문은 2012학년도 후기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 peace6135@hanmail.net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이용 현황에 대한 실태를 연구한 선행연구(강금식, 2006; 김희자, 2004; 김행숙, 2010)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전체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집된 자료분석은 Cronbach alpha, 빈도분석, T-test, Oneway ANOVA와 Scheffe검증을 이용하였으며,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이용과 정서지능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Correlation Analysis, 영향분석을 위해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자료처리는 SPSS WINDOWS 18.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이용 실태는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이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을 하였으며, 가장 많이 이용하는 스마트기기는 스마트폰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기기 이용을 시작한 나이는 3세 이하가 가장 많았고 스마트기기 이용을 허락하는 이유는 무료한 시간과 때를 써서 허락 한다는 응답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스마트기기 이용에 대한 인식은 어머니의 배경변인에 따라 살펴보면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고, 직업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기 시작한 나이가 어릴수록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 성별에서는 여아 자녀에 대한 스마트이용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어머니의 배경변인에 따른 정서지능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자녀의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기 시작한 나이가 어릴수록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의 성별에서는 타인정서 인식에서 여아 자녀를 가진 어머니의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이용과 정서지능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기정서조절, 타인정서조절, 정서지능에서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스마트기기 이용은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기정서조절과 타인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쳤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사용실태를 살펴보면, 자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기기는 스마트폰이었고, 영유아가 스마트기기를 이용할 때 어머니는 곁에 있기는 해도 실제적으로 영유아가 스마트기기를 혼자서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들은 영유아의 시력 저하나 전자파의 노출로 인해 고민은 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지도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이는 영유아들이 자제력이 부족한데 대해 어머니들이 스마트기기를 이용할 때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자녀에게 스마트기기를 허락하는 이유 역시 부모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때, 영유아 스마트기기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부모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스마트기기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영유아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스마트기기 활용 방법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와 각 가정에서의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어려움을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유아의 정서지능수준에 따른 정서조절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 유아의 정서지능수준은 정서조절력에 유의미한 차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유아의 정서지능의 하위변인인 자기정서인식, 자기정서조절, 타인정서인식, 타인정서조절 모든 영역에서 유아의 정서조절력에 유의미한 차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정서인식 자기정서조절, 타인정서인식, 타인정서조절, 정서지능이순으로 나타나 자기정서인식이 가장 높고, 자기정서조절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기기 사용 허용의 정도와 정서지능 사이에는 자녀의 기기 사용 허용의 정도와 자녀의 일주일 기기 사용일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어머니의 지도방향은 이용시간과 콘텐츠별 관심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스마트기기 사용과 정서지능과의 관계가 있고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미루어, 단순히 스마트기기 이용시간을 줄이려고 하기 보다는 정서경험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을 때 울거나 떼를 쓰는 아이에게 무조건적인 통제를 가했을 때 그것이 부정적 정서경험으로 남겨질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개인차에 따른 단계별 지도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 담당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분석

An Investigation on Occupational Stress of After School Teachers in Kindergarten

고영자(서울신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조안나(서울신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I. 서론

유아교사의 직무는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으로 그들에게 만족감을 주기도 하지만 조직 내의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 직무스트레스를 받거나 직무몰입을 저하시키기도 한다(강근화, 2004; 김은화, 2004). 적절한 스트레스는 업무에 활력을 주며 교육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주기도 하나, 교사의 스트레스가 지나칠 경우 교사 자신에게는 물론 잠재적으로 유아의 심신에 유해하고 또한 유아와의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유아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김기영, 2007; 김보들맘, 신혜영, 2000; 이명화, 2002). 따라서 유치원교사가 직면하는 스트레스의 실상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함은 중요한 교육적 처치가 될 수 있다. 특히 방과후 과정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도 크게 인식되고 있으며, 연중무휴 운영과 방과후 과정의 원아가 늘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교원의 업무 과중에 따른 스트레스나 운영 현황을 다시 한 번 살펴봄으로써 누리과정의 지속적 발전과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은 필수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 kyj6263@stu.ac.kr

** annacho@stu.ac.kr

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경기도 소재 사립유치원에 재직 중인 방과후 과정 담당교사 총 172명을 연구대상으로 정하여 교사의 기본적 배경에 관한 조사서, 학급 운영 실태 및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질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게 하였다. 이 중 149부가 회수되어 86.6%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검토 결과 응답이 불충분한 6부를 제외한 총 143부를 최종자료로 사용하였다. 질문지의 적절성과 문항내용 및 구성을 파악하기 위해 본조사 전에 세 차례에 걸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3차의 과정을 거쳐 공통의 의견을 도출한 후 자료측정도구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영역을 유아관련, 업무관련, 행정적 지원관련, 대인관계, 경제적 안정, 개인관련 요인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하위 영역별로 직무스트레스 정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행정적 지원 관련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안정요인과 개인관련요인에서의 직무스트레스의 평균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방과후 과정 담당교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를 알아본 결과 30대 이상 연령 집단이, 3년 이상의 교직 경력 집단이,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집단이, 보육교사 1-2급 자격증과 기타 자격 소지자 집단이, 그리고 기혼집단이 직무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집단 간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방과후 과정 학급 운영 실태에 따른 방과후 과정 담당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서는 2학급이상으로 운영되는 집단이, 한 학급당 15-20명 미만 집단이, 혼합연령으로 구성된 집단이, 그리고 보조교사가 있는 집단의 직무스트레스가 가장 높았으며, 집단 간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가족구조의 변화와 함께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대되면서 영유아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하나로 운영되는 방과후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누리과정의 도입과 더불어 정부의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위한 지원체제가 강화됨에 따라 사립 유치원에서도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면서 가족의 양육 부담을 해소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에 대한 이해가 상이해 특별 활동과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하여 특기, 재능교육 방식으로 시간을 운영하거나, 또는 탁아형식과 같은 단순한 보호형식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체계적이지 못한 운영방식으로 인해 유아발달에 적합한 방과후 프로그램이 되지 못하고, 운영의 주체자인 방과후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역시 가중되는 실정이다.

방과후 과정 담당교사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및 운영실태에 따른 직무스트레스가 변인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담당교사의 직무환경이 이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직접적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교사가 지각하고 있는 직무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여 ‘교사가 행복한’, 더불어 ‘유아가 행복한’ 외적·내적 교육 및 보육 환경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나라 모든 유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부모의 유아평화교육에 대한 인식

Parents' Perception of Peace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이효숙(광주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이미나(전남도립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유아교육에서 평화교육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 폭력적 요소가 크게 증가하면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윤혜원, 이순영, 2003). 중고등학생의 문제로 여겨진 학교폭력이 초등학교에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그 정도가 점점 심각해져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교사의 전문적인 평화에 대한 지식을 강조하거나 전문적인 교사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교사양성을 하는 대학의 교육과정에 2013년도 입학생부터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이라는 과목을 교직소양 과목으로 반드시 개설하여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데(교육과학기술부 공문, 2012.12. 03 일자) 이는 이러한 요구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평화교육은 유아기부터 이루어져야 하고, 평화라는 가치적 개념을 이론적으로 습득하는 것 뿐 아니라 실제적인 교육경험을 통해 내재화되었을 때 보다 의미 있게 교육활동으로 실행될 수 있다. 평화의 개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쟁이 없는 상태인 소극적 의미에서 전쟁을 포함한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의미로 변화하게 되었다. 몬테소리의 평화론은 하나로 화합된 인류라는 전체적인 시각에서 조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건설적인 사회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신화식, 2002).

평화교육은 일상적인 삶과 접목되어 가정과 교육기관에서, 사회 환경, 연령,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실천되어 질 수 있다. 즉 평화의 의미는 특성상 지역과 상황에 따

* hsook@ghu.ac.kr

라 다양하게 이해되기 때문에 평화로운 세계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평화에 대한 이해와 노력이 융통성 있는 교육방식과 교육환경이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평화교육의 실천적 차원에서 교사나 부모의 자질과 의지, 평화의 정의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이 오히려 가르치려는 대상과의 갈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평화교육실천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이항재, 방주리 2006).

이에 본 연구는 유아평화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장에서 유아평화교육의 교육과정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평화교육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 1-1 부모의 평화, 평화교육, 평화교육 내용 인식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 1-2. 부모의 평화교육에 대한 인식은 연령 간, 학력 간 차이를 보이는가?
2. 부모의 유아평화교육에 대한 인식은 연령 간, 학력 간 차이를 보이는가?
 - 2-1. 부모의 유아평화교육, 내용, 방법 인식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 2-2. 부모의 유아평화교육에 대한 인식은 연령 간, 학력 간 차이를 보이는가?

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K 광역시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유아의 부모 178명이었다. 연구대상의 연령은 30대 교사가 가장 많았고(88.0%),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고(72.1%), 아버지(13.4%)와 어머니(86.0%)이었으며 사회경제적 배경은 보통(75.4%)이었다.

연구도구는 이효숙·김경의(2014), 문수경(2010), 이지현(2007), 엄정애·안지송(2004), 송경우(2003), 이국희(1999)의 선행연구를 참고로 연구자와 유아교육자가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1차 작성된 설문지는 현장교사 1인과 평화교육 전문가 1인의 자문을 통해 누리교육과정 관련 요소를 유아평화교육 내용에 첨가하여 최종 작성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누리 교육과정 관련 요소를 첨가하여 최종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연구자에 대한 일반사항 5문항, 평화에 대한 내용 7문항(평화개념, 사회적 인식,

평화교육의 내용), 유아평화교육에 대한 내용 8문항(유아평화교육에 대한 시기, 필요성, 필요이유, 누리교육과정 관련 내용, 실시방법, 기대 효과)으로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자료수집은 2014년 6월2일부터 6월 27일까지 K광역시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220부의 설문지를 돌리고, 178부가 회수되었다. 자료처리는 SPSS 통계프로그램으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연령과 학력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자승 검증을 하였다.

Ⅲ. 결과 및 논의

첫째, 부모들은 평화를 경제적 복지 보장과 개개인의 심리적 평화로 가장 많이 인식하였고,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평화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한국사회는 교육, 환경, 폭력과 범죄로, 세계사회는 폭력과 범죄와 핵무기의 위협성이라고 하였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평화교육은 필요하며 비폭력 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고, 인권교육, 통일대비교육, 생태와 환경교육이라고 하였다. 30대 부모일수록 필요하다고 하였고, 20대 부모일수록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둘째, 대부분의 부모들이 유아평화교육은 필요하다고 하였고, 그 이유로, 폭력과 전쟁 예방과 통일 대비교육이라고 하였고, 기대효과는 통일 대비교육이라고 하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전쟁예방을, 연령이 낮을수록 타인을 존중하는 교육이라고 하였으나, 대부분 30대 부모들과 학력이 높을수록 통일 대비교육이라고 하였다. 유아평화교육의 내용은 타인존중, 관용, 평화적 의사소통이 가장 많았고, 문화수용과 환경보존 그리고 통일 대비 교육이라고 하였다. 누리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유아교육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는 유아평화교육의 내용은 대부분 부모들이 통일에 대해 관심 갖기와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평화적 방법 알기를 가장 중요시하였고, 과반수 이상의 부모들은 타인존중과 문화차이 이해, 학대, 성폭력, 실종 상황 시 대처하기,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기, 분단 상황에 대한 위협요소에 대처하기도 많았다. 유아평화교육의 방법은 과반수 이상의 부모들은 평화관련 행사와 장소 견학이라고 하였으며 도서와 그림책, 동영상도 많았고, 가정과의 연계방법은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평화교육에 대해 알리고, 평화관련 장

소를 견학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역사적 특수성에 맞는 통일 대비 교육과 현대 우리 교육의 관심사인 비폭력적인 평화교육을 통한 타인을 존중하고, 누리교육과정 관련 유아평화교육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언하고, 평화관련 행사와 견학을 통한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녹색성장교육의 교수설계 모형 개발

Development of Instructional Model of Green Growth Education
for Early Childhood Pre-service Teachers

손수민(강남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I. 서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환경 및 자원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미래 국가비전으로 제시하며(옥치상, 2009), 이러한 사회적 논제가 우리 사회의 기본 패러다임으로 정착되고 지속적인 범국민운동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어떤 수단보다 효과적임을 표명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2012)에서는 유아기 교육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까지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녹색성장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유아기는 기본적인 생활습관과 가치관 및 태도, 인격 형성의 기초를 이루는 결정적 시기로서 유아기 때부터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올바른 태도와 의식을 길러 주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류혜숙, 신금호, 2010; Wilson, 1996). 교육과학기술부(2012)에서 제시한 유아녹색성장 교육프로그램의 목표도 유아들이 스스로 주변 자연환경과 환경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환경 문제의 원인에 대해 생각하도록 하며,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 녹색생활실천을 습관화하고 녹색시민으로서 의식의 기초를 형성하게 하는 데 있다.

이에 최근 유아교사 양성기관인 대학에서도 녹색성장교육이 중요시 되는 사회적

* sohn@kangnam.ac.kr

움직임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에 힘입어 예비유아교사들을 위한 녹색성장교육 교과목을 이미 개설하였거나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녹색성장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녹색성장교육에 관한 이슈가 최근에 대두되었기 때문에 녹색성장교육 교과목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교사 양성기관 내 녹색성장교육 교과목의 방향과 목표, 다른 교과목들과의 연계를 위한 실질적인 모형을 제시하는데 있다.

II. 연구방법

녹색성장교육 교과목의 바람직한 방향과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실질적인 교수방법 모형을 구상하기 위하여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2012)에서 제시한 유아녹색성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방향, 누리과정 및 교사지침서에 제시된 녹색성장교육에 관한 내용, 녹색성장관련법, 정부의 녹색성장 관련 정책 및 방침, 관련 선행연구 등을 분석함으로써 녹색성장교육 교과목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교수내용을 구상하였다. 한편 예비유아교사들을 위한 전체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녹색성장교육 교과목과의 연계를 위한 실질적인 모형을 마련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논의

누리과정에서 명시된 유아교육에서의 녹색성장교육 추진방향은 유아들이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함양하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누리과정에서 녹색성장교육은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 지구 환경 이해 및 환경 문제 인식,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삶, 글로벌 녹색시민의식 증진 및 실천 등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한편 2013년부터 적용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에서는 질서, 배려, 협력 등 기본생활습관과 인성을 강조하면서 녹색성장교육에 추가로 반영하였다. 이와 더불어 누리과정에서는 녹색성

장교육이 단순히 지식습득 교육이 아니라 태도·가치의 교육이며, 기능이나 기술습득이 아니라 습관형성에 의한 행동교육이 적절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유아를 위한 녹색성장교육은 단순히 환경교육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미래의 녹색인재로서 필요한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강인숙, 2014)으로 생태계 구성원 간의 관계 이해, 공동체 의식 함양, 자연친화적 태도 및 가치관을 형성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아에게 녹색성장교육을 통해 녹색성장에 대한 지식 및 실천능력,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사들의 녹색성장에 대한 태도와 중요성 인식은 유아들의 녹색 가치관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비유아교사들이 바람직한 인식을 갖추는 일은 녹색성장교육의 올바른 전개와 효율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녹색성장교육의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비교사가 갖추어야 할 녹색성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지식과 실천능력을 중심으로 녹색성장에서 강조하는 내용을 재구성하여 환경교육, 경제교육, 인성교육(더불어 살기 교육)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핵심내용을 바탕으로 각각의 세분화된 실현목표와 교수내용을 구성하였다. 또한 예비교사양성기관의 전체교육과정 속에서 녹색성장교육이 유아다문화교육, 유아사회교육 등 기타 다른 교과목과의 연계를 도모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 교과목이 교사양성기관의 학제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교사양성기관의 녹색성장관련 수업의 질을 높여서, 녹색성장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실천능력과 지식을 겸비한 질적으로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본다. 이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서는 향후 예비/현직 교사를 위한 녹색성장교육의 연계, 유아교육기관의 녹색성장교육 실태 및 효과, 녹색성장교육 프로그램 개발·적용·효과 등 효율적인 녹색성장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리라 기대한다.

유치원 교사의 임파워먼트, 직무만족, 교사리더십이 교직헌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구조모형 분석

Structural Model Analysis on the Effects of Kindergarten Teacher's Empowerment, Job Satisfaction, Leadership on their Commitment to Teaching

장영숙(경인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유치원 교사의 임파워먼트, 직무만족, 교사리더십이 교직헌신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형에 의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 교사의 임파워먼트, 직무만족, 교사리더십이 교직헌신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유치원 교사의 임파워먼트가 교직헌신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직무만족과 교사리더십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각각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유치원 교사 177명이다. 이중 공립유치원 교사는 75명이었으며 사립유치원 교사는 102명이었다.

* yjang@ginue.ac.kr

2. 연구도구

유치원 교사의 임파워먼트는 Short와 Rinehart(1992)를 바탕으로 강경석(2009)이 수정·보완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의사결정 8문항, 자기효능감 7문항, 자율성 8문항의 총 2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치원 교사의 직무만족은 Jorde-Bloom(1989)을 기초로 장미정(2011)이 제작한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동료관계 5문항, 원장과의 관계 5문항, 직무자체 6문항, 근무환경 4문항, 보수승진 6문항의 총 2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치원 교사의 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한 교사리더십 측정 도구는 정광희 외(2008)의 도구를 유치원 교사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목표지향성 5문항, 공통체성 5문항, 과업주도성 6문항, 전문성 6문항의 총 2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치원 교사의 교직헌신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노종희(2004)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전문의식 5문항, 교육애 5문항, 열정 5문항의 총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자료분석

설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PASW Statistics 18.0과 AMO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변인들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에 의하여 구조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교사의 임파워먼트에서 직무만족, 교사리더십, 교직헌신에 이르는 경로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각각 .784, .507, .622로서 교사의 임파워먼트는 직무만족, 교사리더십, 교직헌신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에서 교사리더십에 이르는 경로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304로서 직무만족은 교사리더십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리더십에서 교직헌신에 이르는 경로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241로서 교사리더십은 교직헌신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에서 교직헌신에 이르는 경로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057로서 직무

만족은 교직헌신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임파워먼트는 교직헌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직무만족과 교사리더십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임파워먼트가 교직헌신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622이며, 직무만족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045, 교사리더십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122, 직무만족과 교사리더십을 이중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057, 직무만족과 교사리더십을 매개로 한 총간접효과는 .224로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합한 총효과는 .846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의 임파워먼트가 교직헌신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직무만족과 교사리더십은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직무만족과 교사리더십의 경로를 통한 이중 매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IV. 결 론

유치원 교사의 임파워먼트가 직무만족, 교사리더십, 교직헌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유치원 현장에서 교사들에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자율성을 증진시켜, 교사 자신이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동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유치원 교사의 임파워먼트가 교직헌신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직무만족과 교사리더십은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유치원 현장에서 교사의 직무만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의 수립과 교사리더십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만 2세 반 영아의 혼잣말의 현상학적 연구

A Phenomenological Study on Private Speech of 2-year-old Toddler Class

김민영(LG 이노텍 어린이집 원장)*

I. 서론

영유아들이 놀이나 작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혼자서 중얼거리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언어적 유형을 ‘혼잣말(private speech)’이라고 한다(서 현, 2006). 영유아들은 배우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에서 혼잣말을 필요로 하는데, 영유아들은 말하면서 생각할 수 있기도 하고 마음속에 있던 것을 이해하고 명료화하며 초점을 맞추는 도구로 혼잣말을 사용하기도 한다(김은희, 2009). 영유아의 혼잣말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영유아가 생활하는 현상 그 자체를 이해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연구해 온 전통적 방법으로는 영유아가 사용하는 혼잣말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어린이집 현장 그 자체로 들어가서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의 놀이시간 중 만 2세반에 재원하고 있는 영아들의 혼잣말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놀이시간 중 영아의 혼잣말이 갖는 특성은 무엇인지, 이러한 혼잣말은 영아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현상학적 접근에 의해 찾아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의 놀이시간 중 영아의 혼잣말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2. 어린이집의 놀이시간 중 영아의 혼잣말이 갖는 특성은 무엇인가?
3. 어린이집 생활에서 만 2세 영아의 혼잣말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 tncdn1@hanmail.net

II. 연구방법

1.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연구자는 영유아교육기관에서 23년, 어린이집 보육과정 컨설턴트 2년의 경력을 가지고 영아발달과 놀이, 적응 등에 관심을 가지고 현장연구를 하는 박사과정 유아교육학 전공 원장 1명이다. 연구 참여자는 경기도 Y시에 소재한 H어린이집의 만 2세반에 재원하고 있는 남아 5명, 여아 3명으로 모두 8명이며, 이들 중 본 어린이집에서 재입소한 영아는 5명이다.

2. 연구절차

연구자는 Van Manen(1997)의 관찰방법을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참여 관찰을 통한 체험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의 과정은 H어린이집의 만2세반 영아의 혼잣말에 대한 연구문제 설정하기, 영아의 혼잣말 사용에 집중하기, 자료수집(현장관찰)하기, 자료기록하기, 자료 분석하기, 자료 해석하기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를 위한 관찰은 2010년 10월과 11월에 진행되었으며, 연구자는 영아들의 놀이관찰이 가능한 시간을 담임교사와 의논하였다. 연구자는 일주일에 주 1회, 총 8회기 동안 자유놀이시간에 블록놀이 영역에서의 놀이상황을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하고, 메모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참여관찰을 하는 동안 연구자에게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의문점과 관점들에 대한 해결과 검증을 위해 영아들에게는 관찰 직후에, 담임교사에게는 오후 4시 이후에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는 연구자의 주관적인 입장을 객관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3. 자료 분석

연구자는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 분석은 비디오를 촬영한 테이프를 전사한 기록지와 현장관찰 중에 기록한 현장노트를 기록한 내용을 기록·분석함으로 수행되었다. 두 번째 분석과정에서는 첫 번째 분석 과정에서 기록된 의문들을 중심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자료의 분류가 이루어졌다. 세 번째 분석과정에서는 선정된 총괄용어를 중심으로 분류·유목화 하는 작업을 하였다. 즉 연구자는 일

련의 연구과정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각각의 범주를 추출하였으며, 각 범주에 대한 특성을 잘 드러낸다고 판단되는 텍스트를 구성하였으며, 이러한 글쓰기의 과정은 연구자의 통찰에 기초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어린이집 생활에서 나타나는 영아의 혼잣말

영아들은 블록놀이를 하면서 모두 혼잣말을 하고 있었으나 발화의 정도에서는 일정하지 않았으며, 인지적 갈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놀이상황에서는 혼잣말을 더욱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영아들의 혼잣말은 영아 자신에게 주어지는 활동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활동특성을 지닌 놀이상황에서는 영아들의 혼잣말 사용이 증가되었다. 혼잣말은 영아들이 환경에 친숙하고 즐거움을 느낄 때 활동이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혼잣말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블록놀이 활동에서 영아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혼잣말을 많이 사용하였다. 영아들이 자주 표현하는 정서는 자신이 불만이 있을 때, 즐거울 때, 신기할 때 등이었으며, 특히 즐거울 때 혼잣말을 하는 경우는 일과활동 중 자신의 기분이 좋을 때 감탄사와 콧노래를 자주 흥얼거리기는 혼잣말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2. 어린이집 생활에서 나타나는 영아 혼잣말의 특성

영아들이 어린이집 자유놀이시간에 사용한 혼잣말의 내용은 영아의 혼잣말 특성을 활동상황을 ‘지속 및 증진시키기’와 활동상황을 ‘방해하기’로 구분할 수 있었다. 영아의 놀이 활동상황을 지속 및 증진시키기 혼잣말의 하위범주는 ‘정서표현 말하기’, ‘반복 언어 사용하기’, ‘노래 및 콧노래 부르기’, ‘A-ha 해결하기’, ‘사물과의 대화하기’, ‘상관없는 이야기하기’이다. 영아의 놀이 활동상황 방해하기 혼잣말의 하위범주는 ‘정서표현 말하기’, ‘반복 언어 사용놀이’, ‘희망과 바람 말하기’, ‘노래 및 콧노래 부르기’, ‘포기하기’, ‘상관없는 이야기하기’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활동상

황을 지속 및 증진시키기와 활동상황을 방해하기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혼잣말의 하위범주 내용을 찾을 수 있었다. 즉 ‘정서표현 말하기’, ‘반복 언어 사용하기’, ‘노래 및 콧노래 부르기’, ‘상관없는 이야기하기’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영아가 사용하는 모든 혼잣말의 내용 범주에 있어서는 같은 형태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같은 내용 범주라 하더라도 기능에 있어서는 무조건 문제해결 상황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혼잣말이 갖는 의미 분석과정에서 영아의 혼잣말은 행위를 안내·조직화·구조화하는 인지적 작용을 하면서 자신을 조절하고 계획하는 자기 조절적 기능의 의미가 있음을 찾을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교사가 영아들에게 있어 혼잣말이 갖는 의미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고, 더 나아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교사가 영아의 혼잣말을 의미 있게 수용하여, 이를 지원해주는 방법에 한걸음 더 나아가 갈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유아들의 거친 신체 놀이 의미 분석

An Investigation on the Meaning of Children's Rough and Tumble Play

고여훈(청강문화산업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I. 서론

유아들은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하는 놀이를 무척이나 즐긴다. 그러나 유아들이 신체를 이용하여 즐기는 놀이가 모두 그 발달적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놀이 중 하나가 거친 신체 놀이이다. 놀이로서 거친 신체 놀이에 대해 설명하고 분석을 시도한 Blurton-Jones(1972)는 거친 신체 놀이가 웃음, 달리기, 점프하기, 때리기, 레슬링하기, 쫓고 쫓기기의 신체적 행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거친 신체 놀이는 실제 싸움이 아니라 싸우는 척하며 놀이하는 것이다. 하지만 거친 신체 놀이는 외형적으로 공격적 행동이 보인다는 특성 때문에 공격적 행동이나 싸움으로 잘못 오해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현재도 많은 교사들과 유치원 현장에서 유아들의 거친 신체 놀이를 유아들의 놀이로서 인정하기보다 실제 싸움과 구분하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다.

그러나 거친 신체 놀이는 유아가 서로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만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닌 해치는 척 가장하여 행동하는 것이다. 거친 신체 놀이에 대한 연구들은 거친 신체 놀이가 유아들의 신체 발달, 사회성 발달, 우정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들의 거친 신체 놀이가 유아들이 가지는 발달적 측면의 장점이나 유아들의 놀이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도 긍정적 평가가 부족한 실정이다. 거친 신체 놀이를 즐기는 유아들이 그 놀이를 통해 생성하는 의미와 그 가치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놀이가 일어나는 맥락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치원에서의 하루 일과 중에 나타나는 유아들의 거친 신체 놀이

* hun0801@ck.ac.kr

를 관찰함으로써 유아들이 거친 신체 놀이를 통해 가지는 의미를 탐색해보고 이를 통해 거친 신체 놀이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교사들이 그 놀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에 위치한 S유치원 만 5세 K반에 재원중인 유아 2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유아들의 놀이 상황에서 거친 신체 놀이를 관찰하고 유아들이 즐기는 거친 신체 놀이의 의미를 알아보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유아들의 놀이를 가능한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질적 접근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참여관찰과 더불어 연구대상자가 갖는 생각이나 내재된 의미를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면담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신체에 대한 다양한 실험과 탐색

거친 신체 놀이는 달리기, 쫓기와 도망가기, 차기, 밀기, 때리기 행동 등과 같은 신체적 운동을 포함하고 있다. K반 유아들은 거친 신체 놀이를 통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다양한 실험과 탐색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아들의 거친 신체 놀이는 유아들 자신이 가진 신체적 능력에 대해 다시 탐색하고 더 높은 수준에 대한 탐색을 해나가며 유아 자신의 신체적 능력의 발달을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2. 즐거운 감정의 표현

웃음은 거친 신체 놀이와 진짜 다툼을 구분하는 조건 중에 하나이다. K반 유아들은 거친 신체 놀이를 하며 웃음과 미소를 통해 그 놀이의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었다. K반 유아들은 싸움을 하는 듯한 행동을 하며 놀이를 하다 미소를 짓고 웃는 긍정적인 정서가 반영되고 있었다. 거친 신체 놀이는 신체적인 공격이 아닌 유아들이 즐기는

놀이로서 그 놀이를 통해 유아들이 즐거운 감정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친밀감과 우정의 표현

거친 신체 놀이는 혼자서 하는 놀이가 아닌 친구와 함께 하는 사회적인 놀이이다. K반에서는 평소에 잘 어울리는 유아들끼리 놀이집단이 잘 구성되었고 반복되는 집단 구성으로 인해 서로에 대한 친밀감과 우정을 높여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유아들의 거친 신체 놀이는 또래에게 더욱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선호하는 놀이 집단 구성원들이 형성되었으며 반복되는 놀이 상황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친밀감과 우정을 쌓아가고 있었다.

4. 우월감의 표현

거친 신체 놀이에는 공격을 하는 사람과 공격을 당하는 사람, 쫓아가는 사람과 도망가는 사람이라는 강자와 약자의 역할이 있다. 이 역할은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역할 전환이 이루어진다. 유아들은 거친 신체 놀이에서 이러한 역할을 통해 자신이 가진 힘이 우월함을 보여주고 싶어 하였다. 또한 거친 신체 놀이에서의 신체적 동작들을 통해서도 자신의 힘의 우월함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 놀이를 통해 자신이 가진 힘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 우월감을 표현하는 기회로 삼고 것을 있는 알 수 있었다.

5. 창의적인 생각의 표현

거친 신체 놀이에는 다양한 신체적 행동들이 포함된다. 유아들은 그 행동들을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연결하여 그 행동들을 표현하기도 하였고 또한 새로운 상황과 행동을 끊임없이 다양하게 만들어가며 놀이를 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유아들은 거친 신체 놀이 안에서 새로운 상황과 에피소드를 창의적으로 만들어 내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IV. 논의 및 결론

유아들에게 거친 신체 놀이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다양한 실험과 탐색, 즐거운 감정의 표현, 친밀감과 우정의 표현, 우월감의 표현, 창의적인 생각의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거친 신체 놀이를 통해 유아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탐색하고 실험을 해나가며 신체적 발달을 높일 수 있었고, 즐거운 감정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었다.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또래와의 놀이로서 그 안에서 친밀감과 우정을 형성해나가고, 힘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긍정적인 방법으로 표출할 수 있었으며, 유아들이 가진 생각을 놀이 안에서 창의적으로 적용시켜 나가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거친 신체 놀이는 유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표출하고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질 때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친 신체 놀이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교사와 유아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교사가 적극적으로 교육적으로 격려해 줄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겠다.

공립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운영실태 및 운영방안에 대한 운영위원의 인식*

Kindergarten Council Members' Recognition on the Management
Status and Methods of the Public Kindergarten Council

안애경(안산원곡유치원 원감)

최일선(경인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I. 서론

본 연구는 경기도 공립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운영실태 및 운영방안에 대한 운영위원들의 인식을 분석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유아교육기관에 정착되고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립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운영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공립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운영방안에 대한 운영위원의 인식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국·공립 유치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과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205명이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지는 관련문헌 및 선행연구(김은영, 2012, 김지숙, 2013, 양지영, 2006)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토대로 제작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연구대상자의 배경 정보(3문항),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실태(13문항),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운영방안(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문항 수는 39문항이다. 자료

* 본 논문은 2014학년도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 kidis@ginue.ac.kr

처리를 위한 통계방법으로 IBM SPSS Statistics 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으며, 일반적 배경별 응답비율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Ⅲ. 연구결과

첫째, 운영형태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학교와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위원들은 설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위원활동에 대해 대부분이 만족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영역 중 유치원의 예·결산을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있으며, 유치원 운영에 대한 관심 증대를 가장 효과적인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위원들은 학부모 의견 반영과 효율적인 유치원 운영을 위해 유치원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에 대해 학부모의 경비 부담사항과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신장되어야 할 기능에 대해 교육과정 편성·운영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통합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고 통합운영의 장점으로 초등학교와의 연계교육 강화를 택하였으며 초등학교 학사일정과 연계성을 고려해야 하는 불편함과 통합운영에 대한 이해부족을 단점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독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위원들은 장점으로 전문적인 심의 및 자문 가능, 단점으로 업무과중을 선택하였다. 학부모 이해와 참여의식 부족을 운영상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하였으며 지원자 부족이 운영위원 선출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상에 대해 현재와 같은 심의기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고 유치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위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분위기 조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유치원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는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Ⅳ. 결 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운영위원은 설치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립유치원에서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제도적으로 의무화하면서 이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또한, 운영위원들은 유치원운영위원회 활동에 대해 대부분이 만족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운영위원들이 교육공동체로서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교육목표를 실현하여 만족도가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둘째, 대부분의 운영위원들이 학부모 의견 반영과 효율적인 유치원 운영을 위해 유치원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한 반면, 유치원운영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운영위원들은 그 이유가 교육과정에 불필요하거나 위원회의 어려운 조직 및 구성 절차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영위원은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에 대해 학부모의 경비 부담사항과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이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이고 투명한 심의 및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대부분의 운영위원들이 유치원 교육과정을 중요시하는 만큼 교육과정에 대한 심의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유치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영위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자세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운영위원들의 적극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연수가 마련되어야 하며, 유치원운영위원회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심의 및 자문을 통해 유아교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독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통합운영의 장점인 초등학교와의 연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내용에 관한 교류가 필요하며, 단독으로 운영했을 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담 인력지원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 지원과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절차 및 회의 진행 절차의 간소화가 요구된다.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실제 운영 효과에 대한 연구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운영 효과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운영실태와 운영방안에 대한 운영위원들의 인식을 양적인 접근으로 살펴보았는데,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질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유치원장의 리더십과 교사 관심사 발달수준간의 관계*

Relationship between Kindergarten Director's Leadership and
Developmental Levels of Teachers' Interest

하수정(한국치료놀이학회 수련치료사)**

박희숙(강남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I.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유치원장의 리더십과 교사 관심사 발달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장의 리더십과 관심사 발달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유치원 교사 배경변인에 따른 (학력, 연령, 경력, 학급 수, 원장의 전공여부, 담당학급연령, 근무기간) 원장의 리더십은 어떠한가?

셋째, 유치원 교사 배경변인에 따른 (학력, 연령, 경력, 학급 수, 원장의 전공여부, 담당학급연령, 근무기간) 교사 관심사 발달수준은 어떠한가?

넷째, 유치원장의 리더십과 교사 관심사 발달수준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경기도 Y시에 소재한 유치원 교사 250명이다.

2. 연구도구

노종희(1994)가 제작한 '학교장의 변혁 지향적 리더십 질문지'를 황유경(2010)과

* 본 논문은 2013학년도 전기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 sujung021@hanmail.net

Tsai(1990)의 '유치원 교사 관심사 평정척도(KTCRS)' 유아교육 현장에 맞게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3. 자료분석

SPSS WINDOWS 18.0K를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치원 교사의 관심사 발달 수준 측정에 사용되는 항목들의 개념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해서는 크론바하 알파 테스트를 통해 분석하였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분포를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이용하였다. 유치원장의 리더십과 관심사 발달수준의 관계와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는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장의 리더십과 관심사 발달수준을 살펴보면 유치원장의 리더십은 변화선 도가 가장 높게 나왔고 두 번째로 예외적 관리가 높게 나왔으며 인간존중이 가장 낮게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유치원 교사의 관심사 발달 수준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살펴보면, 생존기가 가장 높고, 강화기, 갱신기, 성숙기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치원 교사 배경 변인에 따른 원장의 리더십에 대해 알아 본 결과 유치원 교사의 학력은 상황적 보상, 인간존중 리더십에서, 연령별 차이는 상황적 보상과 변화선도에서, 담당학급 유아의 연령은 변화선도에서, 원장님과 함께 근무한 기간에 따라 원장의 리더십전체와 상황적 보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결과를 살펴보면 유치원 교사 배경인은 원장의 리더십 전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치원 교사 배경 변인에 따른 교사 관심사 발달 수준은 교사의 연령별에서는 성숙기에서, 교사의 경력에서는 갱신기에서, 전체 학급 수에서는 갱신기와 교사의 관심사 발달 수준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원장의 전공여부나 담당학급연령, 근무기간에서는 교사의 관심사 발달수준에 차이가 없었다. 넷째, 유치원장의 리더십과 교사의 관심사 발달 관계는 어떠한가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원장의 리더십과 생존기, 강화기, 갱신기, 성숙기, 원장의 리더십 전체와 유치원 교사의 관심사 발달 수

준 전체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IV. 결 론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장의 리더십은 변혁적 리더십 중 변화선도가 가장 높게나온 반면 인간 존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와 이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원장은 교사들의 의견을 수용 하고 그들을 신뢰하고 동등하게 대우하며 능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유치원 교사의 관심사 발달 수준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살펴보면, 생존기가 높고, 강화기, 갱신기, 성숙기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Katz가 제시하는 그 경력에 해당하는 관심사 특징을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유치원 교사 배경 변인에 따른 (학력, 연령, 경력, 학급수, 원장의 전공여부, 담당학급연령, 근무기간) 원장의 리더십에 대해 알아본 결과 유치원 교사의 학력은 상황적 보상과 인간존중 리더십에서, 연령별 차이는 상황적 보상과 변화선도에서, 담당 학급 유아의 연령은 변화선도에서, 원장님과 함께 근무한 기간에 따라서는 원장의 리더십전체와 상황적 보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유치원 교사 배경 변인(학력, 연령, 학급수, 원장의 전공여부, 담당학급연령, 근무기간)에 따른 교사 관심사 발달 수준은 교사의 연령별 에서는 성숙기에서, 교사의 경력에서는 갱신기에서, 전체 학급 수 에서는 갱신기와 교사의 관심사 발달 수준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원장의 전공여부나 담당학급연령, 근무기간에서는 교사의 관심사 발달수준에 차이가 없었다. 교사의 관심사가 교사의 연령, 경력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때 나이가 있고 경력의 증가에 따라 관심의 폭이 넓어지고 관심의 차이는 커진다고 하겠다.

넷째, 유치원장의 리더십과 교사의 관심사 발달 관계는 어떠한가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원장의 리더십과 생존기, 강화기, 갱신기, 성숙기, 원장의 리더십 전체와 유치원 교사의 관심사 발달 수준 전체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원장의 리더십이 교사의 관심사 발달수준 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유아 스트레스 대처 준비와 지원 자료에 대한 인식*

Kindergarten Teachers' Perceptions on the Stress Coping Preparation
and Support Materials for Young Children

김소영(뿌리유치원 부장교사)

최일선(경인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교사들의 유아 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준비와 지원 자료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가정, 유치원, 사회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아 스트레스의 원인을 알아보고, 상황별 유아 스트레스를 대처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 및 실천 능력을 갖춘 교사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교사의 유아 스트레스 대처 준비와 지원 자료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1-1. 교사의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유아 스트레스 대처 준비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1-2. 교사의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유아 스트레스 대처 준비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1-3. 교사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유아 스트레스 대처 준비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1-4. 교사의 유아 스트레스 대처 준비를 위한 지원 자료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본 논문은 2014학년도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 kidis@ginue.ac.kr

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유아 스트레스 대처 준비와 지원 자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I시 유치원 교사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Onchwari(2010)에의 설문지를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제작된 것이다. 설문문항은 연구 대상자에 대한 배경 정보 4문항, 가족 관련 유아 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교사의 준비 상태 18문항, 유치원 관련 유아 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교사의 준비 상태 19문항, 사회 관련 유아 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교사의 준비 상태 12문항, 유아 스트레스 대처에 도움을 주는 자료 11문항으로 총 60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8$ 이었다.

조사결과에 대한 통계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18.0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항별로 기술통계를 시행하여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고, 배경 변인별로 일원변량 분석과 t검증을 시행하였다.

III. 연구결과

연구결과를 연구문제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의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유아 스트레스 대처 준비에 대한 인식은 부모와 떨어졌을 때(분리불안)와 지나친 학습으로 인해 놀이할 시간이 없었을 때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가족(부모, 형제)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교사의 배경 변인에 따른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유아 스트레스 대처 준비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교사의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유아 스트레스 대처 준비에 대한 인식은 친구들이 때렸을 때 가장 높았으며, 다른 유치원으로 전학을 갔을 때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교사의 최종학력, 교직경력, 자격증에 따른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유아 스트레스 대처 준비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교사의 기관유형에 따른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유아 스트레스 대처 준비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사립유치원 교사가 공립유치원 교사보다 유아 스트레스 대처 준비에 대

한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셋째, 교사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유아 스트레스 대처 준비에 대한 인식은 남자(여자)라서 다르게 취급 받았을 때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쟁의 위협을 받았을 때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교사의 배경 변인에 따른 사회에서 발생하는 유아 스트레스 대처 준비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교사의 유아 스트레스 대처 준비를 위한 지원 자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교사 자신의 경험이 유아 스트레스 대처 준비에 도움이 되는 지원 자료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누리과정 지도서 및 해설서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기관유형에 따른 교사의 유아 스트레스 대처 준비를 위한 지원 자료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누리과정 지도서 및 해설서와 교사 장학 자료, 연수 및 워크숍, 동료 교사와의 협의, 전문가와의 자문 및 면담은 사립 유치원 교사가 공립 유치원 교사보다 유아 스트레스 대처 준비에 도움이 되는 지원 자료로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에 따른 교사의 유아 스트레스 대처 준비를 위한 지원 자료에 대한 인식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누리과정 지도서 및 해설서, 동료교사와의 협의, 교사용 유아교육관련 저널은 학력이 낮을수록 유아 스트레스 대처 준비에 도움이 되는 지원 자료로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경력에 따른 교사의 유아 스트레스 대처 준비를 위한 지원 자료에 대한 인식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수 및 워크숍은 유아 스트레스 대처 준비에 도움이 되는 지원 자료로 교직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가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에 따른 교사의 유아 스트레스 대처 준비를 위한 지원 자료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IV. 결론

교사의 유아 스트레스 대처 준비와 지원 자료에 대한 인식은 교사의 경험의 유무에 의하여 차이가 나타났다. 교사가 경험해 보았던 유아 스트레스 대처 준비와 지원 자료에 대한 인식은 높게 나타난 반면, 교사가 경험해 보지 못하였던 유아 스트레스 대처 준비와 지원 자료에 대한 인식은 낮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교사가 경험하지 못하

있던 유아 스트레스의 대처 방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치원 교사들이 상황별 유아 스트레스를 대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연수가 필요하다. 또한 유아 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국육아지원학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육아지원학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함).

제2조(목적)

본회는 유아교육, 보육, 아동학, 특수교육, 아동 및 가족복지 관련 분야의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 회원 상호간의 전문적 지식 교류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 육아지원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한 기관에 두고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사 업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관련 학문간 연구 및 정보의 교류
2. 학회지 및 각종 간행물 발간
3. 정기적인 국제 및 국내 학술대회 개최
4. 국/내외의 관련 정부 및 연구 기관과의 교류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

제 3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학생회원으로 구분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평생회원은 45세 이상의 정회원으로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를 칭한다.
2. 정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자를 칭한다.
 - ① 대학 및 대학원에서 유아교육, 보육, 아동학, 특수교육, 아동 및 가족복지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 ② 관련 시설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
3. 학생회원은 유아교육, 보육, 아동학, 특수교육, 아동 및 가족복지 관련 분야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를 칭한다.

제6조(입회 절차)

본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입회 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의 권리
 - ① 총회 참석 및 표결권
 - ②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 ③ 본 회의가 주관하는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 ④ 본 회의 학회지 및 간행물을 배부 받을 수 있는 권리
2. 학생회원의 권리
 - ① 본 회의가 주관하는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 ② 본 회의 학회지 및 간행물을 배부 받을 수 있는 권리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회칙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본 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3. 본 회가 정하는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9조(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이 다음 각 항 중 한 가지에 해당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격 상실
2. 본 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이사회에 의한 제명결의
3. 3년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 4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구성)

본 회의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5명 (수석 부회장 1명, 권역 부회장 4명)
3. 상임이사 1명
4. 이사 약간명
5. 감사 2명
6. 고문 약간명

제11조(임원선출)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3. 고문은 전회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한다.
4.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역할 및 의무)

본 회 임원의 역할 및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는 본 회와 관계되는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4. 이사는 이사회 의 구성원으로서 본회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제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5. 감사는 본 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6. 고문은 본 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자문한다.

제 5 장 총 회

제14조(총회의 소집)

본 회의 총회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정기총회는 년 1회 4월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 의 결의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2.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전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의 성립)

본 회의 회의 성립과 의결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모든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여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결의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2. 총회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3. 결석회원의 위임은 출석 정족수에 산입하되, 그의 표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16조(총회의 의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예·결산 심의 및 승인
2. 회칙 심의 및 개정
3. 회장 및 감사 선출
4. 회비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17조(수입)

본 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학회 출판물의 인세, 연구 보조금 및 특별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2. 회비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18조(회비의 책정)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책정한다.

제19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1월 1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본 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과 결산은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20조(결산)

회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다음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1조(연구물의 지적 소유권)

본 회의가 주관한 연구물의 지적 소유권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가 주관한 연구물의 지적 소유권은 본회에 있다.
2. 본 회의가 주관한 출판물과 연구용역의 계약자는 임원회에서 정하고 별도의 계약단서가 없는 한 지적 소유권의 대가인 인세 등은 본 회의 수입으로 편입된다. 그리고 본 회의가 주관한 연구용역지출잔금은 본 회 예산에 편입된다.

부 칙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2. (효력발생) 본 회칙은 2005년 6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본 회칙에 의한 최초의 임원임기는 회칙 발효일부터 2007년 2월말로 종료된다.

‘육아지원연구’ 논문 투고 규정

‘육아지원연구’ 논문 투고 규정

1. 모집 분야

유아교육, 보육, 아동학, 특수교육, 아동 및 가족복지 전반에 관한 이론 및 현장 연구를 주제로 한 학술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2. 투고가능 논문

- (1) 학문적인 연구 목적과 체계적인 연구 방법을 적용한 연구논문 또는 문헌연구논문으로 타 학회지에 이미 게재(게재 예정 포함)되지 않았거나 심사가 진행 중이지 않은 논문이어야 한다.
- (2) 학위논문의 요약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논문 첫 장 하단에 이를 명시한다.

3. 발간 시기

‘육아지원연구’의 2013년까지의 발간 시기는 연간 2회(4월 30일, 10월 31일)이며, 2014년부터의 발간 시기는 연간 4회(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로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4. 접수 시기

- (1) 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되, 1월 발간 학회지는 전년도 11월 15일, 4월 발간 학회지는 2월 15일, 7월 발간 학회지는 5월 15일, 10월 발간 학회지는 8월 15일에 접수 마감한다(공휴일 등과 무관하게 15일 마감).
- (2) 논문 접수 시 모든 저자가 본 학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 (3) 원고가 게재되는 순서는 원고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5. 접수 및 확인 방법

- (1) 논문 접수는 편집부 메일 ksecec2@hanmail.net로 받는다.
- (2) 논문이 접수되면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로 ‘투고 논문 접수 안내’ 공문을 메일로 발송하고, 이를 통해 논문 접수를 확인한다.
- (3) 논문 접수와 관련된 문의는 편집부 메일(ksecec2@hanmail.net)을 이용한다.

6. 투고요령

- (1) 원고 제출시 논문명, 저자명, 소속 및 직위, 연락처(교신저자의 직장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반드시 표기) 등을 기재한 '논문 투고서'(서식)를 작성하여 논문과 분리된 문서로 제출하며, 논문 본문에는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는다.
- (2) 한글 2000 이상의 환경에서 '육아지원연구 투고 원고 작성 양식'에 따라 원고를 작성한다.
- (3) 국문과 영문초록, 주제어(국문, 영문/ 2-4개 내외)를 반드시 명시한다.

예) 주제어: 자아존중감(self-esteem)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

- (4) 저자가 같은 2편의 논문이 동일 호에 게재될 수 없으며(공동연구의 경우도 포함됨), 한 저자당 연 2회를 초과하여 게재할 수 없다.

7.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

- (1) 논문 게재 요청자는 투고 시에 10만원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심사료를 추가로 납부한다(논문 재심사 - 편집위원회 결정 20,000원, 심사위원 결정 60,000원 / 영문초록 재심사 - 20,000원).

납부계좌: 신한은행 110-393-920284 예금주 이승연

- (2) 심사결과 게재되는 논문 중에서, 연구지원비를 받아 수행된 논문의 게재료는 편당 30만원,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은 논문은 편당 20만원이며, 소정의 원고분량(17쪽)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쇄 쪽 당 20,000원씩 추가 게재료를 징수한다.
- (3) 별쇄본은 20부를 무료로 제공한다.

8. 윤리규정

- (1)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모든 저자는 윤리규정 준수에 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중복게재 및 표절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논문을 학회지에서 삭제하며, 이를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소속 기관에 알린다.
- (3) 해당 연구자는 향후 3년간 회원자격을 박탈하며, 해당 기간 동안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Scholar’ 원고 작성

- 1) 원고 분량은 4쪽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 2) 제목의 번호 붙임은 다음의 위계에 따라 번호를 붙이되, 불필요한 번호 매김은 삼간다.
 1단계 : I, II, III ...
 2단계 : 1, 2, 3 ...
 3단계 : 1), 2), 3) ...
- 3) 본문은 신명조로 작성되며 편집 규격과 양식은 다음에 따라 설정한다.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머리말	꼬리말
20	15	30	30	15	15

- 4)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으로 제한하며, 참고문헌 작성법은 최신판의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ublication manual(현재 6판) 양식에 따른다.
 - (1) 저서는 저자, 발행연도, 제목, 발행지역, 발행기관 순으로 제시한다.
 이육아(2013). 유아교육과정. 서울: 한글사.
 Williams, R. L. (2000). Multicultural education in early childhood classrooms.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2) 논문은 학술지를 위시한 정기간행물 속의 논문은 저자, 발행연도, 논문명, 학술지명 권(호), 페이지순으로 제시한다.
 이육아(2002). 부모-자녀 관계와 교사-유아 관계의 관련성 분석. 육아지원연구, 3(2), 1-28.
 Basom, M. R., & Frase, L. (2004). Creating optimal work environments: Exploring teacher flow experiences. Mentoring and Tutoring, 12(2), 241-258.
 - (3) 학위논문은 저자명, 발행연도, 논문명(영문은 이탤릭체), 학위수여기관과 학위명순으로 제시한다.
- 5) 논문의 글자와 문단은 아래 제시된 편집 양식들에 맞추어 투고한다.

제 5대 한국육아지원학회 이사 (2013.5 ~ 2015. 4)

고 문(전임회장)	이기숙(이화여자대학교)	장영희(성신여자대학교)	정미라(가천대학교)	홍용희(이화여자대학교)
회 장	문연심(강남대학교)			
수석 부회장	이윤경(서원대학교)			
권역별 부회장				
경기·인천권	권용은(안산대학교)			
충청·대전·강원권	김신영(백석대학교)			
경상·대구·부산권	한미라(경남대학교)			
전라·광주·제주권	조순옥(원광보건대)			
상임이사	박희숙(강남대학교)			
학술이사	박정선(명지전문대학교)	최일선(경인교육대학교)		
연구이사	조경자(호서대학교)	조운주(한국교통대학교)		
편집이사	엄정애(이화여자대학교)	이승연(이화여자대학교)		
출판이사	곽아정(연성대학교)	정가윤(명지대학교)		
홍보이사	김난실(명지전문대학교)	이진화(육아정책연구소)		
교육이사	이명희(중부대학교)	권정윤(성신여자대학교)		
사업이사	오은순(공주대학교)	이현숙(경북대학교)		
서기이사	김현자(두원공과대학교)			
감 사	김향자(명지전문대학교)	김수영(대구가톨릭대학교)		
이 사	곽향림(호원대학교)	김정례(시화단설유치원)		
	김진선(한라대학교)	김현지(우송정보대학교)		
	김희진(이화여자대학교)	류지후(나랑유치원)		
	문무경(육아정책연구소)	박선희(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박순호(대구보건대학교)	박은혜(이화여자대학교)		
	박혜경(동덕여자대학교)	박혜경(신성대학교)		
	배지희(성신여자대학교)	백영애(전남과학대학교)		
	부성숙(경기대학교)	성소영(안양대학교)		
	성원경(우송대학교)	신건호(강남대학교)		
	신상인(국공립유치원대표)	심성경(원광대학교)		
	오연주(대림대학교)	유수옥(우석대학교)		
	유영의(순천향대학교)	이경화(성결대학교)		
	이소현(이화여자대학교)	이지현(건국대학교)		
	이차숙(가천대학교)	이춘자(침례신학대학교)		
	이학선(경기도유아교육진흥원)	이현옥(성결대학교)		
	이희경(부천대학교)	임원신(남서울대학교)		
	임은숙(인천재능대학교)	전선옥(한림성심대학교)		
	정영희(수원여자대학교)	정혜순(장충유치원)		
	조은진(서울여자대학교)	조인경(혜천대학교)		
	조화연(혜천대학교)	지옥정(한국교통대학교)		
	진명희(광주대학교)	최석란(서울여자대학교)		
	최윤정(원주대학교)	홍순정(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간 사	강경민(강남대학교 박사과정)	최수랑(강남대학교 박사과정)		

연 수 이 수 증

성 명 :

소 속 :

위의 사람은 한국육아지원학회가 주최한 2014년도
추계 학술대회에 참여하여 아래의 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 주제 : 한국유아교육의 도전과 과제
- 일시 : 2014년 11월 1일 (토) 9:30 ~ 16:00
- 장소 : 강남대학교 살롬관 B1 108호

2014년 11월 1일

한국육아지원학회장



Memo

Memo